

# 어촌여성의 노동실태와 정책과제

2005. 12

최성애 · 황진희 · 엄선희

□ 보고서 집필 내역

◆ 연구책임자

- 최 성 애 : 제1장~제6장

◆ 연구진

- 황 진 회 : 제1장, 제2장, 제3장, 제4장

- 엄 선 희 : 제2장, 제3장

□ 산·학·연·정 연구자문위원

◆ 공 미 혜 (신라대학교 교수)

◆ 이 상 고 (부경대학교 교수)

◆ 조 재 현 (해양수산부 과장)

## 머 리 말

우리나라 여성들의 경제활동참가율은 지속적으로 증가하면서 남성 경제활동 참가율과의 격차가 줄어들고 있다. 이는 출산율저하, 국가보육관련서비스 지원 확대, 가전제품의 발달 등으로 여성의 경제활동에 대한 기회비용이 감소하고 여성의 사회진출에 대한 인식개선이나 여성의 고학력화, 자아실현 욕구 증대 등 복합적인 요인에 의한 것으로 볼 수 있다.

특히 최근 우리나라의 출산율은 OECD 국가 중에서 가장 낮은 수준으로 향후 노동력 또는 인력수급에 상당한 차질이 예상되어 국가적 차원에서 저출산 문제에 적극 대처하고 특히 모성보호 또는 모성을 인권적 차원에서 다루고자 하는 것이 여성정책 또는 미래 인력확보 정책의 큰 흐름이라 할 수 있다.

어가의 경제활동인구 중 50.3%, 어업종사원의 45.8%가 여성으로 어업노동에 있어 여성의 참여는 남성에 결코 뒤지지 않으며, 어촌인구의 감소 및 고령화로 어업활동에 여성 참여율은 더욱 높아질 것으로 전망된다. 또한 향후 어업노동에서 여성노동 또는 여성인력이 차지하는 비중과 역할은 매우 중요한 요소가 되고 있다.

그러나 어촌여성은 어업노동과 함께 가사노동, 출산 및 육아 등 재생산노동의 담당으로 과중 노동 상태에 있으며, 어업노동 및 재생산노동의 부담을 줄이지 않는다면 어업부문에서 여성의 참여와 역할은 크게 기대할 수 없으며, 또한 어업인력의 확보에 많은 애로가 예상된다. 따라서 어업노동 및 재생산노동에서 여성참여를 유도하는 노동여건개선이 시급한 실정이며 중요과제라 할 수 있다.

이러한 문제의식에서 출발한 본 연구는 여성노동에 대한 이론적 검토에서 시작하여, 여성정책변화에 대한 세계적 동향을 살펴보고 이어 우리나라의 여성노동정책을 분석하였다. 그리고 수산관련 통계자료를 이용하여 어촌의 어가여성 노동력 구조와 변화추이를 분석하고, 어촌여성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하여 노동실태와 정책수요를 파악하였다. 이러한 다양한 측면에서 연구된 내

용을 바탕으로 향후 해양수산부 또는 중앙관계부처가 추진해야 하는 정책과제를 도출하는 것이 본 연구의 목적이다.

또한 이 연구를 통하여 지금까지 수산정책대상에서 중요하게 다루지 않았던 어촌여성에 대한 인식전환의 계기가 되고, 어촌여성 및 여성어업인을 주요정책 대상으로 규정하여 새로운 수산정책을 수립하여 어촌여성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는 데 궁극적인 목적이 있다.

이 연구는 어촌여성과 관련하여 선행연구가 거의 이루어지지 않은 상태에서 우리나라 최초로 수행된 연구로서 의의가 있다. 특히 설문조사에 의한 어촌여성 노동실태 파악은 처음 수행되는 연구이며, 이로 인해 어촌여성의 노동실태가 최초로 알려졌다고 할 수 있다. 아울러 이 연구에서 제안된 정책과제는 어촌여성의 의사가 반영되어 있으며 해양수산부의 정책활용 또는 정책개발과 추진에 중요한 근거 자료로서 많이 활용될 것으로 기대된다. 특히 이 연구에서 개발된 설문조사내용은 향후 해양수산부가 중장기계획 수립을 위한 기초조사시에 유효한 참고자료가 될 것이다. 그리고 최초연구로 한계가 있었던 이 연구가 계기가 되어 지속적이고 다양한 후속연구가 활발하게 이루어져 연구의 발전을 기대한다.

이 연구는 한국해양수산개발원의 수산어촌연구본부의 최성애 연구위원, 엄선희 책임연구원 그리고 해운물류연구본부의 황진희 책임연구원이 집필하였다. 그리고 설문조사에 기꺼이 응해 주신 어촌여성 여러분, 연구수행에 관련 자료를 제공해주시고 협조를 아끼지 않은 해양수산부 관계관계 감사의 뜻을 전한다. 그리고 집필에 참여한 연구자 여러분께 노고를 표한다.

2005년 12월

韓國海洋水產開發院

院 長 李 正 煥

---

# 목 차

---

ABSTRACT	i
----------	---

요 약	iii
-----	-----

제1장 서 론	1
---------	---

1. 연구의 필요성과 목적	1
2. 연구의 내용과 방법	3
1) 연구의 주요내용 / 3	
2) 연구수행방법 / 4	

제2장 국내외 여성정책 동향	6
-----------------	---

1. 여성노동의 이론적 검토	6
1) 인적 자본론 / 6	
2) 차별이론 / 8	
3) 혼잡가설 / 10	
4) 이중노동시장이론 / 11	
5) 페미니즘 이론 / 12	
2. 국제 여성정책 및 여성고용 정책의 동향	15
1) 국제여성정책의 동향 / 15	
2) 국제 여성고용정책의 동향 / 19	

3. 우리나라 여성노동시장 변화와 여성노동 정책동향 .....	22
1) 여성노동시장의 구조변화 / 22	
2) 우리나라 여성노동정책의 동향 / 28	

### 제3장 국내외 여성정책사례분석 ..... 37

1. 우리나라 여성농업인에 대한 정책사례 .....	37
1) 현 황 / 37	
2) 여성농업인 정책 추진 배경 / 38	
3) 여성농업인 육성정책 개요 / 40	
2. EU 회원국 수산업에서 여성참여의 실태와 특징 .....	43
1) 수산부문 여성참여 실태 / 44	
2) EU 수산업에 있어 여성참여의 특징 / 51	
3. 일본의 어촌여성 정책사례 .....	54
1) 여성정책 수립을 위한 법제도 / 54	
2) 어촌여성 관련 정책동향 / 55	

### 제4장 어촌여성의 노동실태분석 ..... 70

1. 어업·어촌의 현황과 어가여성의 노동력구조 .....	70
1) 어업·어촌의 현황 / 70	
2) 어가여성의 노동력 구조 / 85	
2. 설문조사에 의한 어촌여성의 노동실태와 정책수요 .....	92
1) 설문조사개요 / 92	
2) 일반 사항과 가구특성 / 95	
3) 어업노동실태 / 97	
4) 가사노동과 생활만족도 / 107	
5) 복지 및 문화생활 실태 / 112	

- 6) 정책 수요 / 119
- 7) 설문조사결과의 시사점 / 125

## 제5장 어촌여성의 노동여건 개선을 위한 정책과제 ————— 129

- 1. 여성 어업인 관련 현행 정책사업의 문제점 .....129
- 2. 정책과제 .....130
  - 1) 국내외 사례분석을 통한 정책과제 / 131
  - 2) 설문조사 결과 분석을 통한 정책과제 / 135

## 제6장 결론 및 정책건의 ————— 141

- 1. 결 론 .....141
- 2. 정책건의 .....145
  - 1) 정책과제 요약 / 145
  - 2) 정책건의 / 146

## 참고문헌 ————— 149

## 부록 : 설문서 ————— 153

## 표목차

〈표 2-1〉 성별 경제활동참가율 .....	23
〈표 2-2〉 여성취업자의 산업별 구성비 .....	24
〈표 2-3〉 산업별 여성취업자 .....	24
〈표 2-4〉 직업별 여성 취업자 .....	25
〈표 2-5〉 종사상 지위별 여성 취업자 .....	26
〈표 2-6〉 혼인상태별 여성 경제활동인구 .....	27
〈표 2-7〉 연령별 여성 경제활동 참가 .....	28
〈표 3-1〉 우리나라 여성농업종사 가구원 현황 .....	37
〈표 3-2〉 여성농업인 육성정책 주요내용 .....	42
〈표 3-3〉 EU 회원국 조사대상 어촌지역 .....	43
〈표 3-4〉 EU 수산업부의 남녀 고용 형태(2000) .....	44
〈표 3-5〉 국별 수산업 부문의 여성고용 비율(2000) .....	45
〈표 3-6〉 여성어업인의 사회적 지위 및 법적 권리 .....	45
〈표 3-7〉 수산업에 여성참여 장애요인(외적 요인) .....	46
〈표 3-8〉 수산업에 여성참여 장애요인(내재적 요인) .....	47
〈표 3-9〉 EU 수산업 부문의 임금 격차추정(1995년 기준) .....	48
〈표 3-10〉 EU회원국의 수산업에 여성참여자간 사회문화적 비교 .....	49
〈표 3-11〉 전체 남녀 평균임금 및 수산업에서 남녀 임금격차 비교 .....	51
〈표 4-1〉 어가수와 어가인구수의 변화추이 .....	71
〈표 4-2〉 연령별 여성어가인구의 변화추이 .....	72
〈표 4-3〉 연령별 남성어가인구의 변화추이 .....	72
〈표 4-4〉 전·겸업별 어가수의 변화추이 .....	75
〈표 4-5〉 겸업분야별 어가수의 변화추이 .....	76



〈표 4-6〉 어업형태 종사가구의 변화추이 .....	77
〈표 4-7〉 어업형태별 종사원의 변화추이 .....	78
〈표 4-8〉 양식장 면적 규모별 어가수 변화추이 .....	80
〈표 4-9〉 동력선 톤수 규모별 어가수 변화추이 .....	81
〈표 4-10〉 어가소득의 변화추이 .....	82
〈표 4-11〉 어가여성의 교육정도별 변화추이 .....	85
〈표 4-12〉 성별 어가인구의 종사분야의 변화추이 .....	87
〈표 4-13〉 어업부문의 여성종사원 변화추이 .....	89
〈표 4-14〉 연령별 여성종사원 변화 추이 .....	90
〈표 4-15〉 여성 어업경영주의 변화추이 .....	91
〈표 4-16〉 표본추출 개요 .....	93
〈표 4-17〉 표본의 지역별 분포현황 .....	93
〈표 4-18〉 조사표 내용 .....	94
〈표 4-19〉 조사대상 일반사항 및 가구특성 .....	96
〈표 4-20〉 어업종사기간 .....	97
〈표 4-21〉 어업일 참여 형태 .....	98
〈표 4-22〉 어업 이외의 일을 하는 이유(겸업에 종사하는 경우) .....	99
〈표 4-23〉 어가여성의 어선 승선여부 및 형태 .....	101
〈표 4-24〉 하루평균 노동시간 .....	101
〈표 4-25〉 어업과 관련하여 컴퓨터 사용 유무 .....	102
〈표 4-26〉 어업경영 의사결정 참여도 .....	103
〈표 4-27〉 어업노동 참여 정도현황 .....	104
〈표 4-28〉 어업노동 및 직업에 대한 불만 이유 .....	105
〈표 4-29〉 어업활동 속에서 자신의 위치 .....	107
〈표 4-30〉 가사노동(활동)의 부담정도 .....	108
〈표 4-31〉 가사노동 중 가장 걱정되고 힘든 일 .....	109
〈표 4-32〉 가계 총수입 기여정도 .....	110

〈표 4-33〉 가정생활 전반에 대한 만족정도 .....	111
〈표 4-34〉 5년 후 가정경제사정 전망 .....	112
〈표 4-35〉 부모의 노후부양에 대한 책임 .....	113
〈표 4-36〉 노후생활 대책(복수응답) .....	114
〈표 4-37〉 보육시설 활용 유무(6세 미만의 자녀가 있는 경우만) .....	115
〈표 4-38〉 어촌보육시설에 바라는 점 .....	115
〈표 4-39〉 건강정도 .....	116
〈표 4-40〉 어업작업으로 인한 증세빈도 .....	117
〈표 4-41〉 국내외 여행 또는 관광 유무(야유회 포함) .....	118
〈표 4-42〉 매년 여행 또는 관광 횟수 .....	118
〈표 4-43〉 단체 혹은 조직에 가입여부 .....	120
〈표 4-44〉 어촌여성 관련단체 가입 .....	120
〈표 4-45〉 단체 및 조직 활동상 또는 가입시 어려운 점 .....	121
〈표 4-46〉 제도의 인식 및 이용 여부 .....	122
〈표 4-47〉 어가여성을 위한 제도 또는 시설의 필요 정도 .....	123
〈표 4-48〉 여성 어업전문 인력의 요건(복수응답) .....	124
〈표 4-49〉 여성노동에 적합한 환경 또는 시설개선, 지원방안 .....	125
〈표 5-1〉 여성어업인후계자 육성사업 실적 현황 .....	130
〈표 5-2〉 여성어업인후계자 육성을 위한 연차별 투자계획 .....	130
〈표 5-3〉 여성농어업인육성법의 주요내용 .....	134
〈표 5-4〉 어촌여성을 위한 정책수요 .....	136

## 그림목차

〈그림 3-1〉 어촌여성기업화그룹 지원사업 실시절차 .....	63
〈그림 3-2〉 일본 전어련 여성부 현황 및 활동 .....	69
〈그림 4-1〉 어가수·어가인구의 감소 .....	71
〈그림 4-1〉 연령별 여성어가인구의 구성변화 .....	72
〈그림 4-3〉 연령별 남성어가인구의 구성변화 .....	73
〈그림 4-4〉 전·겸업별 어가구성비 .....	76
〈그림 4-5〉 겸업분야별 어가구성비 .....	76
〈그림 4-6〉 어가의 종사어업형태 변화 .....	78
〈그림 4-7〉 어업형태별 종사원 구성비 변화 .....	79
〈그림 4-8〉 어가소득의 구성비변화 .....	83
〈그림 4-9〉 가처분소득과 어가경제잉여의 변화 .....	84
〈그림 4-10〉 어가여성의 교육정도 구성 .....	86
〈그림 4-11〉 어가인구의 취업률 변화 .....	87
〈그림 4-12〉 어가여성의 주종사 분야 변화 .....	88
〈그림 4-13〉 연령별 여성어업경영주의 구성변화 .....	91
〈그림 4-14〉 어업종사기간의 분포현황 .....	97
〈그림 4-15〉 연간 종사기간(특정기간 일시적 종사) .....	98
〈그림 4-16〉 어업이외 타 업종 종사여부 .....	99
〈그림 4-17〉 어업 이외의 일을 하지 않는 이유 .....	100
〈그림 4-18〉 성에기 및 어한기별 노동시간 분포현황 .....	102
〈그림 4-19〉 어가여성의 컴퓨터 사용 현황 .....	102
〈그림 4-20〉 어업경영 의사결정 참여율 구성현황 .....	104
〈그림 4-21〉 어업노동 및 직업 만족도 .....	105

〈그림 4-22〉 어업노동에서 가장 힘든 일 .....	106
〈그림 4-23〉 가사노동의 부담정도 .....	108
〈그림 4-24〉 가사노동 분담 .....	106
〈그림 4-25〉 소득 충족도 .....	110
〈그림 4-26〉 생활불만의 이유 .....	112
〈그림 4-27〉 농어민 연금 가입유무 .....	114
〈그림 4-28〉 최근 2년 동안 종합 건강검진 유무 .....	117
〈그림 4-29〉 지난 1년 동안 문화행사 관람 횟수 .....	119

## **ABSTRACT**

---

### **The working conditions and policy recommendations of women's labor in fishing villages**

In Korea there is little differences between the structure of women's involvement in the fisheries sector and that of the men's participation, which is shown by the fact that 50.3% of the economically active population in a fishery household economies, and 45.8% of employee in fisheries' are female workers.

Also, the proportion of the women's involvement in the fisheries sector is expected to gradually increase with the decline in the general population, and the growth of the aging population in fishing villages. Therefore, the roles and the positions of the female workforce or women's labor in the fisheries sector have become very important factors.

Moreover, women are engaged in heavy labor activities because of the social domestic responsibilities like household affairs and parenting, which can be a main obstacle to women's participation in the fisheries sector.

Accordingly,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give recommendations to

overcome these obstacles. The lack of data concerning women's involvement in the fishery sector led to an research approach of reviewing existing literature, carrying out surveys of 500 women in fishing villages and analyzing agricultural sector case studies as well as other countries' case studies.

Having developed the first ever study of the working conditions for women in the fisheries sector, the following recommendations are given:

- 1) Carry out the basic survey on woman's economic activity in fishing villages
- 2) Make a 5 year plan for professionally developing the female-fishermen
- 3) Develop policies incorporating women's opinions from fishing villages
- 4) Develop policies that support female-experts in the fisheries sector
- 5) Strengthen public relations of the policies related to female-fishermen
- 6) Prepare policies by the National Federation of Fisheries Cooperatives to aid woman in fishing villages

These recommendations could be accomplished by the support and encouragement of the Ministry of Maritime&Fisheries.

### 제1장 서론

#### 1. 연구의 필요성

- 국가 전체적으로 남성노동력 또는 인력의 증가율이 둔화되면서 여성노동력의 활용도가 성장잠재력을 결정하는 중요한 변수가 되고 있고, 경제사회의 소프트화에 따라 여성노동력의 중요성은 커지고 있음
  - － 여성들의 경제활동 참가율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더불어 어촌여성의 어업활동 참여 비중도 증대하고 있으며, 어촌인구의 감소 및 고령화로 인한 어촌여성의 어업종사는 더욱 증대할 것으로 전망
- 2004년 어가인구 20만 9,855명 중 여성인구는 10만 4,493명으로 50%에 달하고, 어업부문 어가여성종사원은 56,004명으로 전체 어가여성의 56% 수준임. 그리고 여성어업경영주는 18%에서 계속 증가하고 있음
  - － 그러나 어촌여성의 사회경제적 여건은 더욱 열악해지고 있음. 어촌여성의 급속한 고령화, 비어업부문 종사자 감소와 어가소득 감소, 도시와의 문화적 격차 확대, 육아 및 청소년 교육여건 취약, 여성노동부담 증가, 노후대책 미흡 등이 대표적인 현상이며 문제점이기도 함
  - － 어촌여성의 사회경제적 여건의 악화는 어촌 정주인구의 감소와 급격한 이주로 이어져 우리나라 어촌의 건전한 발전을 어렵고 하고 더 나아가 수산업의 경쟁력 강화에도 많은 지장을 초래할 수 있어 이에 대한 대책마련이 시급한 실정임
- 최근 여성의 어업활동 참여비중 증가 속에서 더욱 열악해지고 있는 어촌 여성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여성농어업인육성법」이 제정되었으나, 현재 어촌여성에 대한 생활실태 파악도 미흡할 뿐만 아니라 중장기 기본계획도 수립되지 않은 상태임

- 반면 농업부문에서는 2002년에 제정된 여성농어업인육성법에 따라 제1차 여성농업인 육성 5개년 계획(2001~2005)을 이미 수립하여 시행하고 있으며, 제2차 계획이 내년부터 시행될 예정임
- 따라서 여성의 경제활동 증가와 더불어 확대되고 있는 어촌 여성의 역할에 대한 재인식과 평가를 통해 지금까지 수산정책대상에서 중요하게 다루지 않았던 어가여성 및 여성어업인에 대한 인식을 전환하고 주요 정책 대상으로 규정하여 새로운 수산정책을 수립해야 할 필요성이 제기됨

## 2. 연구의 목적

- 어업부문에서 어촌여성의 참여율이 증가하고 또한 여성의 역할과 여성 노동력이 중요해짐에 따라 노동환경개선을 통해 어촌여성의 참여율을 높이고, 동시에 삶의 질 향상을 위하여 향후 추진해야 하는 정책과제를 도출하는데 있음
- 동시에 「여성어업인 육성 5개년 계획」 수립을 위한 사전기초 연구의 목적도 겸함

## 3. 주요연구내용 및 연구방법

- 제2장 국내외 여성정책 동향에서는 임금노동이외에 무임금의 가사노동을 담당해야 하는 여성노동에 대한 이론적 검토를 통해 여성노동에 대한 이해와 함께 어촌여성의 노동실태를 분석함에 있어 가사노동을 함께 분석하는 근거를 마련함
- 제3장 국내외 여성정책 사례분석에서는 한국 농촌, EU 수산업, 일본 어촌여성 등에 대한 사례분석을 통해 여성 어업인 육성을 위한 세부정책 과제 도출에 기여하도록 하였음
- 제4장 어가여성의 노동실태분석에서는 우선 통계자료를 활용하여 어촌의 어가여성의 인구학적 특성 및 어가여성의 노동력 구조와 변화를 분



석하고, 어촌여성의 노동실태를 파악하기 위하여 전국의 어가 450가구 표본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함

- 제5장은 앞에서 분석된 어촌여성의 노동실태와 정책수요를 바탕으로 어촌여성의 노동환경여건 개선을 위한 정책과제를 도출함
- 제6장의 결론에서는 연구 결과를 요약하고 정책과제의 효과적 추진을 위한 정책건의를 제시함

## 제2장 국내외 여성노동정책 동향

### 1. 여성노동의 이론적 검토

- 여성노동의 경우 임금노동과 함께 임신, 출산, 육아, 가사 등 재생산노동 까지 주로 담당하고 있으므로 이러한 여성노동의 이해를 돕기 위하여 사회구조와 연계하여 설명하는 이론적 검토를 함
  - － 여성이 노동시장에서 승진, 임금, 고용안정 등에서 차별을 받는 이유를 인적자본론, 차별이론, 혼잡가설, 이중노동시장론, 페미니즘이론으로 살펴봄
  - － 노동시장에서 여성노동의 차별 근간에는 여성노동의 특수성 즉 재생산노동을 담당하거나 해야 한다는 사실과 인식이 자리 잡고 있으며, 여성노동에 관한 앞의 이론 중에는 여성노동의 특수성을 사회구조와 연계시켜 설명하거나 또는 개인의 능력으로 접근하는 이론으로 나뉘어짐

### 2. 국제여성정책 및 여성고용정책의 동향

#### 1) 국제여성정책의 동향

- － 유엔이 추구하는 여성정책의 개념은 사회, 정치, 문화, 교육, 고용, 보

- 건 금융과 사회보장, 법률 등에 있어서 남녀평등의 실현을 위한 적극적인 조치를 제시하는 포괄적인 것으로 인권문제까지 포함하고 있음
- 유엔은 1975년을 ‘세계여성의 해’로 정하고 여성의 지위향상을 위해 채택한 최초의 전략은 여성개발론(Women-in Development : WID)이며 이 전략은 고용부문에서 여성의 지위를 향상시키는데 집중. 그리고 1985년 케냐의 나이로비에서 열렸던 제3차 세계여성대회에서 성별개발론(Gender and Development : GAD)으로 전략의 분석틀을 발전시킴. 여성과 남성의 삶 그 자체가 차이가 있으므로 성별 차이를 적극적으로 반영하는 성관점에서 여성과 남성의 동등한 참여를 통한 발전을 모색하고자 함
  - 그리고 1995년 베이징에서 열린 제4차 세계여성대회에서 남녀평등이라는 궁극적인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성주류화(Gender Main-streaming) 전략을 공식적으로 채택함. 성주류화란 ‘성(Gender)이슈를 공공기관의 모든 의사결정과 정책실행에 고려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음. 최근의 성 인지적(gender sensitive) 기법은 성별 차이의 사회경제적 영향을 정책과정에 고려하는 것으로 성 주류화를 이룩하기 위한 구체적인 방법으로 평가됨

## 2) 국제 여성고용정책의 동향

- 여성고용정책은 보다 많은 여성들이 경제활동에 참여하고 평등한 대우를 받게 하는 정부의 법률, 기구, 제도, 시책 등을 포함하는 것으로 정의됨
- 여성고용정책은 각 국가의 여건이나, 환경, 사회문화적 배경에 따라 다양하게 나타나고 있으나 정도만 차이가 날 뿐 성 불평등은 어디서나 존재하고 있으므로 일반적인 경향성은 보임
- UN은 여성차별철폐협약을 통해 고용상의 여성차별을 철폐하기 위해 협약국이 취해야 할 사항을 제시하고 있음
- EC(EU)는 1980년대와 1990년대에 걸쳐 그동안 정비한 EC(EU) 법상의 남녀평등원칙을 실현하기 위해 4단계의 행동계획을 채택하여 가맹

- 국이 적극적인 남녀평등 정책을 추진하도록 촉구하고 있음
- OECD의 여성고용관련 정책은 유엔여성차별철폐협약에서 제시되고 있는 내용과 유사하나 특별한 점은 육아의 남녀공동책임 명시와 소수 여성에 대한 관심 등을 들 수 있음

### 3) 우리나라 여성노동시장 변화와 여성노동정책 동향

#### (1) 여성노동시장 구조변화

- 1980년대 이후 여성의 경제활동참가율이 지속적으로 증대하고 연령과 학력 또한 높아졌으며, 1차 산업에서 3차 산업종사 여성의 급속한 증가, 미혼여성의 대폭적인 감소와 함께 반대로 기혼여성 취업자의 증대로 여성노동시장이 구조변화를 보임
- 이러한 변화는 여성의 고학력화와 그에 따른 남녀간 교육수준의 격차 감소, 자녀수의 감소 및 기혼여성의 사회참여에 대한 인식의 긍정적 전환과 병행하여 이루어졌다고 볼 수 있음
- 이러한 사회 인식의 긍정적 변화에도 불구하고 여성노동시장의 구조적 문제들, 예를 들어 출산, 육아 등으로 인한 M자형 취업분포곡선이 나 여성노동의 비정규직화 등의 현상은 여전히 문제들로 남아 있음

#### (2) 우리나라 여성노동정책 동향

- 우리나라의 초기 여성정책은 주로 소외계층 여성을 대상으로 한 복지 증진 정책이 대부분임
- 1980년대는 여성노동정책에 대한 관심이 증대되면서 여성 노동 문제와 관련해서 처음으로 본격적인 정부 정책이 수립된 시기
- 1990년대 남녀고용평등법 개정, 여성발전기본법 제정과 2001년 모성보호관련법 개정을 통해 고용평등정책, 모성보호정책, 고용확대와 적극적 조치 등을 위한 국가의 정책적 노력은 확대되고 있음
- 그러나 여성들이 가정과 직장을 양립할 수 있도록 다양한 지원제도가 마련되어야 함. 특히 모성보호는 여성개인의 책임이 아니라 이 사회 전체가 재생산이라는 측면에서 사회적 책임이라는 인식이 확산되어

야 하며 만혼과 출산율 저하는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지 않고서는 해결되지 않음. 따라서 모성보호가 아닌 모성권리를 인정하고 사회적 모성의 권리로 확대해 나가야 함

### 3. 국내외 여성정책사례분석

#### 1) 우리나라 여성농업인 관련 정책사례

- 농가여성의 농업종사비율(51%), 농업주종사자(53%)
- 여성농업인 육성정책, 여성농업인 육성 5개년 계획 수립(1, 2차)

〈여성농업인 육성정책 주요내용〉

구 분	주 요 내 용	
육성정책 목표	○ 여성농업인의 전문인력화·지위향상·삶의 질 제고를 통한 건강한 농촌가정의 구현과 농업·농촌사회의 발전	
육성정책의 기본방향	○ 신기술·신지식농업에의 대응을 위한 경영능력 강화 ○ 여성농업인의 역할증대에 부응하기 위한 지위향상 촉진 ○ 여성농업인의 안정적 농촌정주를 위한 삶의 질 향상 ○ 여성농업인 육성정책의 체계적 추진을 위한 인프라 확충	
핵심 정책 과제	기본 전략	핵심정책과제
	(1) 여성농업인의 경영능력 강화	(1-1) 여성농업인의 전문인력화 (1-2) 여성농업인의 영농활동 지원
	(2) 여성농업인의 지위향상 촉진	(2-1) 여성농업인의 사회참여 활성화 (2-2) 여성농업인센터운영 지원
	(3) 여성농업인의 삶의 질 제고	(3-1) 모자농업인자녀 학자금 지원 (3-2) 농가도우미제도의 정착
	(4) 여성농업인 정책시스템 구축	(4-1) 여성농업인정책과제의 개발연구 (4-2) 여성농업인정책 추진체계 정비

#### 2) EU 수산업에서 여성참여 실태와 특징

- EU에서 어로어업에 종사하는 여성의 비율은 전체적으로 3% 정도에 불과하여 매우 제한적인 수준
- EU 수산업에서 여성참여의 특징은 다음과 같음

- i) 어로활동 또는 조업활동에서 여성은 배제되거나 최소한의 참여만 허락되는 반면 양식업에 있어서는 상대적으로 여성의 참여율이 높음
- ii) 수산가공업의 경우 미숙련 기술을 가진 여성의 참여가 높음
- iii) 수산경영이나 관리 부문에 여성들의 참여가 상대적으로 높음
- iv) 어업활동에 있어서 여성의 노동은 어로활동을 하는 배우자(남성)의 보조로서 매우 중요하지만 그에 대한 평가는 매우 낮음
- v) 여성 어업인의 법적인 지위는 수산가공업의 경우 여성관련 노동권 및 조합법에 의해, 양식업의 경우는 여성평등에 관한 일반법 등에 의해 규정

### 3) 일본의 어촌여성 정책사례

- 일본은 여성의 경제활동 및 사회진출이 증대하고 여성의 역할이 국가적으로 중요해짐에 따라 여성의 경제 및 사회 등 모든 활동과 관련하여 ‘남녀고용기회균등법’, ‘남녀공동참획(参劃)사회기본법’을 통해 남여가 공동으로 참여하여 사회를 만들어가는 내용을 규정하고 있음.
- 일본의 남녀공동참획사회기본법에 의해 마련된 시책 중 어촌과 관련된 내용은 다음과 같음
  - i) 모든 장소에서 의식과 행동의 변혁
  - ii) 정책·방침결정과정에서의 여성참획의 확대
  - iii) 여성의 경제적 지위 향상과 취업조건·환경의 정비
  - iv) 여성이 생활하기 좋고 활동하기 편한 환경 만들기
  - v) 고령자가 안심해서 활동하고 생활할 수 있는 조건의 정비
- 일본 수산청에서는 수산기본법에 여성참여의 촉진에 관한 내용을 규정하고, 어촌여성의 다양한 능력향상을 도모하기 위한 연수 및 활동 등을 지원하는 등 수산부문에서 여성활동의 참획을 위한 구체적인 환경정비 시책을 전개하고 있음
  - i) 수산업개량보급직원을 통하여 여성어업자그룹에 의한 지역어획물의 고부가가치화 등의 연구·실천 활동을 추진

- ii) 출산·육아기에 있는 여성의 경영참획이 가능하도록 모성보호를 위한 세미나개최, 지역에서 자녀교육상담체제구축을 위한 검토회 등을 실시
  - iii) 여성어업자그룹이 실시하는 수산물가공 등을 위한 기구설치 등에 필요한 무이자자금(연안어업개선자금 중 부인·고령자활동자금) 조성 지원
  - iv) 어촌여성 등의 기업화 그룹이 실시하는 수산물의 가공·판매 등의 사업에 대한 지원(수산정보조지원사업)
- 또한 일본 전국어업협동조합에서는 수산기본법 및 수산기본계획의 충실한 이행을 위하여 수산분야에서 여성참획의 촉진뿐만 아니라 어촌지역의 활성화 등을 고려하여 다음과 같이 다양한 어촌여성 대책을 추진
- i) 자립을 지향하는 조직·사람 만들기 : 어업협동조합여성부의 리더육성, 차기 리더의 육성, 생활설계 작성, 여성참획촉진, 대화의 기회만들기, 기업적 활동의 촉진
  - ii) 바다환경보전 : 천연비누사용추진운동, 해변청소운동, 식수운동
  - iii) 수산물 소비확대 : 활동비용의 일부 조성, 어협전국여성연추장품의 설정, 어촌에서 직접 만든 상품의 홍보 등

#### 4. 어촌여성의 노동실태분석

##### 1) 어업·어촌의 현황과 어가여성의 노동력 및 취업구조

- 어업총조사, 어업기본통계조사, 어가경제 등의 통계자료를 이용하여 분석
  - 과거 25년 동안 어가수, 어가인구 어업종사가구원은 지속적인 감소로 그 규모가 크게 축소되었으며, 젊은 세대가 감소하고 고령세대가 증가하는 고령화현상의 일반화 등의 특성이 나타나고 있음
  - 2004년 현재 어가수는 1980년에 비해 54% 규모로, 어가인구는 1980년에 294,928명에서 209,855명으로 28.9% 규모로 축소됨
  - 특히 15~19세 및 20대의 젊은 여성이 차지하는 비중이 특별히 낮은

데, 이러한 젊은 여성의 감소가 어촌남성의 결혼대상 부족의 한 원인임을 알 수 있음

- 어가의 종사어업형태가 과거 25년 동안 양식업어가는 감소하고 어선사용 즉 어선어업종사가구는 증가하였는데, 이로 인해 어업형태별 종사원에도 변화가 일어났음

· 1980년에는 양식업 종사원이 전체 어업종사원의 52% 비중으로 가장 많았으나, 2004년에는 어선어업의 종사원이 50%로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함

· 전업어가의 비중은 1980년 20,813가구, 16%의 비중에서 2004년에는 23,580가구, 33%의 비중으로 각각 증대하였음. 그러나 최근 전업어가수 및 전업비율은 2003년 이후 감소경향을 나타내고 있음

○ 양식장 면적 규모별로 볼 때, 1ha 미만 소규모 영세양식어가가 전체 구성비에서 차지하는 비율이 높아지고, 동시에 비교적 대규모라 할 수 있는 6~10ha 양식장의 어가수 및 구성비율이 증가하는 양극화현상이 나타남

○ 어가소득은 1980년도 어업소득 67.5%, 어업외소득 32.5%이었던 것이 2003년도에는 어업소득 45%, 어업외소득 36% 그리고 이전소득이 19%로 그 구성비가 변화됨

○ 어업부문의 여성노동력 구조를 보면, 남성대비 여성비율이 46%에 달하고, 20대 이하가 차지하는 비중이 24%에서 1%로 급감함(2004/1980)

○ 여성어업노동력의 고령화가 진행되고 아울러 여성어업경영주의 노령화도 급격히 진행되고 있음

○ 어업부문에 종사하는 어가의 여성종사자는 증가하고 있으나, 비어업부문의 어가여성종사자는 점점 줄어들어 어가여성의 주종사 분야가 비어업부문에서 어업부문으로 바뀌고 있는 취업구조를 나타내고 있음

## 2) 어촌여성 노동실태에 관한 설문조사와 시사점

### ○ 조사개요

- 조사대상 : 어촌의 어가여성
- 450개 표본 : 전남120(26.7%), 경남125(27.8), 경북 58(12.9%), 강원56(12.4%), 충남57(12.7%), 제주34(7.6)
- 면접원 직접 방문에 의한 1:1 개별면접 방식, 구조화된 설문지
- 조사기관에 의뢰하여 설문조사 실시(7. 14 ~ 7. 26)

### ○ 설문조사항목

구 분	조 사 항 목
일반사항	연령, 학력, 가족수, 가족형태, 연간평균소득
어업노동실태	종사기간, 종사어업종류, 종사기간, 어업노동분담현황, 노동시간 어업경영관련 의사결정 참여도, 여성어업인의식, 어업노동만족도 컴퓨터 이용현황
가사노동과 생활만족도	가사노동분담현황, 가사노동부담, 여가시간현황, 생활만족도, 향후 경제생활전망, 소득충족도
복지 실태	노후부양, 건강, 보호노동 및 보육, 연금가입현황, 문화생활
정책수요	단체 및 조직가입현황, 관련정책 인지 및 시설이용현황 필요정책 및 시설수요, 여성전문인력의 요건

### ○ 설문조사의 시사점

- 어가의 가족은 자녀를 포함하는 가족형태를 다수 구성하고 있어 향후 노력여하에 따라서는 어업후계자 확보에 유리한 입장에 있다고 할 수 있음
- 10년 이상의 장기간, 성수기에는 10시간 이상의 장시간 어업에 종사하고 있으며, 어업노동 분담률은 약 43%로 어업노동에 있어 여성의 역할을 무시할 수 없는 중요한 변수가 되고 있음
- 어업경영 의사결정에 여성주도의 참여는 낮으나 부부가 의논하여 결정하거나, 어업의 세부작업은 주로 남편이 주도하며, 남편과 공동어



업경영인 또는 여성전문어업인으로 인식하고 있어 어업노동에 있어 실질적으로 여성의 역할이 정착되고 있음

- 어업노동에 불만을 많이 갖고 있으며, 그 이유로는 일한 만큼의 댓가가 없고, 어업일이 너무 힘들다는 것이며, 어업노동에서 가장 힘들고 걸림돌은 육체적 힘부족, 여성노동에 적합하지 않는 작업환경, 가사일 그리고 육아 및 자녀교육 등으로 어촌여성의 노동실태를 잘 나타내고 있음. 어업은 노동강도가 높아 여성노동에는 적합하지 않으므로 친여성적인 작업환경으로 개선하거나 또는 노동강도가 높지 않는 수산분야의 일거리를 발굴, 제공해야 함
- 여성인 주부가 주로 가사노동을 전담하고 가사노동에 대하여 부담스러워하고 있으며, 가사노동 중 가장 걱정되고 힘든 것으로 자녀양육 및 교육을 들고 있음. 어촌여성 역시 도시 및 타 지역과 마찬가지로 자녀양육 및 교육에 대한 부모로서의 책임과 의무 그리고 열의와 정성을 엿볼 수 있음
- 어촌여성은 부모의 노후부양책임은 부모자신에게 있다고 생각하고 있으며, 노후대책을 걱정하고, 특히 어촌보육시설에 대하여는 저렴한 비용과 좋은 시설을 희망하고 있음. 따라서 어촌보육시설 이용료에 대한 지원확대 등을 통해 어촌여성의 자녀양육에 대한 부담을 경감시키는 특별한 배려가 필요
- 생활 전반에 대하여 만족보다는 불만이 많으며, 그 이유로는 불안정한 소득, 힘든 어업일, 자녀양육 및 교육여건 미흡 등을 들고 있는데 어촌여성의 총체적인 근심과 걱정거리를 엿볼 수 있음. 향후 어가소득 안정화 및 자동화 또는 기계화 등 여성친화적인 어업작업 환경개선 등은 해양수산부가 적극 관여하고 검토해야 할 정책과제라 할 수 있음
- 어촌여성이 어업노동에서 자신의 권리를 찾고 지위를 향상시키기 위하여 개인보다는 단체가입을 통하여 추진하는 것이 효과적임. 그러나 아직까지 어촌여성의 단체 및 조직 가입률은 매우 저조한 실정이며, 집안 어업일, 경제적 애로, 교통불편 등이 단체활동 또는 가입에 걸림

돌이 되고 있음. 어촌여성이 조직하는 단체 등 대한 적극적인 지원을 통하여 여성의 지위와 권리를 향상시키는 데 해양수산부는 노력을 해야 할 것임.

- 어업인후계자여성우대제도, 수협복수조합원제도, 어가도우미제도 등 해양수산부가 실시하고 있는 현행 여성어업인 관련 제도에 대한 인식 및 관련 시설이용은 매우 저조한 것으로 나타나 정책목표를 달성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평가할 수 있음. 따라서 이들 제도와 사업에 대한 적극적인 홍보의 강화필요
- 어촌여성이 바라는 정책을 우선순위로 제시하면 첫째, 6세 미만 유아동을 위한 육아 도우미 및 프로그램개발 관련시설확충, 둘째, 교육 참여확대(어업기술, 컴퓨터기능 습득), 셋째, 노인후생복지 시설확충, 넷째, 6세 이상의 청소년을 위한 자녀교육도우미 및 프로그램개발, 관련시설 확충, 다섯째, 수협이사, 대의원, 어촌계임원으로 진출하도록 지원, 여섯째, 여성의 건강관리 및 무료검진 등의 확대 등으로 해양수산부는 향후 정책개발에 이들 의견을 우선적으로 수용할 필요가 있음
- 전문여성어업인이 되기 위해서는 가장 먼저 가사노동부담이 줄어야 하며, 그 다음으로 여성에 적합한 어업종사여건, 여성어업인의 지위 향상, 여성에 적합한 유망업종과 품종개발여건 구축 그리고 여성자신의 적극적인 노력과 의식개발 등의 순임. 이것은 여성자신의 적극적인 노력과 의식개발도 중요하지만 이에 앞서 주변 여건과 기반이 먼저 개선되거나 바뀌어야 한다는 것으로 정책의 우선순위를 정하는 데 중요한 근거가 될 수 있음
- 여성노동에 적합한 어업노동환경개선 또는 시설개선으로 샤워시설설치, 가로등시설확충, 공동화장실시설확충, 휴게시설설치, 어장진입로 포장, 선착장개선, 자동화시설확충 등등이 요구되었으며, 이 요구는 어업작업 환경개선뿐 아니라 후생복지 차원에서의 개선으로 어촌여성 또는 여성어업인 정책개발 및 활용에 적극 반영하거나 수용되어야 할 것임

- 어촌여성의 발전과 지원방안으로 어촌여성이 희망하는 것은 교육비 지원, 어업관련기술교육지원, 노인복지시설확충지원, 무료건강검진 범위확대, 잠수병치료지원, 육아시설확충지원, 해녀탈의실 온수보일러 지원 등등 종류가 다양하며 어업생산에 한정되지 않고 가사노동을 포함하여 후생복지 등에 걸쳐 그 범위가 넓다고 할 수 있음. 여성이 가사노동을 대체로 전담하기 때문에 이러한 총체적인 지원체계가 마련되지 않는다면 어업노동에서 여성노동력 또는 인력의 감소는 빠르게 진행될 것이며, 아울러 여성의 어촌정착 기피는 더욱 심화될 것으로 예상됨

## 5. 어촌여성의 노동여건 개선을 위한 정책과제

### 1) 국내외 사례분석을 통한 정책과제

#### ① 어촌여성의 경제활동실태 기초조사사업 실시

- 어촌여성의 노동여건 개선을 위한 가장 우선적인 과제는 어촌여성 또는 여성 어업인의 생활, 취업, 복지, 노동 등 경제활동 전반에 대한 정확한 실태파악을 위한 기초조사 사업을 실시해야 함
- 상세한 정보가 없는 상태에서 여성 어업인의 삶의 질과 사회적 지위향상을 위한 정확한 정책 수립이 불가능하기 때문임
- 특히 세계 각국의 여성노동 정책 패러다임이 WID(Women-in Development)에서 GAD(Gender and Development)로, 그리고 성 주류화(Gender Mainstream)로 변화하는 추세를 고려할 때, 성 인지적 노동통계의 구축을 위한 여성 어업인의 경제활동 실태조사는 여성어업인 육성정책의 성공을 위한 가장 기본적인 과제임
- 어촌여성의 경제활동 실태조사의 대상은 전국의 어가여성을 대상으로 하고, 경제활동 실태조사의 주요내용은 노동력 구조, 취업구조, 노동환경, 복지환경 등을 파악할 수 있도록 해야 하며, 본 연구에서 개발된 설문조사표는 유효한 참고가 될 것임

## ② 여성어업인 육성5개년 계획 수립

- 어촌여성에 대한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차원에서 정책접근을 위하여 ‘여성농어업인육성법’에 근거한 여성어업인 육성5개년 계획 수립이 긴요함
- 해양수산부에서 여성농어업인육성법에 근거한 여성어업인 육성기본계획 수립 시에는 다음 내용을 포함해야 함
  - i) 여성어업인 육성정책 목표
  - ii) 여성어업인 육성정책의 기본방향
  - iii) 여성어업인 육성을 위한 핵심사업
- 여성어업인 육성정책의 기본목표는 궁극적으로 여성어업인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 데 있다고 할 수 있음. 우리나라 어가 여성이 남성에 비해 상대적으로 차별받고 있고, 또 도시에 비해 사회문화적인 혜택에서 소외되어 있는 이중적 차별 현실을 고려할 때 어촌 여성의 삶의 질 향상 사업은 매우 시급한 과제임
- 여성농어업인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시책으로 i) 모자가정에 대한 지원, ii) 농어업을 경영하는 노인여성에 대한 지원, iii) 농어촌지역 아동에 대한 보육 및 방과 후 아동지도, iv) 출산을 전후한 여성농어업인의 모성보호와 건강증진을 위한 지원, v) 기타 복지증진에 관한 사항 등이 포함되어야 함

## ③ 수산업협동조합의 지도사업에 어촌여성 지원대책 사업 포함

- 일본의 어업협동조합은 오래전부터 여성부를 설치하여 어촌의 어가여성을 대상으로 다양한 여성대책을 추진해 오고 있음. 즉 조직·사람만들기(여성부 리더육성, 생활설계 작성, 여성참여촉진 등), 바다환경보전(천연비누사용추진운동, 해변청소운동, 식수운동), 수산물소비확대(어촌에서 직접 만든 상품 홍보, 위생관리의 철저 등) 사업 등이 광범위하게 추진되고 있음
- 우리나라 수산업협동조합의 지도사업부문에는 어촌여성을 대상으로 하는 사업은 없는 상황. 따라서 수협의 어촌여성 지원사업의 신설과 함께 지도사업의 강화가 요구됨

## 2) 설문조사결과 분석을 통한 정책과제

### ① 어촌여성의 지원정책 및 사업개발

- 본 연구의 설문조사에서 가장 높은 응답순위로 본 어촌여성에 관한 정책 수요 및 관련 추진방법을 개략적으로 제시하면 다음 <표>와 같음

<어촌여성을 위한 정책수요와 추진방법>

순 위	정 책 수 요 명	추진 방법
1	6세 미만 유아동을 위한 육아 도우미 및 프로그램개발, 관련시설확충	- 관계중앙행정기관 공동 - 해수부 : 실태파악, 지원
2	어업기술, 컴퓨터기능 습득 등의 교육참여 확대	- 해수부 : 교육지원 - 관계기관 참여 - 수산과학원 - 지방해양수산청 - 지구별 수협
3	노인후생복지를 위한 시설확충	- 관계중앙행정기관 공동 - 해수부 : 실태파악, 지원
4	6세 이상 청소년을 위한 자녀교육도우미 및 프로그램개발, 관련시설확충	- 관계중앙행정기관 공동 - 해수부 : 실태파악, 지원
5	여성이 수협이사, 대의원, 어촌계임원으로 진출하도록 지원	- 해수부 : 정책개발 - 수협 협조, 여성할당제
6	여성의 건강관리 및 무료검진 등의 확대	- 관계중앙행정기관 공동 - 해수부 : 실태파악, 지원
7	여성이 수산물가공, 유통, 어촌관광 등에 진출할 수 있도록 기술과 자금지원	- 해수부 : 정책개발
8	부부가 공동으로 어업인후계자가 되는 것	- 해수부 : 정책개발

- <표>의 8가지 정책수요 중 자녀양육 및 교육, 건강관리, 후생복지 등의 4가지 정책과 관련해서는 관계중앙행정기관이 참여하는 ‘농림어업인삶의질향상특별법’에 의해 제1차 농림어업인삶의질향상및농산 어촌지역개발시행5개년계획(2005년~2009년)이 2005년 6월에 수립 시행중에 있음
- 나머지 어촌여성이 요구하는 4가지 정책수요는 수산분야와 관련된 것으로 <표>에서 제시한 추진방법처럼 해양수산부가 주체가 되어 향후

추진해야 함

② 어촌여성의 노동환경 개선프로그램 개발

- 어촌여성이 전문여성어업인이 되기 위한 전제조건으로 첫째 생활환경 개선 등으로 현재보다 가사노동에 대한 부담이 감소되어야 하며 둘째, 여성의 어업종사여건의 개선이 이루어져야 하고 셋째, 여성어업인의 지위가 향상되어야 하며 넷째, 어업과 관련하여 유망업종 및 품종개발 여건이 구축되어야 하며 다섯째, 여성 스스로의 적극적인 노력과 의식 개발이 제시됨
- 이러한 어촌여성의 의견을 반영하여 해양수산부에서는 다음과 같은 정책의 개발 또는 추진이 필요
  - i) 어촌여성의 가사노동 부담을 경감시키는 프로그램의 사업개발과 특히 어촌의 자녀양육 및 교육에 대한 지원사업의 확대추진, 특히 본 연구에서 제시된 어촌여성이 희망하는 다음의 지원방안을 고려해야 함

〈설문조사에 의한 예시 : 어촌여성의 지원방안〉

- 교육비지원, -어업관련기술교육, -노인복지시설확충, 무료건강검진범위확대,
- 육아시설확충, -잠수병치료지원, -어업외 부업일거리 마련지원,
- 일한만큼의 적절한 대가, -생활정보제공, -여성단체기관 확충 등

- ii) 여성에게 적합한 어업작업 환경개선과 및 지원프로그램이 개발되어  
야 하면 설문조사에서 제시된 다음의 어업시설 및 작업환경 개선은  
해양수산부 관련사업에 반영하면 곧 바로 활용될 수 있을 것임

〈설문조사에 의한 예시 : 친여성적 어업시설 및 작업환경 개선〉

- 샤워시설 설치, -가로등시설확충, -공동화장실시설확충, -휴게시설 설치
- 탈의장시설 개조, -어장진입로 포장, -선착장 사용편리하게 개조, -그늘막 설치
- 바닷가에서 바로 작업출하 가능시설, -물양장 확장, -자동화·기계화시설도입
- 찜질방 설치, -공중목욕탕 확충 등

- iii) 노동강도가 높지 않고 여성이 적극적으로 참여하여 소득을 올릴 수 있는 유망업종 및 품종 개발로 여성의 어업경영참여 여건이 성숙되어야 함. 여성에 적합한 유망업종으로 설문조사에서 제시된 것으로 수산물가공, 유통 및 어촌관광사업 등이 있음
- iv) 여성어업인의 지위를 향상시키기 위해 여성어업인 교육 및 연수 지원, 여성어업인 조직사업 추진

### ③ 관련 정책홍보사업의 강화

- 현재 해양수산부의 주관으로 어업인후계자 여성우대제도, 수협복수조합원제도 그리고 어가도우미제도 등이 실시되고 있으나, 어촌여성의 대부분은 이러한 제도를 알지 못하고 있으며 이용실적은 거의 전무한 것으로 나타남
- 해양수산부는 어촌여성 관련정책 및 사업에 대하여도 적극적인 홍보를 통하여 정책목표를 달성할 수 있도록 홍보사업을 강화해야 함

## 6. 결론 및 정책건의

### 1) 결론

- 최근 우리나라는 OECD 국가중 가장 낮은 출산율을 보이고 있으며, 이러한 저출산 문제에 국가적 차원에서 적극 대처하여 미래의 노동력 또는 인력확보를 위해 모성보호 또는 모성을 인권적 차원에서 다루고자 하는 여성정책을 추진하고 있음
- 사적인 영역으로 인식되어 오던 출산, 양육과 관계된 가사노동의 재생산노동을 노동권의 문제로 인식하고 특히 기혼여성 노동자 수가 증대하면서 모성보호 문제는 더욱 중요한 문제로 부각되고, 재생산노동을 사회전체가 책임지고 해결해야 하는 문제로 보는 인식이 확산되고 이를 여성정책에 적극 반영하여 추진함
- 세계적 여성정책 동향은 남여가 가정과 직장을 양립할 수 있도록 다양

한 지원제도를 마련하고자 하며 특히 성주류화를 위해 성인지적 기법에 의한 남여의 특성을 각각 고려하는 정책을 수립하여 추진하고자 함

- 이러한 국내의 여성정책 동향은 어촌여성에게도 동일하게 적용되고 있음. 어업노동에서 어촌여성의 참여는 남성에 결코 뒤지지 않으며, 어촌 인구의 감소 및 고령화로 여성의 어업활동에의 참여는 더욱 증가할 것으로 전망됨. 따라서 어촌여성에게 있어 가사노동, 출산 및 육아 등의 재생산노동에 대한 부담을 줄이지 않는다면 어업부문에서 여성의 참여와 역할은 크게 기대할 수 없으며, 이로 인한 어업인력의 확보에 많은 애로가 예상됨
- 본 연구에서는 성인지적 기법과 유사한 방법으로 어촌여성을 대상으로 실시한 설문조사를 통하여 어촌여성의 노동실태를 분석하고, 정책수요를 조사하여 향후 추진해야 할 정책과제를 제안하는 것을 목적으로 함. 본 연구를 통해 어촌여성의 노동실태가 최초로 알려지고 그리고 본 연구의 내용이 어촌여성 관련 정책수립과 추진에 활용도 높은 가치를 가진다는 측면에서 본 연구의 의의가 있다고 할 수 있음
- 본 연구에서 제안한 다음의 정책과제를 향후 해양수산부는 정책적으로 활용하거나 새로운 정책개발을 통해 실현가능하도록 해야 할 것임
  - 어촌여성의 경제활동에 대한 기초조사사업의 실시
  - 여성어업인 육성5개년 계획 수립추진
  - 어촌여성의 의견이 반영된 정책개발 및 추진
  - 수산업분야의 전문여성어업인 육성정책 개발 및 추진
  - 어촌여성 관련 정책에 대한 홍보강화
  - 수산업협동조합의 지도사업에 어촌여성 지원대책 사업포함

## 2) 정책 건의

- 본 연구를 통해 제안된 정책과제가 효율적으로 추진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은 정책 건의를 함



- ‘여성어업인 육성5개년 기본계획’은 여성농업어업인육성법에 의거하여 수립하되 본 연구에서 개발된 설문조사 내용을 수정·보완하면 기본계획 수립을 위한 기초실태조사에 유효하게 활용할 수 있음
- 어촌여성의 가사노동 등을 경감시켜 줄 것으로 전망되는 ‘농림어업인 삶의 질 향상 및 농산어촌지역개발시행계획(2005.6)’이 어촌 및 수산분야에도 철저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해양수산부는 어촌 및 수산분야에 관한 실태파악 및 기초 통계자료를 충분히 확보해 둘 필요가 있음
- 특히 해양수산부는 독자적으로 실시할 수 있는 정책과제인 여성에 적합한 어업노동환경의 개선, 어업관련 교육참여 확대, 노동강도가 높지 않은 유망업종 및 품종개발, 여성관련 정책에 대한 적극적인 홍보 등에 정책개발과 지원방안을 강구해야 하며, 이와 관련하여 본 연구에서 제안된 내용을 적극 수용하여 정책화 할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임
- 그러나 본 연구의 한계는 제안된 정책과제 중에는 바로 정책화 또는 사업화 될 수 있는 것이 있는가 하면 그렇지 않은 정책과제가 있다는 점에 있음. 설문조사대상에서 일부지역이 누락되었고, 표본규모가 작아 전국 어촌여성의 의견을 대표한다고 볼 수 없기 때문임. 따라서 본 연구에서 충분히 제안되지 못한 정책과제 예를 들면 작업여건개선, 복지시설확충, 어업기술증진사업 등에 대한 구체적인 사업화 방안은 향후 정책과제로 남겨둠

# 제1장

## 서론

### 1. 연구의 필요성과 목적

우리나라 여성들의 경제활동참가율은 지속적으로 증가하면서 남성 경제활동 참가율과의 격차가 줄어들고 있다. 이는 출산율의 저하, 국가보육관련 서비스 지원확대, 가전제품의 발달 등으로 여성의 경제활동에 대한 기회비용이 감소하고 여성의 사회진출에 대한 인식개선이나 여성의 고학력화, 자아실현 욕구 증대 등 복합적인 요인이 영향을 준 것으로 볼 수 있다.

국가 전체적으로 남성인력 또는 노동력의 증가율이 둔화되면서 여성노동력의 활용도가 성장잠재력을 결정하는 중요한 변수가 되고 있고, 경제사회의 소프트웨어에 따라 여성노동력의 중요성은 커지고 있다(이정환, 2005).

여성의 경제활동참가율의 증대에 따라 여성노동력의 중요성은 수산업·어촌에 있어서도 마찬가지 현상이라 할 수 있다. 어촌에서 어가여성의 어업활동 참가율 또한 지속적으로 증대하고 있다. 2004년 어가인구 20만 9,855명 중 여성은 10만 4,493명으로 50% 수준이고, 어업부문의 어가여성종사원은 5만 6,004명으로 전체어가여성의 56%에 달한다. 향후 어가인구 감소 추세로 인한 어촌 어가여성의 어업활동 참가율은 더욱 증가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반면 어업활동에 참여하는 어촌 여성의 사회경제적 여건은 더욱 열악해지고 있다. 어촌여성의 급속한 노령화, 비어업부문의 어가여성 종사자 감소로 인한 어가소득 증가추세 둔화, 도시와의 문화적 격차 확대, 유아 및 청소년 교육 여

건 취약, 노후대책 미흡, 가사노동부담 증대, 그리고 육체적으로 힘든 어업작업 등이 대표적 현상이자 어업부문에 여성노동의 적극적인 참여를 제약하는 문제점이기도 하다. 이러한 문제점에 적극 대처하여 어업부문에서 여성노동 및 인력의 활용도를 제고할 필요성이 있다.

최근 여성의 어업활동 참여비중의 증가추세 속에서 더욱 열악해지고 있는 어촌 여성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여성농어업인육성법이 2002년에 제정되었다. 이 법에서는 여성어업인육성계획을 수립하여 여성어업인의 삶의 질과 지위향상을 위한 시책을 전개하도록 하고 있다. 그리고 여성어업인의 경영향상을 위한 사업을 추진하고, 또 여성어업인 관련 시설의 설치와 운영도 지원하도록 하고 있다.

그러나 현재 어촌 여성에 대한 정책은 중장기 기본계획도 수립되지 않은 상태에서 단위사업으로 여성어업인후계자 육성사업이 유일하게 진행되고 있다. 이와는 달리 농업부문에서는 이미 「제1차 여성농업인 육성 5개년 계획」(2001~2005년)을 수립하여 시행하고 있으며, 제2차 계획도 내년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이처럼 농림부에서는 농가여성 및 여성농업인에 대하여 법제정과 동시에 신속하게 ‘여성농업인 육성5개년 계획’을 수립하여 추진하고 있음에 반하여 어촌 또는 여성어업인에 대한 육성계획은 수립조차 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따라서 어촌 및 여성어업인에 대한 실태파악과 함께 이와 관련한 정책마련이 시급하다고 할 수 있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어촌 특히 어가여성의 노동력 구조를 분석하고, 어가 여성의 노동실태를 파악하여 어촌여성의 노동여건을 개선하기 위한 정책과제를 도출하는데 있다. 어촌여성 또는 어가여성의 노동조건 개선은 건강한 어촌·경쟁력 있는 수산을 만들어 나가는 가장 기본적인 정책과제라 판단된다. 특히 이 연구는 「여성어업인 육성 5개년 계획」 수립을 위한 사전연구 성격도 가지는 바, 정책과제 도출을 위한 기초 자료로 활용될 수 있도록 하는 데 기본적인 목적이 있다.

이를 통해 지금까지 수산정책대상에서 중요하게 다루지 않았던 어촌여성 및 여성어업인에 대한 인식을 전환하고 주요 정책대상으로 규정하여 새로운 수산정책을 수립할 수 있도록 기여하는데 궁극적인 목적이 있다.

## 2. 연구의 내용과 방법

### 1) 연구의 주요내용

이상과 같은 연구필요성과 목적에 입각하여 이 연구는 총 6개의 장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각 장별 주요 연구내용은 다음과 같다.

제1장은 서론으로 연구목적과 연구내용, 연구수행방법 등을 밝히고 있다. 제2장에서는 여성노동의 이론과 국내외 여성정책 동향을 분석하여 우리나라 어촌여성정책수립의 이론적 기반이 되도록 하였다. 특히 우리나라 여성정책과 국제 여성정책의 동향을 소개함으로써 우리나라 어촌여성정책의 방향을 설정하는데 도움이 되도록 하였다.

이어 제3장은 국내외 여성정책 사례를 정리하였다. 여기에서는 국내 농업여성인 정책사례와 EU 회원국의 수산업에서 여성의 역할 그리고 일본의 어촌여성정책사례를 중심으로 분석했다. 특히 여성농어업인 육성정책에 의해 추진되고 있는 농업여성인 육성내용을 살펴봄으로써 여성어업인 육성을 위한 세부정책과제 도출에 참고하도록 하였다.

제4장은 어가여성의 노동력 구조와 어촌여성의 노동실태를 분석했다. 여기서는 우선 통계자료를 활용하여 어가여성의 인구학적 특성 및 어가여성의 노동력 구조와 변화를 분석하였다. 그리고 이러한 통계적 분석과 함께 어촌여성의 노동실태를 파악하기 위하여 전국 어촌의 450가구를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통해 어가의 특성, 어업노동실태, 가사노동과 생활만족도, 복지 및 생활문화

실태, 정책 수요 등이 분석되어 있다.

제5장은 앞에서 분석된 여성어업인의 노동실태와 정책수요를 바탕으로 어촌 여성의 노동여건 개선을 위한 정책과제를 제시했다. 어촌 여성경제활동 실태 분석을 위한 조사사업, 어촌여성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여성어업인 육성계획 수립, 어촌여성의 정책 수요 우선사업 추진, 전문여성어업인 육성정책 개발 및 추진, 어촌여성관련 정책홍보 사업 추진, 수산업협동조합의 어촌여성대책 마련 등이 주요 골자이다.

끝으로 제6장은 본 연구의 결론으로 연구내용을 요약하고, 정책과제의 효과적 추진을 위한 몇 가지 정책건의를 하였다.

## 2) 연구수행방법

이 연구에서 대상으로 하는 어촌여성은 구체적으로 어가여성을 의미하며 이 연구의 목적인 어촌여성의 노동실태를 분석하고 여건을 개선하는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다음과 같은 방법을 활용했다.

첫째, 사회과학연구의 출발점인 선행연구 등 문헌분석(literature review)이다. 문헌분석은 주로 여성노동에 대한 이론적 고찰과 국내외 여성정책 동향 파악을 위해 주로 활용하였다. 특히 국내 여성정책 내용을 파악하기 위해 어업부문보다 출발이 빠른 농업분야의 연구보고서<sup>1)</sup>를 최대한 참고하였다.

둘째, 사례분석(case study)이다. 어촌여성에 대한 정책개발을 위해 우리나라 여성농업인에 대한 정책내용을 살펴보고, EU 회원국의 수산업에서 여성의 역할 그리고 일본의 여성어업인에 대한 정책을 사례로 분석하였다.

셋째, 어가여성의 노동실태 파악을 위해 실시한 설문조사는 본 연구의 중요한 연구방법이다. 설문조사는 전국의 어가 중 층화임의추출법으로 선정한 450

1) 농촌경제연구원, 「농촌여성의 의식변화와 역할에 관한 연구」, 1992. ; 농촌경제연구원, 「농가여성의 노동력 구조와 경제활동 실태」, 1997. ; 한국여성개발원, 「여성농업인 육성 5개년 계획시안」, 2000. ; 한국여성개발원, 「여성농업인 실태조사」, 2003. ; 한국여성개발원, 「여성농업인 육성 5개년 계획 중간평가」, 2005.

개 표본어가를 대상으로 분석하였다. 설문조사는 면접원의 직접 방문에 의한 1 : 1 개별면접(Face to face Personal Interview) 방식으로 진행했고, 구조화된 설문지(Structured Questionnaire)를 활용했다. 본 연구에서 설문조사는 어촌여성의 노동실태를 파악하는 데 상당히 매우 유익했다.

넷째, 통계자료 분석이다. 어촌의 일반적인 특성을 분석하고 어촌 여성의 노동력 구조를 1차적으로 파악하기 위해 어업총조사보고서, 어업기본통계, 어가경제 등의 통계자료를 활용했다.

## 제2장

### 국내외 여성정책 동향

#### 1. 여성노동의 이론적 검토

여성노동에 대한 이론은 크게 두 가지 접근으로 분류된다. 첫째는 노동시장 안에서 수요와 공급의 측면을 강조하는 개인적인 접근으로 주로 주류 경제학에서 사용되고 있으며 노동시장에서 여성의 위치를 개인의 선택에 의한 것으로 보는 입장이다. 여기에는 인적자본론, 차별이론, 혼잡가설 등이 포함된다. 두 번째는 노동시장에서 개인의 선호를 사회구조적 요인에 의해 영향 받는 것으로 보는 접근이다. 이 입장에는 이중노동시장론과 페미니즘 이론 등이 있다.

##### 1) 인적 자본론

이 이론에 의하면 성별 노동조건의 격차가 발생하는 원인은 남녀 노동자가 지닌 생산성의 차이에 있으며 이러한 생산성의 차이는 노동자 개인이 지닌 인적 자본량에 의해 결정된다고 간주한다. 현재까지 수행된 여성노동관련 연구들 중 대다수가 이 시각에 기초하여 있으며 이 분야에서 가장 큰 영향력을 지닌 이론으로 알려져 있다(강이수·신경아, 2001).

먼저 이 이론은 노동시장이 완전 경쟁시장으로서 임금은 순수하게 노동시장에서의 수요와 공급, 노동자가 지닌 인적 자본의 가치에 의해 결정된다고 가정한다. 따라서 이 이론은 여성의 저임금을 여성이 지닌 인적 자본량의 부족으로

설명한다. 그렇다면 여성의 경우 왜 인적 자본량이 적은가? 여기에는 세 가지 가설이 논의되고 있다(금재호, 2001).

첫 번째 가설은 성별 선호도의 차이이다. 이 가설에 따르면 여성과 남성은 서로 다른 직업 선호체계를 가지고 있으며 그 결과 경제활동참가율, 직종, 임금 등에서 격차가 발생하다는 것이다. 예를 들면, 가사노동의 책임을 지고 있는 여성은 시간제 직업을 선호하는 반면, 가족부양의 책임을 지고 있는 남성은 전일제 직업을 선호하기 때문에 임금의 격차가 생긴다는 것이다. 두 번째 가설은 성별 비교우위의 차이이다. 이 가설에 의하면 여성은 가사노동과 자녀양육에, 남성은 육체적 노동에 비교우위가 있으며 이에 따라 자연스럽게 역할분담이 이루어진다고 본다. 그러나 출산율의 저하와 산업구조의 변화로 인한 여성 친화적 직업의 대두로 여성의 경제활동이 확대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세 번째 가설은 인적자본투자의 차이이다. 이 가설은 예상취업기간이 짧은 노동자일수록 인적 자본투자의 기대수익률이 낮아진다는 점에서 출발하고 있는데 출산과 양육에 의해 노동시장에서 활동기간이 짧을 것으로 예상되는 여성의 경우 인적자본투자도 낮아지게 되고 결국 성별 격차가 생기게 된다는 것이다.

이러한 가설들은 서로 밀접하게 연관되어 있으며 그 근저에는 전통적인 성체계가 자리 잡고 있다. 개인들은 인적 자본투자에 의해 기대되는 비용과 이익을 계산하여 자신의 교육기간과 수준을 결정하는데 여기서 중요한 요인으로 작용하는 것이 자신의 노동에 대한 기대이다. 즉, 개인은 자신이 노동시장에서 어떤 일을 하며 얼마나 오랫동안 머무를 것인가 하는 기대치에 따라 교육 투자량을 고려하게 되는 것이다. 인적 자본론은 바로 이 점에서 여성과 남성의 인적 자본투자가 달라진다고 본다(강이수·신경아, 2001). 여성은 가사노동과 자녀 출산 및 양육으로 인해 지속적인 노동시장에의 참여가 어렵기 때문에 부모나 여성 스스로 교육과 훈련에 대한 투자를 꺼리게 된다는 것이다. 또 교육과 훈련의 효과가 남녀에게 다르게 나타나는 노동시장 구조 역시 여성의 인적 자본투자량을 제한하는 원인이 된다. 사회적으로 높은 지위와 보상을 제공하는 직업은 남성에게, 그렇지 못한 직업은 여성에게 주어지는 성별에 따른 직업



분리가 광범위하게 존재하는 한, 여성은 실제 교육에 대한 투자 수익이 낮게 나타나므로 인적 자본 투자에 소극적이게 된다는 것이다.

인적 자본량으로 노동시장 내 여성의 낮은 지위를 설명하는 인적 자본론은 다음과 같은 세 가지 점에서 문제가 되고 있다(강이수·신경아, 2001). 첫째, 교육과 훈련이 생산성 향상에 기여한다는 인적 자본론의 가정은 증거가 불충분하다. 성별 학력별 임금격차에 관한 연구에 의하면 인적 자본의 차이로 설명될 수 없는 부분이 상당 부분 존재한다는 사실을 들어 노동자의 인적 자본과 생산성은 직접적인 관계가 아닐 수도 있다는 주장도 제기되고 있다. 둘째, 실제 노동시장은 성, 학력, 인종 등의 다양한 요인에 의해 분리되어 있기 때문에 개개 노동자들이 자유롭게 경쟁하고 생산성에 부합하는 임금을 받는다는 인적 자본론의 합리성 가정에는 한계가 있다. 예를 들어, 성별 직무분리의 원리에 의하면 여성과 남성의 일을 성체계로 분리하여 수행하도록 하기 때문에 노동자 간의 자유로운 경쟁을 불가능하게 한다. 또한 노동자의 능력과는 별도로 비합리적 요인들이 개입되어 노동자 간 단순한 차이를 차별로 합리화하는 결과를 낳고 있다. 셋째, 인적 자본론은 전통적인 성역할을 성차별적 조건의 전제로 가정한다. 이 이론은 전통적 성역할 이념을 그대로 수용함으로써 노동시장에서 나타나는 성차별을 당연한 것으로 생각하게 한다. 따라서 인적 자본론은 사회 저변에 깔려 있는 성차별을 무시한 채 노동시장 안에서의 형식적인 자유경쟁과 공정성에만 초점을 두는 이론으로 여성의 인적 자본투자를 제한하는 구조적 요인들을 간과하고 노동시장에서의 성불평등을 정당화하는 결과를 가져올 수 있다.

## 2) 차별이론

차별이론은 신고전주의 경제학에 근거를 두고 있지만 여성에 대한 차별을 인정하고 이를 규명하려는 이론으로 통계적 차별이론과 차별적 기호이론으로 구분된다.

우선 통계적 차별이론은 노동시장 내 여성의 낮은 지위를 노동시장의 불완전한 정보에 의해 발생하는 차별로 설명한다. 기업 측에서는 채용비용을 줄이려는 목적에서 일정 수준 이상의 학력과 연령 등을 입사지원자격으로 제시하는 경우가 생긴다. 즉, 노동자의 잠재적 생산성은 쉽게 파악될 수 없기 때문에 이에 대한 평가도구로 학력이나 연령 등의 개인적 특성을 중요한 채용기준으로 제시하는 경우가 허다한데 이를 통계적 차별이라 한다. 성별이나 장애 등의 개인적인 요인은 개개인이 속한 집단에 대한 편견을 유발하는 기준이 되기도 한다. 기업에서 노동자를 채용할 때 그 사람의 생산성을 정확히 파악하는 것이 어렵기 때문에 고용주는 생산성과 직접적인 관련이 있다고 생각하는 각종 지표, 즉 성, 연령, 학력, 경력 등을 가지고 그 사람을 평가하게 되며 이 과정에서 소위 통계적 차별이 발생한다는 것이다(강동욱, 2002).

고용주들은 종래의 성역할 고정관념에 따라 대체비용이나 훈련비용이 많이 드는 직무에는 이직 가능성이 높은 여성들을 배치하지 않는 것이 합리적이라고 생각하는 경향이 있다. 따라서 여성의 채용을 기피하거나 하위직에 한정시키는 관행이 나타난다. 이는 여성의 경우 출산과 양육으로 인해 노동공급이 불연속적으로 될 가능성이 크므로 훈련의 효과가 적다고 여기기 때문이다. 통계적 차별 이론은 여성에 대한 차별이 단순히 고용주가 지닌 편견이나 사회적 관행 때문이 아니라 비용절감이라는 일종의 논리적인 가정 하에 이루어진다는 점을 밝히고 있다.

그러나 통계적 차별이론은 여성들의 이직률이 높게 나타나는 궁극적인 이유를 제대로 설명하지 못한다는 점에서 한계를 보인다(강이수·신경아, 2001). 집단적 특성을 기준으로 할 경우 집단 내 개개인의 특성이나 능력을 간과하기 쉽게 된다. 즉, 집단의 구성이 이질적이고 집단 내 구성원들의 차이가 클수록 이 같은 평가방식은 더 큰 오류를 낳게 된다. 또 선행연구에 의하면, 임금이 낮고 승진기회가 적으며 근속에 대한 보상이 없고 반복적인 업무를 수행하는 직무들에서는 성별에 관계없이 이직률이 높게 나타났다고 한다. 이것은 직무의 성격 자체가 불안정하여 노동자들의 이직이 조장되는 것이지 특정 집단의

속성 때문은 아니라는 것이다. 따라서 일반적으로 여성의 이직률이 남성보다 높은 것은 여성집단의 속성이 아니라 여성들이 이러한 유형의 직무들에 집중적으로 고용되어 있기 때문이다.

차별적 기호이론에 의하면 노동시장의 성차별은 개인적 편견 또는 기호에 의해 발생하는 것으로 보는데 여기에는 고용주에 의한 차별, 동료 종업원에 의한 차별, 그리고 소비자에 의한 차별로 분류된다(강이수·신경아, 2001). 우선 고용주에 의한 성차별은 고용주의 개인적 편견에 의해서 특정 노동력, 즉, 여성의 고용을 싫어하게 될 때 발생한다. 또한 남성 노동자가 여성 상사 밑에서 일하기를 꺼려하기 때문에 여성이 고위직에 가지 못한다면 이는 동료종업원에 의한 차별이 되는 것이다. 성별과 관련해서 소비자에 의한 차별은 비교적 미미하다고 볼 수 있다. 이 이론은 현재 노동시장에서 존재하는 여성의 낮은 취업률과 낮은 임금수준을 개인적인 차원에서 설명하고 있다(금재호, 2001).

그러나 성차별을 하는 기업과 그렇지 않은 기업이 공존하는 경우, 어떤 기업은 무슨 이유로 차별을 하지 않는지, 그리고 어떤 기업은 무슨 이유로 이윤극대화를 포기하면서까지 차별을 하는지 등이 단순히 개인적 편견으로 설명될 수 있는지에 대한 의문이 존재한다(김재원, 1998).

### 3) 혼잡가설

혼잡가설은 여성이 특정 직종에 몰리기 때문에 임금이 낮아진다는 가설이다. 즉 여성이 전문직이나 고임금직종에서 배제되면 여타 직종에 여성이 몰리게 되고 이들 여타 직종에 여성노동의 공급이 많아지게 되면 수요공급 곡선에 따라 이 직종의 임금수준이 낮아지게 된다는 것이다. 이 가설은 여성들 스스로 ‘여성적인 직업’을 선택하기 때문에 노동시장에서 낮은 지위를 갖게 된다고 설명한다. 다시 말해, 여성들은 가사노동과 자녀양육 때문에 가정생활과 양립할 수 있는 몇몇 직업들을 선택하며 그 결과 소수의 직업에 다수의 여성들이 몰리는 현상이 발생함으로써 여성의 임금수준이 낮아지게 된다는 것이다(강이

수·신경아, 2001).

그러나 이렇게 특정 직종에 여성이 많이 몰리는 이유는 전문직이나 고임금 직종에 여성의 진입이 어렵다는 점을 들 수 있을 것이다. 현재 노동시장에서 여성의 저임금은 여성들로 하여금 훈련이나 교육의 기대수익률에 대한 기대치를 낮추게 되고 그 결과 훈련이나 교육의 기회를 제한하여 저임직종에 몰리게 되는 것이다(김재원, 1998). 또한 여성이 집중된 직업들이 가사부담과 양립하기 좋은 조건을 제공하는가에 대해서도 회의적이다. 여성들이 노동시장에서 불평등한 대우를 받는 것을 여성들의 ‘합리적 선택’의 결과로만 설명하는 데에는 한계가 있다. 따라서 혼잡가설은 비서직, 간호사, 판매직 등 일부 직종에 여성이 몰리어 이들 직종의 임금이 낮다는 것은 잘 설명하고 있으나 그 이론적 근거는 미흡하다.

이렇게 노동시장에서 여성의 낮은 위치를 개인적인 접근으로 설명하는 방식은 분석 단위를 개인, 특히 노동력을 공급하는 여성 개인으로 설정함으로써 노동시장에서의 성 불평등에 대한 원인을 여성에게 전가시킬 위험을 갖는다. 이러한 개인적 접근은 노동력 공급자인 개인들이 처한 구조적 조건을 간과하는 문제점을 가지고 있다.

#### 4) 이중노동시장이론

이중노동시장론은 노동시장이 1차 및 2차 노동시장으로 이중화되어 있다고 본다. 각각의 노동시장은 서로 다른 특성을 지닌 직업들로 이루어져 있고 서로 다른 원리에 의해 움직인다. 1차 노동시장은 고용안정성, 높은 임금, 승진, 직업훈련 등을 보장받는 직업들로 구성되며 대부분의 전문직과 대기업의 사무직이 여기에 속한다. 이 직종에 있어서 배치, 임금, 승진 등은 외부 시장과 격리된 내부 노동시장의 원리에 의해 결정되며 일정 수준의 전문적인 지식과 자율성, 안정성의 특성을 지닌다. 반면에 2차 노동시장은 고용이 불안정하고 임시적이며 저임금에 낮은 수준의 기술을 요하며, 승진기회가 없거나 극히 적고,

훈련기회도 거의 없는 직업들로 구성되어 있다. 이 직종에는 시간제 판매원, 임시직, 중소기업의 계약직이나 별정직 등이 속하고 있으며 대부분 여성으로 구성되어 있다(강이수·신경아, 2001).

이중노동시장론은 노동시장에서 여성의 불평등한 위치를 개인적 요인이 아닌 노동시장의 구조적 요인으로 설명한다는 점에서 개인적인 접근보다는 설명력이 높은 이론이라고 볼 수 있다. 또 개인적 접근에서 제시하고 있는 동등한 고용기회의 가능성이 현실적으로 성립할 수 없다는 점을 들어 노동시장의 구조적 불평등성을 지적했다는 점에서도 높은 평가를 받는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이 이론은 왜 여성이 주로 2차 노동시장의 구성원이 되고 있는지에 관하여 설득력 있게 설명하지 못하고 있다. 또한 실증적 연구에 의하면 1차 노동시장에 진입한 여성들도 1차 시장에서 누릴 수 있는 여러 가지 특혜에서 제외되고 있다는 것이다. 즉, 여성의 경우 같은 노동시장 내의 남성과 비교해볼 때 보수가 낮고 승진기회가 없는, 소위 막다른 여성직업에 집중적으로 배치됨으로써 같은 수준의 남성보다 임금 및 근로조건에서 불리하다는 점이 나타나고 있어서 이론적 한계를 보인다(김재원, 1998).

## 5) 페미니즘 이론

페미니즘 이론은 가부장적 지배구조가 사회 전반에 존재하여 여성의 삶에 영향을 주고 있다는 가정에서 비롯된다. 특히 노동시장에서 여성이 차지하는 열등한 위치는 크게 마르크스주의 페미니즘과 사회주의 페미니즘으로 설명되고 있다(강이수·신경아, 2001)

여성노동문제에 대한 초기 연구는 주로 마르크스주의적 분석틀에 입각하여 여성노동자의 현실을 분석하려는 데 중점을 두었다. 이 연구에 의하면 불평등한 계급관계를 토대로 한 자본주의적 사회구조가 여성의 종속성을 설명하는데 일차적인 요인이라는 문제의식에서 출발한다. 노동가치론과 자본 대 노동의 계급 체계에 대한 논의 속에서 여성이 노동자로서 지니는 지위를 설명하려

는 접근이다. 이 이론에 따르면 임금노동자로 일하는 여성은 남성과 마찬가지로 잉여 가치의 생산자이지만 남성에 비해 초과 착취되는 존재이다. 즉 여성은 값싼 노동력으로서 저임금 직종에 집중되거나 산업예비군으로 활용된다는 것이다.

산업예비군이란 노동시장의 필요에 따라 유입되거나 방출될 수 있는 예비노동력으로, 일반적으로 호황기에 노동시장에 들어와 불황기에 퇴출되는 속성을 가진다. 이처럼 수적 측면에서 노동력의 공급을 원활하게 할 뿐 아니라 이미 노동시장에 취업하고 있는 노동자들과 언제라도 경쟁할 수 있다는 측면에서 산업예비군은 전체 노동자의 노동조건을 떨어뜨리는 데 영향을 미치는 존재이다. 그 결과 산업예비군은 직업의 상실이라는 위협을 통해 취업자들의 임금을 낮게 유지시켜 자본가에게 생산과 노동을 통제할 수 있는 힘을 제공하는 기능을 한다. 여성은 역사적으로 산업예비군으로 활용되어 온 대표적인 집단이다. 여성은 전통적으로 저임금 노동자로 존재해왔고 가정주부로서 노동시장의 필요에 따라 움직일 수 있는 ‘숨어 있는’ 노동력으로 기능해왔다.

마르크스주의적 접근에서는 노동시장의 분절에 대해서도 자본주의적 차별구조로 설명한다. 자본주의의 발전단계에서 자본은 최대한의 이윤을 확보하기 위해 직무 구조를 계층화하고, 노동력의 자연적·사회적 차이를 기초로 노동자 집단을 이질화함으로써 분할 지배를 꾀한다. 이러한 분할 지배의 결과가 노동시장의 분절이다. 이러한 분절은 자본이 노동자를 통제하는 데 대단히 효과적이다. 인종이나 성, 연령 등 다양한 요인을 토대로 노동자 집단을 구분한 후 서로 경쟁하게 만듦으로써 노동자 계급이 단결하고 연대하는 것을 막을 수 있기 때문이다. 여기서 성(性)은 노동력의 자연적 차이의 하나로서 노동시장을 분절화하는 가장 중요한 차별 기준으로 활용된다는 것이다(강이수·신경아, 2001; 142~143).

한편 사회주의 페미니즘은 여성 문제를 자본주의와 가부장제라는 별개의 두 구조가 상호 작용하여 초래한 모순으로 설명한다. 마르크스주의 페미니스트들이 여성 문제의 원인을 주로 계급 관계에서 찾는 데 비해, 사회주의 페미니스

트들은 자본주의적 구조 이외에 가부장제라는 독립된 억압 구조가 있고 이것이 여성의 현실을 설명하는 데 보다 중요한 요인이 된다고 본다.

대표적인 이론가 하트만(H. Hartmann)은 가부장제를 ‘여성 노동력에 대한 남성의 통제’로 정의한다. 이를 좀더 자세히 보면, 가부장제란 여성 노동력에 대한 통제를 통해서 물질적 기초를 확보하며 이것을 사회 전 영역으로 확대시킴으로써 여성에 대한 남성의 지배를 유지하는 제도이다. 여성 노동력에 대한 통제는 가정에서의 가사 노동과 사회에서의 생산 노동, 양 측면에서 모두 존재한다. 여성의 가사 노동은 가정 안에서 남성 노동자에게 무급(無給)으로 주어지고, 자본이 부담해야 할 노동력 재생산 비용을 지불하지 않게 함으로써 결과적으로 자본가 계급에게도 이익을 준다. 따라서 가사 노동의 부담으로 인해 여성은 사회적 영역에서 직업을 갖더라도 남성에 비해 열등한 노동력으로 간주된다. 이러한 가부장제와 자본주의의 결합은 여성이 경제적인 자원에 접근하는 것을 막고, 여성의 성(sexuality)을 통제하는 결과를 가져왔다. 18세기 영국에서 노동자 계급 남성이 노동조합에서 여성을 배제하고 가족 임금과 보호입법을 통해 여성을 가정으로 돌려보내려고 했던 사실을 지적하면서 하트만은 노동조합 역시 가부장적 성격을 지니고 있다고 비판한다.

하트만은 가부장제와 자본주의 노동시장에서 작용하고 있는 대표적인 현상의 하나가 성별 직업(직무) 분리라고 본다. 이것은 자본주의 사회에서 여성에 대한 남성의 우위를 유지하는 1차적 기제이다. 이러한 성별 직업(직무) 분리로 인해 노동시장에서 여성은 낮은 임금을 받게 되며 결과적으로 미혼 여성은 결혼을 통해 남성에게 의존하라는 압력을, 기혼 여성은 가사 노동을 전담하라는 압력을 받게 되는 것이다. 여성들은 임금이 낮기 때문에 결혼을 선호하며 남성에게 의존하게 되고, 기혼 여성들은 남편들을 위해 가사 노동을 하는 것을 당연시하는 것이다. 이 같은 성별 직업(직무) 분리 구조에서 남성들은 임금 노동과 가사 노동 모두에서 이익을 얻게 된다. 하트만은 바로 이와 같은 가부장적 구조에 의한 성별 직업(직무) 분리와 가사 노동 전담이 여성의 노동시장 지위를 낮게 만드는 근본적 요인이라고 지적한다.

이러한 성별 직업(직무) 분리는 노동시장에서 지속적으로 이루어진 탈숙련화가 가부장적 구조와 맞물리면서 나타난 현상이다. 탈숙련화란 새로운 기계와 기술의 도입으로 노동자에게 체화된 기술과 지식이 기계로 이전되면서 노동자의 기술력이 저하되는 현상을 말한다. 이러한 탈숙련화 과정에서 여성은 저숙련 노동력으로서 남성을 대체한다. 대표적인 예가 사무직 노동의 탈숙련화에 따른 여성 사무직 노동자의 증가 현상이다.

마찬가지로 노동시장의 분절에 대해서도 사회주의 페미니즘은 여성이 열등한 노동자인 것이 아니라 2차 노동시장에 유입되기 때문에 2차적 노동자가 된다고 설명한다. 양육과 가사 노동의 책임으로 인해 여성은 2차 노동시장으로 몰리기 쉽다. 2차 노동시장에서는 승진이나 훈련의 기회가 없으므로 근속에 대한 수익률이 낮아지고, 고용 안정성이 결여되어 실업률이 높아진다. 결과적으로 여성은 2차 노동시장에 들어감으로써 2차적 노동자의 특성을 갖게 되고 임금이나 노동 조건의 면에서 남성과의 격차가 커지는 것을 감수해야 한다는 것이다(강이수·신경아 2001; 144~145).

## 2. 국제 여성정책 및 여성고용 정책의 동향

### 1) 국제여성정책의 동향

유엔이 추구하는 여성정책의 개념은 사회, 정치, 문화, 교육, 고용, 보건 금융과 사회보장, 법률 등에 있어서 남녀평등의 실현을 위한 적극적인 조치를 제시하는 포괄적인 것으로 인권문제까지 포함하고 있다. 국제적인 여성정책의 흐름은 1975년에 멕시코에서 열린 제1차 세계여성회의를 기점으로 열렸던 네 번의 세계여성회의에서 결정된 사안에 따라 크게 세 가지 전략으로 구분되어 나타나고 있다(김애령, 1999).



### (1) 여성개발론(Women in Development: WID)의 전략

유엔은 1975년을 '세계여성의 해'로 정하여 여성발전 프로젝트를 시작했는데 여성의 지위향상을 위해 채택한 최초의 전략은 여성개발론(WID)으로서 1980년대 많은 국가의 여성정책에 기본적인 토대가 되었다. WID 전략은 자유주의 페미니즘에 이론적 근거를 둔 것으로 여성이 사회발전의 주요 행위자임에도 불구하고 발전과정에서 소외되어 왔다는 점을 인식하여 발전과정에서 여성을 위한 정책이행을 강조하고 있다.

WID 전략의 일차적 목표는 여성의 지위향상을 위해 자원을 활용하고 여성의 기여를 가시화하는 것이었다. 이에 따른 정책조치는 개발의 기여자이자 수혜자로서 여성을 간주하고 훈련, 대부, 고용에서 여성의 접근성을 향상시키는데 집중되었다(정순영 외, 2002). 여성에게 유급노동의 기회를 증진시키려는 WID 전략은 '유휴자원'으로서 여성을 인식한 점과 국가의 경제성장에 있어서 여성의 기여도를 인식한 점에서 많은 국가의 환영을 받았다. 국가는 여성이 유급노동을 할 수 있도록 직업교육의 기회를 제공했고 건강관리 및 사회보장정책 등을 통해 일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했는데 이는 여성들에게도 일정 부분 긍정적인 영향을 주었다(조형 외, 2003).

그러나 WID 전략은 1980년대에 특히 제3세계 국가에 의해 주로 비판되었다. 대부분의 제3세계 국가의 여성관련 발전기구들은 국제적인 요구에 의해 만들어진 것으로 정치성이 농후했고 예산과 인력에서 취약한 상태에 있었기 때문에 주변화되는 경향이었으며(최현실, 2005) 여성문제를 특수집단의 문제로 간주함으로써 국가의 발전과정에서 주변화시키는 작용을 했던 것이다. WID 관점은 여성과 남성간의 불평등한 성별관계를 개선하기보다는 전통적인 성역할을 수용하고 이를 통해 효율적인 성과를 이루려는 전략이었기 때문에 근본적인 성역할 분업구조의 재편에는 중점을 두지 않았다.

이와 같이 WID 전략은 여성들의 삶이 남성과의 관계에서 형성됨에도 불구하고 여성에게만 초점을 두어 성별의 불평등한 권력관계가 사회의 공적 사적 영역에서 어떻게 작용하고 있는지에 대한 분석을 간과한 점, 그리고 여성의 빈

곤만을 강조함으로써 남성중심적인 사회구조를 간과한 점에서 한계를 지니고 있다(김양희, 2001). 즉, WID 전략은 결과적으로 젠더관계에 대한 이해부족으로 남녀간의 격차를 줄이지 못하고 발전의 주류와 분리되게 하여 사회발전의 과정에서 남성은 능동적인 행위자로, 반면에 여성은 소극적인 수혜자로 남게 만든 것이다.

## (2) 성별개발론(Gender and Development: GAD)의 전략

앞서 제시한 WID 전략의 문제가 제기되자 이를 계획했던 UN, 세계은행, 국제비정부기구의 관련 연구자와 활동가들은 1985년 케냐의 나이로비에서 열렸던 제3차 세계여성대회에서 그간의 여성개발 전략을 평가하면서 성별간 불평등한 권력관계를 고려하는 GAD 전략의 분석틀을 발전시켰다. WID 전략이 여성에게만 초점을 두고 있다면 GAD 전략은 성별 관계에 초점을 두고 정책의 전 과정에 있어서 성관점을 통합하도록 강조한 것이다.

GAD 전략은 여성의 불평등한 지위의 근원이 국가의 발전과정에서 빚어지는 여성의 소외나 비가시성에 있는 것이 아니라 사회에 만연해 있는 남성우월주의와 더불어 남성주도의 권력분배와 통제방식에 있다는 점에 착안하고 있다. GAD 전략에서는 여성과 남성의 삶이 그 자체로 차이가 있으므로 성별로 동등한 기회를 주는 정책이 실은 남녀에게 전혀 다른 결과를 초래하여 불평등을 심화시킬 수 있다는 것을 강조하고 있다. 따라서 GAD 전략에서는 성별 차이를 적극적으로 반영하는 성관점의 도입을 우선적으로 고려하고 있으며 생산활동뿐만 아니라 재생산활동을 포함하는 총체적인 영역에서 여성과 남성의 동등한 참여를 통한 발전을 모색하고자 하였다(김경희, 2002).

따라서 GAD 전략은 여성정책의 계획과 집행과정에 있어서 남성과는 다른 여성의 삶의 경험과 역할에 기초하도록 강조한다. 다시 말해, GAD 전략에 기반을 둔 정책은 여성들의 다른 경험과 이로 인한 차별적인 상황을 반영할 수 있도록 여성이 안고 있는 이중부담을 반드시 고려하는 것을 골자로 하고 있다. GAD 전략에 입각한 정책의 특징은 남성과의 관계지향성에 있으며 모든 발전

정책이나 프로그램에 성별 관점을 통합하는 데 주력한다. 이러한 GAD 전략은 국가의 역할에 상당한 비중을 두고 있으며 이를 통해 여성의 지위향상을 위한 전략적 이해를 증진시키고자 하였다. 더불어 여성의 세력화를 도모하며 불평등한 권력관계를 양성평등한 관계로 변화시키는데 주안점을 두고 있다(김혜정, 2005).

### (3) 성주류화(Gender Mainstreaming) 전략

1995년 베이징에서 열렸던 제4차 세계여성대회에서는 남녀평등이라는 궁극적인 목표를 성취하기 위한 전략으로 성주류화 개념을 공식적으로 채택하였다. 베이징 행동강령에 의하면 성주류화는 "성(gender) 이슈를 공공기관의 모든 의사결정과 정책실행에 고려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다. 유엔경제사회이사회(ECOSOC)의 정의에 의하면 성주류화는 "모든 정치적, 경제적, 사회적 영역의 정책과 프로그램에 대한 계획, 실행, 모니터, 평가에서 여성과 남성의 관심과 경험을 통합함으로써 여성과 남성이 동등하게 혜택받고 불평등이 조장되지 않도록 하기 위한 전략"이며 궁극적으로 성평등을 이루는 것이다. 따라서 성주류화 전략은 남녀가 사회의 각 분야에서 동등하게 참여할 수 있도록 조직의 재구조화, 인력과 재정의 재분배, 제도와 사회문화 전반의 변화를 요구한다(강남식, 2001).

이러한 차원에서 볼 때 성주류화 전략은 기존의 여성에 대한 적극적 우대조치와는 다른 의미를 지닌다. 성주류화 전략은 여성만을 특별하게 취급하고 있는 상황에서 더 나아가 여성과 남성의 차이, 여성들간의 차이, 남성들간의 차이를 구체적으로 고려하고자 노력하고 있다. 성주류화는 그 자체가 목표가 아니라 양성평등이라는 궁극적인 목표를 달성하는 데 필요한 전략으로 인식되고 있다.

성 인지적(gender sensitive) 기법은 성별 차이의 사회경제적 영향을 정책과정에 고려하는 것으로 성주류화를 이룩하기 위한 구체적인 방법이다. 성 인지적 기법은 성별 불평등이 개인의 문제가 아닌 사회구조적 문제로 보고 전반적

인 성별 구조의 변화를 유도하는 것이다. 따라서 성 인지적 기법에 의거한 정책은 남성과 여성의 특성과 차이를 반영하여 정책의 효과가 궁극적으로 양성 간에 평등을 달성하는 데 기여하게 된다. 김경희(2003)는 성 인지적 기법이 가치적 측면에서는 인간은 누구나 동등하게 대우받아야 한다는 보편적이고 기본적인 법적 가치를 반영하는 것이며 제도적·관리적 측면에서는 성 관점을 정책 과정에 도입하고 통합함으로써 주류의 변화를 가져오는 것이라고 주장하였다.

## 2) 국제 여성고용정책의 동향

여성고용정책은 보다 많은 여성들이 경제활동에 참여하고 평등한 대우를 받게 하는 정부의 법률, 기구, 제도, 시책 등을 포함하는 것으로 정의되고 있다(한국여성개발원, 2000). 여성고용정책은 각 국가의 여건이나, 환경, 사회문화적 배경에 따라 다양하게 나타나고 있으나 정도만 차이가 날 뿐 성 불평등은 어디서나 존재하고 있으므로 일반적인 경향성은 보인다. 여기서는 고용상 불평등을 시정하기 위해 UN과 EU, OECD에서 제시한 지침을 중심으로 살펴보기로 한다(박숙자, 2001).

### (1) UN의 여성고용정책

UN이 1975년을 '세계여성의 해'로 정한 이후 1979년 제34차 총회에서는 절대다수의 찬성으로 '모든 형태의 여성에 대한 차별철폐협약 : 유엔여성차별철폐협약'이 채택되었다. 이 협약은 '세계여성의 인권카타로그'라는 별칭이 붙을 정도로 포괄적인 규정을 담고 있는데 이 중에서 제11조는 고용상의 여성차별을 철폐하기 위해 협약국이 취해야 할 사항을 제시하고 있다.

제11조에서 제시하고 있는 내용은 크게 세 가지로 구분되어 있는데 첫 번째는 여성은 남성과 마찬가지로 동일한 대우를 받으며 근로할 권리를 가지고 있으므로 국가는 이를 보장하는 적절한 조치를 취해야 하며, 둘째는 여성의 고용

기능인 출산과 양육에 의해 차별받지 않도록 사회보장제도를 도입해야 하고, 셋째로 이와 관련된 입법을 정기적으로 검토할 것으로 나타나 있다.

이 협약의 가입국은 제18조 규정에 따라 4년마다 이행보고서를 제출하고 여성차별철폐위원회의 심의를 의무적으로 받도록 하여 그 실효성을 높이고 있는데 우리나라는 1985년 협약당사국이 된 이래 총 5차례에 걸쳐 보고서를 제출하였으며 모범 사례국으로 선정되기도 하였다.

## (2) EC(EU)의 여성고용정책

EC(European Community)는 1958년 로마조약에 의해 프랑스, 서독, 이탈리아, 베네룩스 3국 등 6개국이 모여 '가맹국간의 생활 및 고용조건의 지속적인 개선'을 목적으로 출발했으며, 1993년에 EU(European Union)로 확대되어 현재는 25개의 주요 유럽국가를 포함하는 국가연합체가 되어 활동하고 있다. EC(EU)는 1980년대와 1990년대에 걸쳐 그동안 정비한 EC(EU) 법상의 남녀평등원칙을 실현하기 위해 4단계의 행동계획을 채택하여 가맹국이 적극적인 남녀평등 정책을 추진하도록 촉구하고 있다(신용자·김영신, 2000).

### 가. 제1차 행동계획(1982~1985년)

성 평등을 실현하기 위해 개인의 권리와 평등실천을 위한 16가지 방법을 제시하고 있는데 특히 고용상의 남녀 평등대우와 기회균등을 위해 적극적 조치(Positive Action)를 채택하는 방법을 제시하였다.

### 나. 제2차 행동계획(1986~1990년)

제1차 행동계획을 보강하여 경제, 사회, 문화의 모든 분야에서 기회평등과 기술 및 사회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적극적 조치를 강화시키고 가맹국 시민단체 간 네트워크를 형성하여 EC 위원회가 재정을 지원하였다. 특

히 2차 행동계획에서는 적극적 조치가 공공부문에서 모범적으로 시행될 것, 지역에서 여성고용을 증대할 것, 의사결정에서 여성참여를 촉진할 것 등과 같은 과제가 제시되었다.

#### 다. 제3차 행동계획(1991~1995년)

제3차 행동계획에서는 '여성을 위한 기회평등'에서 '남녀를 위한 기회평등'으로 명칭을 변경했으며 노동에 중점을 두고 경제분야에서 여성의 참여를 촉구하고 있다. 특히 1990년 책정된 NOW(New Opportunity for Women) 계획은 직업훈련, 고용과 창업촉진, 기업과 직업훈련센터 내 보육시설의 설치 및 지원책을 마련하도록 했다. 또한 1991년에는 '직장에서의 남녀의 존엄에 관한 권고'가 채택되어 성희롱에 관한 구체적인 행위규범을 제시하였다.

#### 라. 제4차 행동계획(1996~2000년)

제4차 행동계획에서는 노동시장이나 생활 전반에서 성역할 고정관념이 여전히 남아 있으며 그러한 상황이 여성의 경제활동에 장애가 되고 있다는 점을 인식하고 이를 시정하도록 권고하고 있다. 또한 이 시기에 'gender' 라는 용어가 처음 사용되었다.

### (3) OECD(경제협력개발기구)의 여성고용정책

OECD(Organization for Economic Cooperation and Development)는 1961년 발족하였으며 대부분의 회원국은 선진국에 속하고 있고 우리나라는 1996년에 29번째로 가입국이 되었다. OECD는 설립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회원국 모두에게 공통적으로 적용될 수 있는 개방된 시장경제, 다원적 민주주의, 인권존중의 가치관을 제시하고 있는데 여성고용관련 정책은 유엔여성차별철폐협약에서 제시되고 있는 내용과 유사하나 특별한 점은 육아의 남녀공동책임 명시와

소수여성에 대한 관심 등을 들 수 있다.

특히 OECD 선언 중 여성고용정책에 관한 선언의 내용은 여성의 동등한 고용기회를 위해 각 국가의 적극적인 지원정책이 필요하다는 점에서 출발하고 있는데 크게 네 가지 측면이 강조되고 있다. 첫째, 남녀에게 동등한 고용 기회와 보수를 제공하고 육아에 있어서 공동으로 책임을 진다. 둘째, 소수여성과 이민여성의 특별문제를 고려하고 취업기회를 확대한다. 셋째, 전통적인 성 역할 고정관념을 제거하기 위한 교육을 실시한다. 넷째, 여성을 위한 신기술 및 재교육 프로그램을 실시하고 출산으로 인한 피해를 입지 않도록 한다(한국여성개발원, 2000).

### 3. 우리나라 여성노동시장 변화와 여성노동 정책동향

#### 1) 여성노동시장의 구조변화

산업화 초기 우리나라 여성노동시장의 구조는 미혼의 어린 여공으로 대표되었고 이들의 장시간 노동과 저임금에 기반을 둔 착취구조가 이 시기의 상징처럼 여겨지고 있다. 그러나 1980년대 이후 기혼여성의 경제활동참가율이 지속적으로 높아지고 연령과 학력 또한 높아졌으며 고용형태 또한 상당한 변화를 겪었다. 이러한 변화는 여성의 고학력화와 그에 따른 남녀간 교육수준의 격차 감소, 자녀수의 감소 및 기혼여성의 사회참여에 대한 인식의 긍정적 전환과 병행하여 이루어졌다고 볼 수 있다. 이러한 사회 인식의 긍정적 변화에도 불구하고 여성노동시장의 구조적 문제들, 예를 들어 M자형 취업분포곡선이나 여성노동의 비정규직화 등의 현상은 여전히 문제들로 남아 있다. 아래에서 이를 자세히 살펴보기로 한다.

### (1) 여성의 경제활동참가율

〈표 2-1〉에 의하면 우리나라 여성들의 경제활동참가율은 1970년 39.3%에서 2004년 49.8%로 느린 속도이긴 하지만 꾸준히 증가하여 현재는 거의 절반에 육박하고 있다. 물론 선진국의 70~80%대에 미치지 못하는 수치이긴 하지만, IMF 경제위기를 맞은 1998년 잠깐 위축되었던 때를 제외하고는 지속적으로 여성의 경제활동참가율은 증가해왔다고 볼 수 있다. 남성 경제활동참가율과의 격차 또한 1970년 38.6%포인트에서 2004년 25.0%포인트로 줄어들었다. 이는 앞서 언급했듯이 출산율의 저하, 국가의 보육관련 서비스 지원 확대, 가전제품의 발달 등으로 여성의 경제활동에 대한 기회비용이 감소하고 여성의 사회진출에 대한 인식 개선이나 여성의 고학력화, 자아실현 욕구 증대 등 복합적인 요인이 영향을 준 것으로 볼 수 있다.

〈표 2-1〉 성별 경제활동참가율

단위 : %

성별/연도	1970	1975	1980	1985	1990	1995	1997	1998	2000	2004
남	77.9	77.4	76.4	72.3	74.0	76.4	76.1	75.1	74.2	74.8
여	39.3	40.4	42.8	41.9	47.0	48.4	49.8	47.1	48.6	49.8
전체	57.6	58.3	59.0	56.6	60.0	61.9	62.5	60.6	61.0	62.0

자료 : 통계청, KOSIS, 각년도.

### (2) 여성취업자 산업별 구조

여성취업자의 산업별 구조를 보면, 〈표 2-2〉에 나타난 바와 같이 1970년대에는 1차 산업(농림어업) 종사자가 57.2%에 달해 산업화 초기 여성경제활동의 대부분이 1차 산업에 집중되어 있음을 알 수 있다. 그러나 그 이후 1차 산업 종사자가 지속적으로 빠르게 감소하고 있고 2차 산업(광업, 제조업, 전기, 가스·수도사업, 건설업) 종사자는 1980년대 초반까지 증가하다가 이후는 감소 추세를 보이고 있으며 3차 산업(서비스 산업) 종사자는 급속하게 증가하여 2000년 현재 67%에 달하고 있다.



〈표 2-2〉 여성취업자의 산업별 구성비

단위 : %

구 분	1970	1980	1995	2000	2003	2004
1차산업	57.2	39.0	14.6	10.6	8.8	8.1
2차산업	12.2	23.2	23.7	20.4	19.1	19.1
3차산업	30.6	38.7	61.7	69.0	72.1	72.8
계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자료 : 1) 김옥암(2002), 「경제발전과 여성노동의 활용~선진각국과의 비교」, 「국제지역연구」, 제6권 1호, 국제지역학회, p. 90.

2) 통계청, 「경제활동인구조사」, 2000, 2003, 2004년.

이를 〈표 2-3〉에서 좀 더 자세히 살펴보면, 농림어업, 광공업 부문에서는 1980년대 이후 지속적으로 감소하고 있는 반면, 서비스산업 부문에서 여성취업자 규모가 절대적으로 증가하고 있다. 그 중에서도 특히 도소매업, 음식숙박업과 사업서비스, 개인서비스 부문에서 상당한 증가추세를 나타내어 여성의 경제활동참가 산업구조의 변화와 함께 주로 이들 산업에 집중되어 있음을 알 수 있다.

〈표 2-3〉 산업별 여성취업자

단위 : %

구 분	1980	1985	1990	1995	2000	2003	2004
농림어업	39.0	27.8	20.3	14.6	10.6	8.8	8.1
광공업	22.3	23.2	28.2	21.4	20.4	19.1	19.1
제조업	22.1	23.2	28.1	21.3	20.4	19.1	19.1
사회서비스업	38.7	49.0	51.5	64.0	69.0	72.1	72.8
건설	1.4	1.1	1.8	2.2	7.5	8.2	8.0
도소매, 음식숙박	24.4	30.0	28.3	33.2	27.2	26.4	26.0
전기운수금융	3.1	4.4	6.1	6.5	9.8	9.8	9.7
사업, 개인서비스	9.8	13.5	15.4	22.0	24.5	27.7	29.1
전체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자료 : 1. 통계청, 「경제활동인구연보」, 각년도 ; 금재호(2002:31) 재인용.

2. 통계청, 「경제활동인구」, 2000, 2003, 2004년.

### (3) 여성취업자 직업별 구조

직업별 여성취업자 구조를 보면, <표 2-4>에서 나타나고 있는 것처럼 농업 및 기능직을 제외한 모든 업종에서 꾸준한 증가를 보이고 있는데 통계조사상의 한계로 1990년대 이후에만 알 수 있는 단순노무직 또한 증가추세이다.

특히 눈에 띄는 증가는 준전문가, 사무직원과 서비스·판매직에서 나타난다. 여기서 준전문가 집단은 학원 강사, 학습지교사 등 교육산업종사자와 간호사 등의 전문가 보조인력 집단으로 여성의 교육수준 향상과 연관이 있다. 또한 사무직에 있어서 여성의 증가는 경제구조의 변화와 더불어 사무량이 증가하고 기계화되어 복잡한 사무가 단순화됨에 따라 주로 하위직에 여성이 대거 고용된 것으로 보여진다. 서비스·판매직의 여성증가는 앞서 제시한 <표2-2>에서 나타났듯이 3차 산업의 비약적인 증가와 관련된 것으로 여겨지는데 산업구조 자체가 서비스업화된 상황 이외에도 우리 사회 전반에 깔려 있는 성별분업이 테올로기에 인해 서비스산업에 적합하다고 여겨지는 여성들의 진출이 늘어났다고 볼 수 있다.

<표 2-4> 직업별 여성 취업자

단위 : %

연도	총수	입법자 고위임직원 및 관리자	전문가 기술공 및 준전문가	사무직원	서비스근로자 및 시장과 판매근로자		농업 및 어업 숙련 근로자	기능원, 기계조작원 및 조립원	단순 노무직
1980	100.0	1.8		4.1	12.0	16.5	38.7	21.1	
1988	100.0	6.2		11.3	16.3	16.9	22.9	26.5	
1993	100.0	0.4	10.6	14.5	29.4		14.6	16.6	13.9
1995	100.0	0.3	10.9	15.5	32.0		13.5	13.3	14.5
1999	100.0	0.3	12.7	13.4	35.1		12.2	11.2	15.1
2000	100.0	0.3	12.7	13.9	35.3		11.5	10.7	15.7
2003	100.0	0.4	16.5	16.4	37.2		9.1	8.1	12.3
2004	100.0 (9,456)	0.5	16.6	17.1	40.0		7.9	8.0	13.0

출처 : 노동부(2004: 63, 83).

#### (4) 여성취업자 종사상 지위별 구조

우리나라에서 비정규직의 문제는 이미 경제위기가 시작되던 1990년대 후반 부터 사회적인 이슈로 등장했는데 특히 여성을 중심으로 더욱 확산되고 있는 실정이다. 여성취업자의 종사상 지위별 구조를 <표 2-5>에서 보면, 여성 취업자 중 임금근로자는 1980년 39.2%에서 2004년 67.0%로 20여년의 기간 동안 27.8%포인트나 늘어난 것으로 밝혀졌다. 이와 같이 여성취업자의 임금근로직 진출이 증가한 것은 경제적 지위가 임금을 중심으로 결정되는 현 사회에서 고 무적이라 할 수 있으나 임금근로의 구성을 보면 불안정한 여성취업자의 지위가 나타난다. 여성근로자 중 임시직과 일용고로 대표되는 비정규직 여성근로자의 비중은 1990년부터 이미 1/3이상인 35.4%로 나타났으며 2004년에는 41.8%로 집계되어 거의 절반에 육박하고 있다. 임금근로자만 분리하여 생각해 볼 때 여성의 비정규직참여율은 2004년 62.5%로 전체 여성임금근로자 중 2/3 정도가 여기에 속한다고 볼 수 있다. 더욱이 임시직과 일용직뿐만 아니라 용역직, 특수고용직 등의 공식적인 노동통계에 포함되지 않는 비정규직이 포함된다면 여성 임금근로자 대부분은 고용불안과 저임금 속에서 차별을 받으며 일하고 있다는 결론에 이르게 된다.

<표 2-5> 종사상 지위별 여성 취업자

단위 : %

연 도	임금근로				비임금근로
	소 계	상용	임시	일용	
1980	39.2	30.9		8.3	60.8
1985	48.2	37.2		10.9	51.8
1990	56.8	21.4	22.5	12.9	43.2
1995	59.1	25.1	24.1	9.9	40.9
2000	60.8	18.4	28.2	14.2	39.2
2003	65.5	23.2	31.0	11.4	34.5
2004	67.0	25.2	30.0	11.8	33.0

출처 : 통계청, 「경제활동인구연보」, 1990, 1995, 2003, 2004.

### (5) 여성취업자 혼인상태별 구조

〈표 2-6〉에 의하면 혼인상태별 여성노동자의 구성비는 1980~90년대에 역동적으로 변화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미혼 여성노동자는 1980년의 85.6%에서 1998년에 52.7%로 약 33%포인트나 감소한 반면, 기혼 여성노동자는 1980년 14.4%에서 1998년 47.3%로 증가하였다. 이는 1960~70년대의 산업역군이었던 미혼 여성노동자들이 사회 전반의 경제적 발전에 의해 노동시장에서 퇴장하여 교육의 현장에 들어가고 이전에 비해 가사노동과 자녀양육의 부담이 줄어든 기혼 여성노동자들이 1980년대 이후 다시 노동시장에 진입하고 있다는 사실을 보여준다.

〈표 2-6〉 혼인상태별 여성 경제활동인구

단위 : 명(%)

구분	1980	1985	1988	1991	1995	1998	2002
계	1,067,931 (100.0)	1,196,871 (100.0)	1,571,861 (100.0)	1,472,683 (100.0)	1,508,242 (100.0)	1,273,329 (100.0)	1,954,813 (100.0)
미혼	914,288 (85.6)	948,640 (79.3)	1,131,248 (72.0)	958,937 (65.1)	856,205 (56.8)	670,757 (52.7)	939,916 (48.1)
기혼	153,643 (14.4)	248,231 (20.7)	440,613 (28.0)	513,746 (34.9)	652,037 (34.2)	606,571 (47.3)	1,014,897 (51.9)

출처 : 노동부(2002: 68, 91).

### (6) 여성취업자 연령별 구조

우리나라 여성 연령대별 경제활동참가율에서 나타나는 가장 큰 특징은 M자형 곡선이다. 〈표 2-7〉에서 밝혀진 바와 같이 모든 연도별 수치에서 20~24세와 35~39세에는 높아지다 25~29세와 30~34세에는 경제활동참가율이 낮아지는 M자형 곡선이 나타나고 있다.

특히 여성의 경제활동참가율은 15~19세는 급격한 감소를, 20~24세에서는 꾸준한 감소를 보이고 있는데 이는 교육수준의 향상과 밀접한 연관이 있다. 또한 초혼 연령과 초산 연령이 늦어지면서 30~34세 여성의 경제활동참가율은 조금 낮아지고 있지만 기혼여성의 경제활동참가의 증가와 더불어 35~44세 여성

의 경제활동참가율은 꾸준히 증가하는 추세에 있다.

〈표 2-7〉 연령별 여성 경제활동 참가

단위 : %

구 분	1976	1980	1985	1991	1995	1997	1998	2003	2004
전연령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4세	1.6	0.4	0.1	~	~	~	~	~	~
15~19	15.7	11.7	6.7	5.1	3.2	3.0	2.7	1.7	1.4
20~24	15.6	18.0	17.2	17.3	16.4	14.6	12.7	12.0	11.4
25~29	8.4	8.6	12.1	10.6	11.4	12.5	12.6	12.1	12.2
30~34	9.0	9.4	10.8	12.1	11.5	10.8	10.8	11.5	11.2
35~39	11.6	11.3	11.4	11.8	13.7	13.5	14.5	12.5	12.3
40~44	11.0	11.8	11.0	10.7	11.4	12.8	13.5	14.7	14.4
45~49	9.1	10.9	10.8	9.1	9.0	9.2	9.5	11.8	12.4
50~54	7.4	7.7	8.2	8.8	7.6	7.3	7.3	7.7	8.2
55~59	5.2	5.5	5.9	6.6	6.6	6.7	6.5	5.6	5.9
60세 이상	5.3	4.7	5.8	7.8	9.2	9.9	9.8	10.4	10.7

출처 : 노동부(2004 : 60,80).

## 2) 우리나라 여성노동정책의 동향

앞서 제시한 바와 같이 여성정책은 여성에 대한 사회적 불평등을 제거하고 평등을 목적으로 국가에 의해 행해지는 노력들의 총체로 규정된다. 그 중 여성 노동정책은 여성노동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정부의 행동 계획 및 그 실천 활동이며 정부의 문제해결 의지의 구체적인 표현(김엘림, 1994), 또는 여성노동자의 자유롭고 평등한 경제활동참여를 가로막는 장애요인들을 파악하고 그것을 제거하려는 국가의 노력이며 전면적인 여성노동억압이나 성차별 요인을 해결하려는 의도적인 개입의 총체(강현아, 1996)로 정의되기도 한다. 이를 요약하면 여성노동정책은 여성노동시장에서 여성이 경험하는 불평등을 제거하고 노동시장에서의 평등을 지향하는 국가의 노력으로 개념화할 수 있다.

우리나라의 초기 여성정책은 주로 소외계층 여성을 대상으로 한 복지증진

정책이었는데, 미군정이 최초로 1946년 설치한 여성전담 행정기구인 부녀국은 ‘여성근로자’를 특별히 대상으로 삼기보다는 ‘불량부녀와 행려 부녀자, 윤락여성’ 보호에 초점을 맞춘 부녀복지 행정의 일환으로 여성정책을 다루었다. 이후 근로자의 노동환경과 조건을 개선하려는 정부의 정책적 시도는 1953년 ‘근로기준법’의 제정에서부터 비롯된다. 특히 이 법에서 여성근로자의 작업환경과 노동조건을 보호를 위해 ‘여자와 소년의 근로’ 조항이 삽입되면서 여성을 일반 성인남성근로자와 달리 취급해야 하며 보호해야 할 필요성을 명시하였다(노동부, 2001). 그러나 이 법은 열악한 노동조건에 처해 있었던 여성노동자들에 대한 시혜와 온정적 보호의 차원에서 만들어진 것으로 정부 수립시 선진국의 제도를 도입한 ‘장식적인 법률’에 불과한 것으로 평가받고 있다(이은영, 1999).

이후 1960~70년대 우리나라는 미혼 여성노동자의 저임금과 장시간의 열악한 노동조건을 발판으로 삼아 괄목할 만한 경제성장을 이루게 되었는데 산업화가 진행되면서 여성노동자의 수가 증가함에 따라 관련 노동문제도 빈번하게 발생했지만 이에 대한 구체적인 대응정책은 거의 이루어지지 않은 상태였다(강이수·신경아, 2001). 처음으로 여성노동자에 대한 별도의 정책이 필요하다는 인식이 생기기 시작한 1980년대에는 1960~70년대 노동집약적 수출산업의 급성장에 절대적으로 기여해온 미혼여성 생산직 노동력의 공급 감소 및 부족으로 인해 기혼여성을 포함한 여성인력활용에 대한 관심이 증대된 시기였다.

따라서 여성 노동 문제와 관련해서 처음으로 본격적인 정부 정책이 수립된 것은 1980년대이다. 당시 정부는 ‘제6차 경제 사회 발전 5개년 계획’의 일환으로 여성 개발 부분의 계획을 수립하였으며, 이 계획에 의해 남녀고용평등법이 1987년 제정, 시행되었다. 노동시장에서의 여성에 대한 각종 차별을 시정하기 위한 본격적인 법안으로서 남녀고용평등법이 처음부터 커다란 효력을 발휘한 것은 아니었지만 각종의 차별 조치를 시정하기 위한 준거로서 그 의미는 매우 컸다고 할 수 있다(강이수·신경아, 2001).

이후, 1990년대 남녀고용평등법 개정, 여성발전기본법 제정과 2001년 모성

보호관련법 개정을 통해 여성고용평등과 확대를 위한 국가의 정책적 노력이 지속되었는데 이 글에서는 지금까지 국가가 시행한 여성노동정책 중에서 고용 평등, 고용확대, 모성보호라는 세 가지 측면에서 살펴보고 앞으로 여성노동정책의 개선방향을 제시하고자 한다.

### (1) 고용 평등 정책

우리나라에서 고용 평등과 관련한 여성노동정책은 1987년 ‘남녀고용평등법’(이하 고평법)이 제정되면서 여성노동자의 평등한 노동권 보장과 고용상의 성차별을 해결할 수 있는 법제도가 공식적으로 마련되었다고 볼 수 있다. 고평법은 근로기준법에 기초한 ‘보호’에서 ‘평등’의 여성정책으로 논의를 확장시켰다는 점에서, 그리고 인력활용방식으로 여성을 경제발전에 편입시킴으로써 여성의 독립성을 인정했다는 점에서 의의를 갖는다(백진아, 2002).

고평법은 여성근로자가 모집·채용·교육·배치·승진 및 퇴직에 이르기까지 남성근로자에 비해 차별받지 않도록 규정했는데, 이 법의 핵심은 여성에 대한 차별 금지와 고용평등의 달성이라고 할 수 있다. 특히 이 법의 개정작업을 통해 고용차별의 개념을 직접차별뿐 아니라 간접차별 개념까지 확대함으로써 실질적인 고용평등을 달성할 수 있는, 즉 불평등한 효과를 근절하는 결과의 평등까지 이를 수 있는 물꼬를 텄다는 점은 상당히 고무적이다. 아울러 남녀 임금격차에 대한 동일노동·동일임금의 원칙도 규정상으로는 확보되었다.

법과 규정이 정립되었음에도 불구하고 그 같은 원칙이 현실의 과정에서 얼마나 실행력을 갖느냐 하는 것이 문제가 되는데, 우리나라의 경우 아직까지 법의 실효성과 시행 효과의 증진을 위한 환경 조성이 아직 미비한 편이다. 즉, 법은 있지만 기업은 인사 관행의 변화를 통해 평등 원칙을 적용하는 것을 주저하고 있으며 법을 어겼을 경우에도 처벌이 미약하기 때문에 제대로 지켜지지 않는 부분도 있다. 또한 실질적인 고용 평등을 위해 ‘간접 차별’의 개념이 도입되었으나 간접 차별 금지 조항의 구체적인 성립 요건이 없어 실효성이 매우 약한 상황이다(강이수·신경아, 2001).

## (2) 모성 보호 정책

여성 노동 정책 중 또 하나의 주요한 영역은 모성 보호를 위한 정책이다. 장지연(2004)은 모성정책을 여성이 담당해온 사회재생산의 기능 때문에 여성이 사회적 노동을 수행하는 경우 정책적으로 고려되어야 할 내용들을 포괄적으로 일컫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다. 여기서 사회 재생산의 범위를 좁게 보자면 여성 노동자의 출산과 관련된 정책, 출산을 가능하게 하는 모성건강, 모성안전에 관한 정책만이 모성정책이 될 것이다. 그러나 사회적 재생산이 생물학적 출산뿐 아니라 양육, 즉 보살핌 노동이 없이는 불가능하다는 점을 인정한다면 소위 ‘사회적 모성’에 대한 정책적 고려는 불가피할 것이다.

노동시장에서의 성차별 금지에도 불구하고 여성의 지위가 상승하지 못하는 주요요인 중 하나는 여성의 가사노동과 육아에 대한 부담 때문이다. 일반적으로 여성은 가사노동과 육아 등 무급노동의 부담이 남성보다 많은 만큼 직장에 헌신적으로 몰두하여 일할 수 없기 때문에 여성의 노동시장내의 지위향상을 위해서는 가사노동과 육아에서 평등한 부담이 필수적인 요건이 된다. 따라서 여성의 고용확대와 동시에 추진되어야 하는 것은 바로 직장가정의 양립을 위한 지원체계를 구축하는 것으로 우리나라에서는 ‘영유아보육법’ 제정을 계기로 보육문제에 국가가 적극적으로 개입하기 시작하였다. ‘사회적 모성’을 보호하기 위한 정책으로서 가장 대표적인 영유아 보육법은 ‘상시 여성 근로자가 300인 이상인 사업자의 경우 직장 보육 시설을 설치, 운영해야 한다’는 규정을 명시함으로써 직장가정 양립을 지원하고 있다.

근로기준법에 규정된 모성보호조항을 살펴보면, 사용자는 여성 근로자에게 산전·산후 60일의 휴가를 주어야 하고, 임신 중인 여성 근로자가 청구할 경우에는 경미한 근로로 전환시켜야 한다. 아울러 생후 1년 미만의 유아가 있는 여성 근로자의 청구가 있을 경우에는 1일 2회 각각 30분 이상의 유급 수유 시간을 주어야 한다는 육아 시간의 규정도 있다. 또한 고령법에서는 육아휴직제를 명시하고 있는데, 즉 사업주는 생후 1년 미만의 영아를 가진 남녀 근로자가 그 양육을 위해 육아휴직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이를 허용해야 하며, 이를 사용한



근로자에게 불리한 처우를 해서는 안 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2001년에는 25~34세 사이 여성들의 노동단절이 두드러지는 현실을 개선하기 위해 여성노동자의 모성보호강화와 직장~가정 양립지원 및 모성보호 비용의 사회분담화를 주요 내용으로 하는 모성보호관련법이 개정되었다. 이로써 그동안 기업과 개인이 부담하던 출산·육아의 문제를 사회적 책임으로 전환하는 계기가 마련되었으며 여성노동권과 양성평등의 이념이 구체화되었다.

최근 모성보호는 임신·출산과 직접적인 연관이 있는 범위로 한정지어 보호를 강화하고, 그 대신 여성일반에 대한 보호를 완화하는 것이 국제적인 추세이다. 여성노동정책으로서의 모성보호는 휴가와 임신부에 대한 산업안전 강화, 육아휴직제 등이 주요 내용이다. 산전후 휴가제도는 출산을 전후하여 일시적으로 노동을 중단하는 여성노동자에 대한 출산지원제도이다. 우리나라 출산휴가는 1953년 근로기준법 제정 시부터 규정되어 오랜 역사를 갖고 있으나 실효성을 갖기 시작한 것은 1970년대 이후의 일이며, 2001년 근로기준법 개정 시 휴가기간을 60일에서 90일로 확대하였다. 법 개정은 직장~가족의 양립지원에 대한 사회적 의지의 표현이라 볼 수 있으며, 확대된 30일분의 비용은 정부재정과 고용보험에서 부담하는 사회분담화의 계기가 되었다.

오랫동안 사적인 영역에서 해결해야 하는 문제로 인식되어 오던 임신, 출산, 양육과 관계된 재생산 영역의 일을 노동권의 문제로 인식하고 확보하는 과정에서 특히 기혼 여성 노동자의 수가 증대하면서 모성 보호의 문제는 더욱 중요한 문제로 부각되고 있다. 최근에는 임신, 출산, 양육 등 재생산과 관련된 영역을 여성 개인에게만 부과할 것이 아니라 사회 전체가 책임지고 해결해야 하는 문제로 보는 인식이 점점 확대되고 있다. 그러나 서구에 비하면 우리나라의 모성 보호 정책은 아직도 매우 미흡한 실정이다.

### **(3) 고용 확대와 적극적 조치**

최근 우리나라뿐 아니라 국제적으로도 여성노동정책에서 빼놓을 수 없는 중요한 흐름은 여성에 대한 적극적 조치이다. 적극적 조치는 오랫동안 누적되어

은 여성들에 대한 차별을 시정하기 위해 한시적이지만 의도적인 차별 개선 효과를 낼 수 있는 조치가 필요하기 때문에 시행되고 있으며 대표적으로 나타나는 형태가 여교수 채용목표제, 여성공무원 채용목표제, 할당제 등이다. 이러한 법은 고용주들에게 직접적인 구속력을 갖게 되므로 가시적인 성과를 얻을 수 있게 된다.

UN은 세계 각국에 적극적 조치의 실행을 권장하고 있는데, 그 기준으로 여성 비율 20~30% 이상을 제시하고 있다. 학자에 따라 다르지만 조직에서 소수 집단이 대표성과 영향력을 가지려면 최소한 35%는 되어야 한다고 하며, 특정 집단의 의사 반영이 가능한 최소한도의 수(critical mass)가 15%라는 견해도 있다(강이수·신경아, 2001). 우리나라에서는 1990년대 여성의 일정 비율 할당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높아지면서 쟁점화되다가 1995년 ‘여성발전기본법’이 제정되면서 성과를 얻을 때까지 한시적으로 적용한다는 의미로 ‘잠정적 조치’라고 규정되었다.

우리나라에서 적극적 조치를 법적으로 명시한 것은 여성발전기본법과 고령법 등이며, 이는 우리나라가 UN 여성차별철폐협약을 비준함으로써 가능한 일이었다. 여성발전기본법 제6조에는 “국가 및 지방 자치 단체는 여성의 참여가 부진한 분야에 대하여 합리적인 방안 안에서 그 참여를 촉진하기 위하여 관계 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잠정적인 우대 조치를 할 수 있다”고 되어 있다. 고령법에서는 “현존하는 차별을 해소하기 위하여 국가, 지방 자치단체 또는 사업주가 잠정적으로 특정한 성의 근로자를 우대하는 조치를 취하는 것은 이 법에서 말하는 차별로 보지 아니한다”고 규정하여 여성을 우대하는 정책이 남성에 대한 역차별이 아님을 분명하게 밝히고 있다.

그러나 우리나라에서 적극적 조치가 공무원, 교수 등 제한적인 영역에서만 적용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에 대한 역차별 논란은 계속되고 있다. 적극적 우대조치는 여성이 과소 대표되어 있고 오랫동안 지속되어온 사회체제나 관습에 의해 이미 구조적인 차별이 공공연한 상황에서 이를 개선하기 위한 구조적인 조치가 없으면 결코 개선될 수 없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사실상, 실질적

인 평등을 이루기 위한 것이며, 국제적으로도 이 때문에 적극적 조치를 권장하고 활용하고 있다는 점에서 우리의 인식을 재정립할 필요가 있다.

#### (4) 여성노동정책의 과제

최근 세계적으로 권장 또는 시행되고 있는 여성노동정책의 공통점은 양성 평등한 고용기회와 근로조건을 만들어주고 적극적 조치를 활용하여 여성고용을 최대한 확대하며 여성들이 가정과 직장을 양립할 수 있도록 다양한 지원제도를 마련함과 동시에 성역할 분담 이데올로기에서 탈피할 수 있도록 의식화하는 작업들로 이루어지고 있다(박숙자, 2001).

우리나라 여성노동정책과 관련 법안은 1980년대 후반 이후 비교적 빠른 속도로 정비되고 있다. 각종 여성노동 관련법과 여성정책 계획에서 일하는 여성들의 권리가 중요하게 취급되고 있으며 기회의 평등에서 조건 및 결과의 평등으로, 형식적인 평등에서 실질적인 평등으로 평등 개념을 확대하려는 노력도 이루어지고 있다. 또한 할당제와 같은 적극적 조치도 부분적이거나 시행되고 있다. 그러나 비교적 선진적인 법과 정책의 시행 노력에도 불구하고 현실 속에서 취업 여성의 지위는 여전히 취약하고 불안정하다(강이수·신경아, 2001). 이는 우리나라의 가부장적 직장문화에서 여성노동정책이 구체적인 상황 속에서 얼마나 실효성 있게 작용하느냐의 문제와 관련된다고 볼 수 있다. 이러한 문제점에 비추어 앞으로의 여성노동정책의 과제에 대해서 다음 몇 가지 측면으로 요약해 볼 수 있다.

첫째, 여성노동정책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현재 이상의 노력이 필요하다. 법 규정이 있어도 그것을 구체적으로 현실에 적용하기 위한 노력이 기울여지지 않는다면 그 법은 무의미하다. 우리나라의 경우 법 규정의 수준은 선진국과 크게 차이가 나지 않는다고 한다. 그러나 법 이행에 대한 감시감독이 약하고 법 위반시의 처벌 규정이 약하거나 처벌을 집행할 수 있는 기관이 부재 또는 미약하거나 또는 사법부의 편견 등에 의해 제대로 법 해석이 되지 않는 등 여러 가지 문제로 인해 법이 제대로 시행되지 않고 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 법

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한 감시감독 강화, 처벌 규정 강화 등의 방법이 모색되어야 하겠다.

둘째, 모성보호는 개인 특히 여성개인의 책임이 아니라 이 사회 전체의 재생산이라는 측면에서 사회적 책임이라는 인식이 확산되어야 하며 이를 통해 남녀 모두가 직장·가정의 양립을 이루며 평등하게 노동할 수 있는 사회 체제를 구축해야 한다. 사회적으로 문제가 되고 있는 만혼과 출산을 저하는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지 않고서는 해결되지 않는 문제이다. 이를 위해 지금까지 개인이, 또는 개인 사업주가 부담했던 모성보호를 국가와 사회가 기꺼이 맡을 준비를 해야 한다. 미래 사회에서 여성인력의 효율적 활용은 국가의 생존과 직결된 문제로 보아야 하며, 이를 위해 모성보호는 필수 선결과제라 볼 수 있다. 따라서 모성 ‘보호’가 아닌 모성 ‘권리’를 인정, 확대하고 그에 따른 조치를 강화해 나가야 한다. 이는 또한 여성 개인의 모성뿐 아니라 육아와 관련된 ‘사회적 모성’의 권리를 확대해나가는 것도 동반되어야 한다. 따라서 직장·가정 양립지원 서비스와도 연결되어야 할 것이다.

셋째, 노동시간 단축과 유연한 근무형태의 채택은 여성노동자의 삶의 질 향상뿐 아니라 직장·가정 양립 지원을 위해 꼭 필요하다. 금융권에 이어 관공서에서도 주5일 근무가 전면적으로 시행되었다. 정부는 지속적으로 노동시간을 단축하는 정책을 펴고 있다. 그러나 실제로 여성노동자들이 집중되어 있는 소규모 사업장에는 아직도 주 44시간 이상의 장시간 노동이 지속되고 있다. 물론 유연한 근무형태가 여성에게만 일방적으로 강요된다면 지금의 비정규직 문제와 다름없는 문제가 될 것이다. 그러나 남녀 모두에게 노동시간이 단축되고 유연한 근무형태가 권장된다면 우리의 노동문화에 변화가 올 것임에는 틀림없다. 이러한 노동문화의 변화는 궁극적으로 우리 사회에서 전통적인 성역할의 변화를 동반할 것으로 여겨진다. 이렇게 되면 여성과 남성 모두 경제적 주체로서 실질적인 평등관계를 이룩하게 될 것이고 출산을 저하에 따른 노동력 감소라는 근원적인 문제에 대한 해결의 실마리를 제공할 것으로 생각된다.

넷째, 적절한 여성노동정책을 펴기 위해서는 정확한 여성노동자의 실태 파악

이 선행되어야 한다. 국제적으로 여성정책의 패러다임이 WID(Women-in Development)에서 GAD(Gender and Development)로, 그리고 이제는 성주류화(Gender Mainstream)로 변화하고 있다. 하지만 우리나라의 공식통계 중 2/3에 해당하는 비정규 여성근로자의 경우, 전체적인 규모만 파악될 뿐 산업별, 직업별, 혼인상태별, 지역별 등으로 세분화된 공식통계는 존재하지 않는다. 여성근로자들에 대한 상세한 정보가 없는 한 여성근로자들의 지위를 개선시킬 수 있는 정확한 정책이 나오기 어렵다. 여성노동정책의 성주류화를 위해서는 성인지적 노동통계의 구축이 필수적이며 이를 기반으로 여성근로자들의 노동조건에 대한 세심한 분석이 선행되어야 할 것이다.

## 제3장

### 국내외 여성정책사례분석

#### 1. 우리나라 여성농업인에 대한 정책사례

##### 1) 현 황

농업부문에 있어 농가여성은 주요 노동력으로 그 역할을 수행해 오고 있는데 <표 3-1>에서도 알 수 있듯이 1970년에 이미 농가의 농업종사원 중 여성종사원이 남성종사원보다 많았으며, 2003년의 경우에는 여성농업종사 가구원의 비중이 더욱 증대한 것으로 나타났다.

〈표 3-1〉 우리나라 여성농업종사 가구원 현황

단위 : 명, %

구 분	1970년	2003년
합 계	14,422,000	3,530,102
남	7,164,000 (49.7%)	1,715,127 (48.6%)
여	7,258,000 (50.3%)	1,814,975 (51.4%)

농가의 여성농업종사원뿐 아니라 농업 주종사 분야에서도 여성의 역할은 크게 증대하고 있다. 즉 농업 주종사원 중 남성의 비중이 1970년 약 72%에서 2001년 약 47%로 감소한 반면, 여성의 비중은 약 28%에서 53%로 크게 증대하

었는데 이는 1980년 말 이후 농가여성의 농업주종사자가 대폭 증가하였기 때문이다.

여성농업인의 노동투하비중이 1970년 약 33%에서 2001년 약 47%로 증가하는 등 농업부문에서 여성노동이 차지하는 비중 및 그 역할의 증대 그리고 타 부문 종사여성보다 많은 농업노동과 가사노동에 종사하고 있는 실정이다. 그러나 이러한 여성농업인의 과중한 가사 및 농업노동에도 불구하고 여성농업인은 정당한 노동가치를 인정받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또한 농번기에 여성농업인의 노동량이 과중하게 투하되고 있어 농촌지역 여성들에게 농부증(農夫症, farmer disease)<sup>2)</sup> 발생의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

이러한 문제와 더불어 여성농업인의 고령화 문제, 농업부문에서 남녀임금의 심한 격차, 여성농업인의 농촌생활에 대한 불만족의 이유인 낮은 소득, 힘든 농사여건 그리고 열악한 자녀교육 환경 그리고 육아·보육, 의료환경 등 취약한 복지여건으로 인해 젊고 유능한 여성의 농촌진입을 막는 장애요인 등의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

따라서 농림부는 농업노동의 주 담당자인 여성농업인에 관한 정책수요 증가 및 여성농업인을 둘러싼 여러 문제에 적절히 대처하기 위하여 여성농업인을 위한 별도의 정책을 수립·추진하게 되었다.

## 2) 여성농업인 정책 추진 배경

여성농업인에 대한 정책은 1998년 농림부 내에 여성정책담당관실이 설치되면서 본격적으로 마련되기 시작했다고 볼 수 있는데, 그 과정을 살펴보면 다음

---

2) 다년간 농업에 종사한 농부에게 나타나는 증후군(症候群). 어깨가 빠근하고, 허리가 아프며, 손발이 저리고, 현기증·귀울림·불면증·야간다뇨(夜間多尿) 등의 증세와 걸모습의 조로(早老)증·무기력증 등 여러 자각증세가 나타나며 노동능률이 현저하게 저하된다. 예전에는 단순한 피로에서 오는 현상이라고 생각했지만, 이것은 과로와 영양부족에서 오는 심장혈관계의 장애이거나 신경계의 장애에 원인이 있는 것이라고 생각되고 있다. 의료계에서는 단순히 농부증이라 하여 무심하게 방치해 두면 다른 질환이 생기기 쉬우므로 정기적인 건강진단을 받아야 한다고 권고하고 있다.

과 같다.

- 농림부에 여성정책담당부서인 『여성정책담당관실 설치』 (1998년)
  - 대통령직속 여성특별위원회 여성정책 기본계획과 연계한 여성농업인정책기본계획의 수립 및 여성농업인 정책과제 연구사업 추진
  - 후계여성농업인 육성, 출산여성농업인을 위한 도우미제도 도입
  - 각종 위원회의 여성위촉 확대, 여성농업인단체교육활동지원, 여성농업인대회 개최, PC통신
  - 여성농업인 열린 광장 개설
  - 농업인실태조사·여성농업인교육프로그램개발 등 정책과제 연구
  - 농정사상 최초로 국장급 여성공무원 임용(농촌 진흥청)
- 여성농업인 단체, 농업학계, 농업전문가 등 각계 대표로 구성된 장관직속의 「여성농업인정책자문회의」 운영을 통한 여성농업인 정책 의견수렴

그 후 1999년 농업·농촌기본법 시행령(제7조)에서는 「여성농업인 육성 5개년 계획」과 연도별 시행계획의 수립 및 시행을 명시함으로써 여성농업인 정책 추진의 기반을 마련하였다.

이와 같은 논의를 거쳐 구체적인 여성농업인 정책이 추진된 것은 여성농업인 육성 5개년 계획이라고 할 수 있다. 2001년에 제정된 여성농업인육성법에서는 여성농업인 육성정책에 관한 기본계획을 5년마다 수립하고 정부 및 관련기관에 시행협조 책무를 부여하였다. 이는 여성농업인이 영농활동에서 차지하는 역할과 비중에 대한 재발견을 토대로 하고 있다.

이에 따라 ‘제1차 여성농업인 육성 5개년 계획’ (2001~2005)이 실시되고 있으며, 2006년부터 시행될 ‘제2차 여성농업인 육성 5개년 계획(2006~2010)’ 수립도 마무리 단계에 있는 것으로 파악되었다.

현재 농업주종사자 중 여성인구비중이 남성보다 높아 여성은 이미 우리나라 영농인력의 주류를 이루고 있다. 영농형태도 논벼위주에서 채소·과수·화훼 등 원예작목 중심으로 변화하고 있는데 이들은 여성노동력에 대한 의존도가 높은 작목이기 때문에 여성의 농업노동 참여는 더욱 늘어날 것으로 전망된다.



뿐만 아니라 전자상거래의 발달, 상품의 포장과 마케팅의 중요성 부각 등 농업경영환경의 변화는 생산이전 및 생산이후 단계의 부가가치를 높이고 여성영농인력의 자리를 새롭게 규정할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농업·농촌의 변화와 더불어 여성은 더욱 중요한 역할을 수행할 것으로 기대되고 있으며, 이러한 여성농업인의 수요에 맞게 지원할 수 있는 정책방안이 요구되고 있다.

### 3) 여성농업인 육성정책 개요

농림부는 여성농어업인육성법에 근거하여 5년마다 여성농업인육성기본계획(제5조)을 수립하여 시행하고 있는데 기본계획에는 다음과 같은 사항이 포함되도록 하고 있다.

- i) 여성농업인 육성정책의 목표
- ii) 여성농업인 육성정책의 기본방향
- iii) 다음 각항의 핵심정책과제
  - 가. 농업경영능력 향상
  - 나. 여성농업인의 지위향상
  - 다. 여성농업인의 삶의 질 향상
  - 라. 그 밖에 여성농업인 육성에 필요한 시책
- iii) 여성농업인 육성정책의 시행에 필요한 재원의 지원계획

농림부는 여성농어업인육성법에서 정한 내용에 따라 여성농업인 육성정책을 수립하여 추진하고 있는데 그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농림부의 여성농업인 육성정책의 기본목표는 여성농업인의 전문인력화·지위향상·삶의 질 제고를 통한 건강한 농촌가정의 구현과 농업·농촌사회의 발전에 두고 있다. 그리고 여성농업인 육성정책의 기본방향은 다음과 같이 크게 네 가지로 설정하고 있다.

첫째, 신기술·신지식 농업에의 대응을 위한 경영능력 강화이다. 신기술·신지식농업으로의 이행과 친환경농업의 확산, 유통 및 식품안전을 비롯한 농업관련 산업(agri-business)의 발달 등 급속하게 변화하는 농업환경에 적극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역량을 강화하는 것이 육성정책의 방향이다.

둘째, 여성농업인의 역할증대에 부응하기 위한 지위향상 촉진이다. 즉, 농업노동·가사노동 및 지역사회활동 등 농업·농촌에서 여성농업인의 역할에 대한 위상의 재정립과 양성평등의 실현을 통한 경제·사회적 지위 향상을 촉진하는데 정책의 초점을 두고 있다.

셋째, 여성농업인의 안정적 농촌정주를 위한 삶의 질 향상이다. 유능한 여성세대의 농촌정주를 위한 농가도우미제도 등 농촌지역의 복지 서비스향상을 통해 여성농업인의 삶의 질을 제고하는 것이 정책의 주요 방향이다.

넷째, 여성농업인 육성정책의 체계적 추진을 위한 인프라 확충이다. 성인지적 정책개발 및 주요 정책과제에 대한 연구 등을 통해 여성농업인 육성정책의 효율적 추진을 위한 기반을 구축하는 것이 여성농업인 정책의 주요 정책방향이이다.

농림부에서는 여성농업육성정책의 효율적 달성을 위해 i) 여성농업인의 경영능력 강화, ii) 여성농업인의 지위향상 촉진, iii) 여성농업인의 삶의 질 제고, iv) 여성농업인 정책시스템 구축 등과 같은 기본전략을 수립하고 이를 바탕으로 8개의 핵심정책과제를 도출하여 추진 중이다. 이상의 주요내용을 정리해 보면 <표 3-2>와 같다.

〈표 3-2〉 여성농업인 육성정책 주요내용

구 분	주 요 내 용	
육성정책 목표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여성농업인의 전문인력화·지위향상·삶의 질 제고를 통한 건강한 농촌가정의 구현과 농업·농촌사회의 발전</li> </ul>	
육성정책의 기본방향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신기술·신지식농업에의 대응을 위한 경영능력 강화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신기술·신지식농업으로의 이행과 친환경농업의 확산, 유통 및 식품안전을 비롯한 농업관련 산업(agri~business)의 발달 등 급속하게 변화하는 농업 환경에의 대응능력 강화</li> </ul> </li> <li>○ 여성농업인의 역할증대에 부응하기 위한 지위향상 촉진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농업노동·가사노동 및 지역사회활동 등 농업·농촌에서 여성농업인의 역할에 대한 위상의 재정립과 양성평등의 실현을 통한 경제·사회적 지위향상을 촉진</li> </ul> </li> <li>○ 여성농업인의 안정적 농촌정주를 위한 삶의 질 향상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유능한 여성세대의 농촌정주를 위한 농가도우미제도 등 농촌지역의 복지 서비스향상을 통해 여성 농업인의 삶의 질 제고</li> </ul> </li> <li>○ 여성농업인 육성정책의 체계적 추진을 위한 인프라 확충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성 인지적 정책개발 및 주요 정책과제에 대한 연구 등을 통해 여성농업인 정책의 효율적 추진을 위한 기반구축</li> </ul> </li> </ul>	
핵심 정책 과제	기본 전략	핵심정책과제
	(1) 여성농업인의 경영능력 강화	(1-1) 여성농업인의 전문인력화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여성농업인의 전문교육훈련</li> <li>- 여성농업인의 전문교육시스템 구축</li> <li>- 여성농업인 해외농업연수</li> </ul> (1-2) 여성농업인의 영농활동 지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후계여성농업인 육성</li> <li>- 여성농작업의 기계화 추진</li> </ul>
	(2) 여성농업인의 지위향상 촉진	(2-1) 여성농업인의 사회참여 활성화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각종위원회의 여성위촉 확대</li> <li>- 여성농업인의 협동조합 참여확대</li> <li>- 여성단체 위탁사업 활성화</li> <li>- 여성농업인의 전문직업의식 고양</li> </ul> (2-2) 여성농업인센터운영 지원
	(3) 여성농업인의 삶의 질 제고	(3-1) 모자농업인자녀 학자금 지원 (3-2) 농가도우미제도의 정착
	(4) 여성농업인 정책시스템 구축	(4-1) 여성농업인정책과제의 개발연구 (4-2) 여성농업인정책 추진체계 정비

## 2. EU 회원국 수산업에서 여성참여의 실태와 특징

EU 회원국은 우리나라와 달리 소규모 영세어업을 영위하는 어가라는 개념이 없고 주로 기업형태의 상업적 어업이 주를 이루고 있다. 따라서 어가여성을 대상으로 한 어업에서의 노동사례를 찾아보기 힘들다. 따라서 여기에서는 어업활동을 주로 하는 EU회원국의 어촌지역을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 그리고 수산업 통계 등을 활용하여 작성된 보고서<sup>3)</sup>를 통해 EU 수산부문에 취업하고 있는 여성참여 실태와 그 특징을 살펴보고자 한다.

〈표 3-3〉 EU 회원국 조사대상 어촌지역

회원국	조사대상 어촌지역(Fisheries Dependent Areas: FDAs)
벨기에	오스텐드 근교지역
덴마크	본홀름섬과 에스비에르그
핀란드	베지네~수오미 : Rymattyla & Taivassato
프랑스	지역1: 노르망디, 칼레 : 불롱뉴와 폐샹 지역2: 브리타니에서 피레네 지역3 : 랑게도에서 알프스마리타임
독일	동독의 브레메르하펜과 뤼겐섬
그리스	사이클라드(어업), 카바타(가공업), 세팔로니아와 유보이아(양식어업)
아일랜드	북서부, 소부, 남서부
이태리	안코나, 브린디시, 트라파니
네덜란드	우르크
포르투갈	알가르브(남부), 포르토(북부)
스페인	갈리시아와 안달루시아
스웨덴	발틱해 일부 연안
영국	북동스코틀랜드, 남서잉글랜드

자료 : MacAlister Elliott & Partners Ltd, The Role of Women in the Fisheries Sector, TENDER FISH/2000/01~LOT No 1, 1443/R/03/D, 2002. 3, p.12.

3) MacAlister Elliott & Partners Ltd, The Role of Women in the Fisheries Sector, TENDER FISH/2000/01~LOT No 1, 1443/R/03/D, 2002. 3.

특히 설문조사는 EU 회원국의 어촌지역을 대상(〈표 3-3〉 참조)으로 수산업에서 여성의 역할을 파악하기 위하여 주로 여성의 수산업 부문에의 고용, 사회적 지위 및 법적 권리, 여성어업인 관련 어업조직에의 참여, 수산업 부문의 여성참여와 관련된 문제점 및 장애요인, 향후 전망, 개선방안, 육상 양식 등 어업에 의존하지 않는 지역에서 수산업 부문에 있어 여성의 역할 등에 대하여 실시되었다.

## 1) 수산부문 여성참여 실태

다른 지역과 마찬가지로 EU에서 어로어업에 종사하는 여성의 비율은 전체적으로 3% 정도에 불과하여 매우 제한적인 수준인 것으로 나타났다(〈표 3-4〉 참조). 반면 양식어업에 종사하는 여성들은 상대적으로 높은 비율을 나타내고 있는데 양식업 종사자의 약 27%가 여성인 것으로 나타났다.

〈표 3-4〉 EU 수산부문의 남녀 고용 형태(2000)

단위 : 명

구 분	여성	남성	전체	여성비율(%)
어로어업	4,771	147,890	152,661	3.1
양식어업	6,487	19,182	25,669	25.3
수산가공업	42,262	37,918	80,396	52.6
관리 및 경영*	7,897	12,179	22,375	39.3
표 본 수	61,417	217,179	281,101	21.8

주\* : 정부, 생산자 단체, 판매조합, 연구, 교육 및 수산 NGO.

자료 : MacAlister Elliott & Partners Ltd. 전계서 p.23.

수산물 가공업의 경우 여성들이 가장 많이 취업을 하고 있으며, 취업자의 53%가 여성으로 구성되어 있고 특히 덴마크와 스페인의 경우 수산가공업 종사자의 75%가 여성이다. 공공부문의 관리나 수산경영 부문에 있어서도 여성의 참여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는데 덴마크, 포르투갈, 스웨덴의 경우 종사자의 50% 이상이 여성인 것으로 나타났다(〈표 3-5〉 참조).

〈표 3-5〉 국별 수산업 부문의 여성고용 비율(2000)

단위 : %

구 분	자료범위	수산업 여성비율	어로어업	양식	가공	관리 및 경영
벨기에	국가 전체	30	3	~	45	35
덴마크	"	39	0	~	75	50
핀란드	"	14	0	~	58	~
프랑스	4개 어촌	15	2	~	64	28
독일	국가 전체	34	0	19	55	~
그리스	"	8	7	10	11	15
아일랜드	"	16	0	30	45	~
이태리	3개어촌	3	1	11	37	22
네덜란드	국가 전체	26	5	3	43	10
포르투갈	"	19	2	14	60	53
스페인	2개 어촌	43	1	44	75	37
스웨덴	국가 전체	29	4	13	48	59
영국	"	40	1	15	46	40

자료 : MacAlister Elliott & Partners Ltd. 전게서 p.24.

〈표 3-6〉 여성어업인의 사회적 지위 및 법적 권리

단위 : %

구 분	동일 노조	동일단체	전문여성 어업단체의 존재	조직내 남녀평등	탁아시설 유무	어업교육 기회 균등 여부
	남녀동시가입여부					
벨기에	○	○	○	×	~	~
덴마크	○	○	×	○	○	○
핀란드	○	○	○	~	○	○
프랑스	×	×	○	○	~	○
독일	○	○	×	○	○(일부)	~
그리스	○	○	○	×	×	○
아일랜드	○	○	○	○	×	○
이태리	○(일부)	×	×	~	○	훈련센터
네덜란드	○	○	×	○	○(일부)	○
포르투갈	○	○	×	×	△	○
스페인	○	×	○	×	~	~
스웨덴	○	○	○	○	○	○
영국	○	○	○(일부)	○	○(일부)	○

자료 : MacAlister Elliott & Partners Ltd. 전게서 p.34.

EU 여성어업인의 사회적 지위 및 법적 권리를 나타내고 있는 <표 3-6>에 의하면 프랑스, 이태리, 스페인을 제외한 대부분의 국가에서 동일노조 또는 동일 단체에 남녀동시가입이 가능함을 알 수 있다. 그리고 여성어업인을 위한 전문 단체가 존재하는 국가가 전체 13국 중 8개국이며, 조직내 남녀평등한 국가가 7개국, 탁아시설을 갖춘 국가가 7개국, 어업교육의 기회를 균등하게 제공하는 국가가 10개국으로 대체로 절반 이상의 국가에 있어 여성어업인의 사회적 지위 및 법적 권리가 보장받고 있는 것으로 사료된다.

<표 3-7> 수산업에 여성참여 장애요인(외적 요인)

단위 : %

구 분	장애요인이 아님	장애요인임	매우 심한 수준의 장애요인 임
차별에 대한 일반적 인지	20	80	73
가족 전통	46	54	27
사회적 편견	48	52	26
관습	47	53	25
배우자의 성향	38	62	25
육아책임	46	54	39
기타	59	41	17
자녀유무에 따른 차이	30	70	34
수산부문별			
어업	22	78	66
양식어업	39	61	22
판매/무역	57	43	13
가공	57	43	10
관리 및 경영	60	40	21
전 체	47	53	27

자료 : MacAlister Elliott & Partners Ltd. 전게서 p.40.

<표 3-7>은 수산업에 여성참여의 장애요인이 외부요인에 있음을 나타내는 표이다. 이 표에 의하면 외부인의 성차별에 대한 일반적인 인식이 여성이 수산업에 종사하는 데 있어서 장애요인인 경우가 가장 많고(80%), 다음으로 자녀유무에 따른 차이(70%)가 여성의 수산업 종사에 장애 또는 애로사항이 될 수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리고 배우자의 성향(62%)도 여성의 수산업 종사에 있어서 장애요인이 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한편 장애요인 중에서 그 심각성을 살펴보면 성차별에 대한 외부의 일반적 인지, 육아책임, 자녀유무에 따른 차이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어업형태별로 보면 일반 어로어업의 경우 다른 업종보다 여성의 참여가 꺼려지고 있고, 관리 및 경영 부문에는 여성의 참여가 상대적으로 용이한 것으로 나타났다(〈표 3-7〉 참조).

전체적으로는 외부인식이 수산업에 여성참여를 장애하는 요인이 되는 경우가 53%, 장애요인이 안 되는 경우가 47%로 장애요인이 약간 높게 나타났다. 그리고 장애요인 중 절반정도가 매우 심각한 수준의 장애요인임을 알 수 있다.

한편 여성이 수산업에 종사함에 있어 여성 자신의 요인들이 과연 장애요인인가 하는 부분에 있어서는 앞의 사회적 편견 및 차별 등 외적요인과 비교했

〈표 3-8〉 수산업에 여성참여 장애요인(내재적 요인)

단위 : %

구 분	장애요인 아님	장애요인임	매우 심한 수준의 장애요인 임
망설임	53	47	35
남성의 직업이라는 인식	53	47	27
경력관리의 어려움	25	75	60
좀더 나은 직종의 존재	23	77	56
육아에 대한 우선책임	33	67	22
기타	59	41	21
전 체	40	60	37
자녀의 유무	20	80	56
수산부문별			
어로어업	18	82	71
양식어업	29	71	35
판매/무역	52	48	22
가공	46	54	32
관리 및 경영	62	38	20
전 체	40	60	37

자료 : MacAlister Elliott & Partners Ltd. 전제서 p.44.



〈표 3-9〉 EU 수산업 부문의 임금 격차추정(1995년 기준)

구 분	여성의 평균 소득(€) (a)	남성의 평균 소득(€) (b)	a/b(%)
어로어업	17,570	20,910	91
선장	~	27,250	~
선원	~	19,280	~
지원	19,520	22,800	93
양식어업	19,270	22,140	87
양식	13,730	15,590	89
기술 및 연구원	16,990	18,880	88
판매관리	27,300	29,780	89
수산물 가공	17,630	21,190	84
감독	13,760	16,130	85
공원	12,850	14,990	85
기술 및 연구원	15,290	17,500	85
판매 등 관리	21,230	25,110	86
공공관리 및 경영	24,190	27,080	91
전 체	19,660	22,830	88

자료 : MacAlister Elliott & Partners Ltd. 전제서 p.46.

을 때 여성 자신의 내부적인 요인들은 여성이 수산업에 종사하는 데 있어서 상대적으로 장애요인으로 여기는 비율이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예를 들어 “수산업 종사에 대한 망설임” 등은 53%가 여성의 수산업 참여활동에 있어서 애로사항 또는 장애요인이 되지 못한다고 응답하였다. 그러나 “경력관리의 어려움” 이 여성의 수산업 종사에 장애가 된다는 응답은 75% 정도로 나타나 사회적 편견보다는 업무상의 장애요인이라고 할 수 있다.

여성 어업인이 직면하는 어려움은 주로 임금 격차, 기회의 부족 등을 들 수 있다. 어로어업의 경우 소득관련 자료가 부족하고 여성의 참여도 극히 제한적인 것으로 나타났는데 다만 연안을 기반으로 관리나 지원직의 경우는 여성의 참여율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표 3-9〉 참조).

한편 양식업의 경우는 남녀차별이 뚜렷하게 나타났는데 여성 소득은 남성 소득의 87% 수준을 보였다. 특히 이러한 비율은 양식업 전반적으로 양식, 기

술, 영업 관리 모든 분야에서 비슷한 유형을 보이고 있다. 남녀 소득의 격차가 가장 크게 나타나는 분야는 수산물 가공분야로 여성은 남성의 84% 수준의 소득을 올리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표 3-10〉 EU회원국의 수산업에 여성참여자간 사회문화적 비교

단위 : %

구 분	① 외적 차별에 대한 인지	② 내재적 인식	③ 수산업에 대한 사회적 인식	④ 평균 사회문화적 지표
벨기에	100	83	63	82
덴마크	6	50	63	40
핀란드	0	43	92	45
프랑스	42	22	63	42
독일	38	32	82	51
그리스	37	44	67	49
아일랜드	19	27	54	33
이태리	19	30	~	38
네덜란드	66	57	~	63
포르투갈	16	13	47	25
스페인	44	32	53	43
스웨덴	25	53	63	47
영국	19	27	58	35
평 균	27	37	66	41

자료 : MacAlister Elliott & Partners Ltd, 전계서 p.48.

공공관리 및 경영의 경우 여성의 소득은 남성의 91%로 다른 업종과 비교하여 비교적 여성의 소득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표 3-10〉은 사회문화적으로 여성들이 수산업에 종사하는 데 제약을 받는 정도를 평가한 것이다. 항목별로 의미하는 바와 그 결과는 다음과 같다.

① 외적 차별에 대한 인지는 수산업에 있어서 여성에 대한 사회적인 차별이 존재한다는 인식 수준을 나타내는 지표로서 값이 클수록 차별이 심하고 따라서 여성이 불리하다고 판단하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예를 들어 벨기에의 경우 조사대상자 모두(100%)가 수산업 부문에서 여성에 대한 차별이 존재한다

고 인식하고 있고, 덴마크의 경우 6%의 응답자가 차별이 있다고 인식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② 내재적 인식이란 여성들이 주관적인 판단, 즉 여성 스스로가 수산업에 참여를 꺼리는 비율을 나타내고 있는데 값이 클수록 수산업 종사를 꺼리는 것으로 볼 수 있다. 외적 차별과 마찬가지로 여성 스스로의 주관적 판단으로 수산업에 참여를 가장 꺼리는 국가는 벨기에라고 할 수 있다.

③ 수산업에 대한 사회적 인식 또는 사회적으로 수산업이 저급하다고 인식하고 있는 비율이란 앞서 논의된 사회계층 분류에 있어서 수산업을 중간이하의 사회계층에 속한다고 보는 비율을 나타내는 것으로 값이 클수록 수산업에 대한 사회적인 평가가 낮은 것으로 볼 수 있다. 수산업에 대한 사회적 인식이 가장 낮은 국가는 핀란드라고 할 수 있다.

④ 평균이란 앞의 값을 산술 평균한 값으로 수산업에 대한 사회문화적 평가 지수로 정의하였다. 이에 따라 동 지수의 값이 높을수록 여성들의 수산업의 참여가 어려운 것으로 볼 수 있다. 이에 따라 벨기에에서 여성의 수산업 참여는 덴마크나 아일랜드보다 매우 어려운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표 3-10>에 의하면 EU 13개국 평균을 보면 여성들의 수산업 참여에 있어서 외적인 여성차별보다는 내재적인 요인이나 사회적으로 수산업에 대한 낮은 평가 등이 훨씬 큰 장애요인으로 나타나고 있다.

한편 EU 회원국 전체적으로 남성대비 여성소득 비율과 남성대비 어업여성의 소득편차는 그리 크지 않은 것을 알 수 있다. 벨기에의 경우 대형 어선을 중심으로 어업의 비중이 매우 작아 여성들이 어업에 참여하는 것이 극히 제한되어 있기 때문에 벨기에의 여성어업인 소득 관련 자료가 미비한 것으로 나타났다(<표 3-11> 참조).

〈표 3-11〉 전체 남녀 평균임금 및 수산업에서 남녀 임금격차 비교

구 분	1995제조 및 서비스업 근로자 평균 소득(€)	여성어업인의 평균소득 (€/hour)	남성대비 여성 소득 비율(%)	남성 대비 여성의 어업소득비율(%)
벨기에	12.0	~	82	~
덴마크	15.6	14.2	87	85
핀란드	11.0	~	82	~
프랑스	10.2	~	80	~
독일	13.0	14.8	79	72
그리스	5.0	4.4	69	85
아일랜드	9.8	~	77	93
이태리	7.8	17.6	80	97
네덜란드	11.0	~	73	69
포르투갈	3.8	5.6	79	93
스페인	6.9	8.5	75	88
스웨덴	10.4	13.1	90	92
영국	8.7	~	77	91
평 균	10.3	~	79	88

자료 : MacAlister Elliott & Partners Ltd. 전계서 p.49.

## 2) EU 수산업에 있어 여성참여의 특징

수산업에서 여성의 고용문제와 관련하여 EU회원국의 경제, 사회, 문화적 차이를 다시 말해 회원국들의 다양한 경제사회적 배경에도 불구하고 수산업부문에 있어서 여성의 역할은 상당히 유사한 양상을 보이고 있다.

EU 회원국의 수산업에 있어 어로어업의 경우 여성들의 참여를 꺼리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는데 이를 개선시키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다만 자원관리나 환경보전과 같은 분야에 대해서는 여성들의 관심이 높아 향후에는 보다 많은 여성들의 참여가 이루어질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한편 양식업의 경우 여성고용 가능성 여부보다는 고용의 질이 문제가 되고 있다. 다시 말해 여성고용자들에 대한 직급과 향후 경력에 대한 전망 등의 문제가 중요한 사항이다. 이러한 질적인 사항이 보장되면 여성의 참여가 증가하

고 여성들의 경력 관리도 긍정적인 방향으로 이루어질 수 있게 된다. 수산물 가공업의 경우 여성의 관점에서 보면 직업이라기보다는 필요에 의한 참여로 볼 수 있다.

EU 회원국 수산업에 있어 여성참여 특징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이 정리할 수 있다.

첫째, 어로활동 또는 조업활동에는 여성은 배제되거나 최소한의 참여만 허락되고 있으나 양식업에 있어서는 상대적으로 여성의 참여율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다른 지역과 마찬가지로 유럽에서 여성이 조업활동에 직접 참여하는 비율은 매우 저조한데 이는 여성 자신도 조업활동의 참여를 꺼리고 사회적으로도 여성의 조업활동 참여를 꺼리기 때문인 것으로 판단된다.

또 조업활동과는 달리 양식업의 경우 여성들의 참여가 비교적 높은 편이어서 여성들도 양식기술이나 양식업경영에 대한 교육훈련에 대한 요구도 높아지고 있는 추세이다. 특히 지역을 기반으로 하는 경영(community based management)에 대한 활동과 훈련이 적절한 접근방법으로 보여지고 있다.

둘째, 수산가공업의 경우 미숙련 기술을 가진 여성의 참여가 높았는데 이는 수산식품 가공이 고난도의 기술이 필요하지 않은 점에 기인하는 것으로 사료된다. 그러나 수산가공분야에서는 여성에 대한 명백한 차별이 나타나고 있으며, 이러한 차별이 결국 여성들의 이 분야에의 참여를 감소시키는 주요한 요인이 되고 있다.

셋째, 수산경영이나 관리 부문에 여성들의 참여가 상대적으로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친환경적인 자원관리는 여성의 참여가 확대되어야 하는 주요 현안이어서 이에 대한 훈련이 집중되어야 한다. 또한 공공부문의 관리와 연구는 여성의 참여와 평등이 상대적으로 높은 부분이고 아마 미래에 가장 유망한 분야로 볼 수 있다.

넷째, 어업활동에 있어서 여성의 노동은 어로활동을 하는 배우자(남성)의 보조로서 매우 중요하지만 그에 대한 평가는 매우 낮은 것으로 나타나고 있는데 이는 수산업에서 여성의 상대적으로 낮은 지위를 잘 나타내고 있다. 연안지역

에서 여성의 역할은 남성의 보조자로서 매우 중요하다. 우선 인터넷 등을 활용한 정보교류를 개선하는데 도움을 주고 있고 공공 캠페인을 통한 어촌 등 지역사회 활동을 보조하고 있다. 또한 IT관련 기술관리에 관한 교육 및 훈련을 통해 가족형 사업에 있어서 인터넷 비즈를 담당할 수 있게 된다.

다섯째, 여성 어업인의 법적인 지위는 수산가공업의 경우 여성관련 노동권 및 조합법에 의해, 양식업의 경우는 여성평등에 관한 일반법 등에 의해 규정되고 있는데 이러한 관련법 등을 꾸준히 보완하고 있다. 다만 회원국별로 법률의 적용, 제도 및 법의 시행 방식은 다소 상이한 것으로 나타났다.

여섯째, 노동자 단체 또는 생산자 단체 등 단체조직에의 여성어업인의 가입은 프랑스를 제외하고는 남성과 같이 이러한 단체들에 가입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다만 지중해 연안국가에서는 여성어업인이 생산자 단체에 가입하는 비율이 낮은 것으로 나타났는데 이는 해당 단체 내에서 여성의 역할과 지위가 낮는데 주로 기인하는 것으로 보인다. 한편 전문 여성 어업단체는 아직 예외적인 경우로서 일부 지역에서만 결성되고 있으며, 프랑스의 경우 여성어업인이 노조나 생산자단체에 남성과 같이 가입한 사례가 없는 것은 전문여성 단체들이 성공적으로 발전했던 것과 관련이 있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한편 여성의 수산업부문의 참여와 관련한 문제점 및 장애요인은 다음과 같은 사회문화적 요인에 기인한다고 볼 수 있다.

첫째, 어로어업의 경우 여성들의 상당수가 소외되고 있는데 이는 노동 강도의 차이, 남녀혼성 어선원 구성의 사회적 문제 등의 실질적인 문제 외에도 여자는 운이 없다는 미신적 요소 등이 작용한 데 기인하는 것으로 사료된다.

둘째, 일반적인 여성의 취업에서도 장애요인으로 지적되고 있는 육아의 문제가 수산업 부문에의 활발한 여성 참여를 가로막는 장애요인인 것으로 조사되었다.

### 3. 일본의 어촌여성 정책사례

#### 1) 여성정책 수립을 위한 법제도

일본은 여성의 경제활동 및 사회진출이 증대하고 여성의 역할이 국가적으로 중요해짐에 따라 여성의 경제 및 사회 등 모든 활동과 관련하여 크게 두 개의 법률을 제정하였다. 하나는 1972년에 제정된 ‘고용분야에서남여의균등한기회및대우의확보등에관한법률’ (‘남여고용기회균등법’이라 함)이며, 다른 하나는 1999년에 제정된 ‘남여공동참획(参劃)사회기본법’이다. 특히 ‘남여공동참획사회기본법’은 모든 계획에 남여가 공동으로 참여하여 사회를 만들어가는 내용을 규정하고 있으며, 동법에 의한 남여공동참획사회형성은 21세기 일본사회를 결정하는 중요한 과제로 인식되고 있다.

##### (1) 남녀고용기회균등법

우리나라의 ‘남녀고용평등법’과 유사한 일본의 ‘남녀고용기회균등법’은 고용분야에서 남여 균등한 기회와 대우의 확보와 함께 여성노동자의 취업에 관하여 임신 중 및 출산 후의 건강확보를 위한 조치를 추진함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

이 법의 기본이념은 여성노동자가 성별에 의한 차별을 받지 않고, 모성이 존중되어 충실한 직업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을 기본이념으로 하고 있다. 그리고 사업주 및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이러한 기본이념에 따라 여성노동자의 직업생활이 충실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는 것이다.

‘남녀고용평등법’에서는 여성노동자의 취업에 관하여 배려해야 하는 조치로서 첫째, 사업주는 직장에서 성적인 언동으로 여성노동자의 노동조건에 불이익을 주거나 여성노동자의 취업환경이 침해됨이 없도록 고용관리의 필요한 조치를 해야 하며, 후생노동대신은 이와 관련하여 사업주가 배려해야 하는 사항에 대하여 지침을 정하도록 하고 있다.

둘째, 사업주는 여성노동자가 모자보건법의 규정에 의한 보건지도 또는 건강검진을 위해 필요한 시간을 확보할 수 있도록 노동시간의 변경, 근무경감 등의 조치를 취해야 하며, 후생노동대신은 이 조치와 관련하여 적절하고 유효한 실시를 위한 지침을 정하도록 하고 있다.

## **(2) 남녀공동참획사회기본법**

동 법제정 배경을 살펴보면 일본은 소자고령화(少子高齢化)의 진전, 국내 경제활동의 성숙화 등 일본 사회경제정세의 급속한 변화에 대응함에 있어 남녀가 서로의 인권을 존중하며 책임을 분담하고, 성별에 관련 없이 그 개성과 능력을 충분히 발휘할 수 있도록 남녀공동참획사회의 실현은 21세기 일본사회를 결정하는 가장 중요한 과제로 위치지우고, 사회의 모든 분야에서 남녀공동참획사회형성의 촉진에 관한 시책을 추진하기 위해 동 법을 제정하였다. 동 법은 특히 1995년 베이징에서 열렸던 제4차 세계여성대회에서 채택된 성주류화 전략을 실천하기 위하여 일본 국내법으로 수용한 것으로 볼 수 있다.

동 법의 특징을 살펴보면 남녀인권의 존중, 사회제도와 관행에 있어 남녀중립적 배려, 정책입안 및 결정에 공동참획, 가정생활 활동과 타 활동의 양립, 국제적 협조 등 국내 모든 분야에서 실질적인 남녀공동참획을 추진하고 동시에 국가의 책무,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국민의 책무를 언급하고 있다. 또한 남녀공동참획사회 형성촉진에 관한 기본계획(남녀공동참획기본계획)을 수립하여 시책 및 조치를 취하도록 하고 있다. 그리고 이와 관련 국가는 지방자치단체 및 민간단체에 대한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 **2) 어촌여성 관련 정책동향**

### **(1) 농산어촌에 있어 남녀공동참획 확립**

1999년에 제정된 ‘남녀공동참획사회기본법’에 의거한 ‘남녀공동참획기본



계획' 이 2001년에 책정되었는데 본 계획은 제1부 기본방침, 제2부 시책의 기본방향과 구체적 실시 그리고 제3부 계획의 추진 등 총3부로 구성되어 있다. 동 계획의 실시기간은 기본방향이 2010년까지이며, 구체적 시책은 2005년까지로 되어 있다.

특히 동 계획의 제2부 시책의 기본방향과 구체적 시책에는 전체 11개의 기본방향과 각각에 대한 구체적 시책을 제시하고 있다. 11개의 기본방향은 ① 시책·방침결정 과정에서의 여성참획 확대, ② 남여공동참획의 관점에서 사회제도·관행의 변화, 의식개혁, ③고용 등의 분야에서 남여의 균등한 기회와 대우 확보, ④ 농산어촌에서의 남여공동참획의 확립, ⑤ 남여의 직장생활과 가정·직장생활의 양립 지원, ⑥ 고령자가 안심하고 생활할 수 있는 조건정비, ⑦ 여성에 대한 모든 폭력의 근절 ⑧ 생애전반에 걸친 여성의 건강지원, ⑨ 대중매체에서의 여성인권의 존중, ⑩ 남여공동참획을 추진하여 다양한 선택을 가능하게 하는 교육·학습의 충실, ⑪ 지구사회의 「평등·개발·평화」에의 공헌 등이다.

이러한 11개 시책의 기본방향 중의 하나가 '농산어촌에서의 남여공동참획의 확립' 으로 그 내용을 요약 정리해 보면 다음과 같다.

#### ① 모든 장소에서 의식과 행동의 변혁

남녀를 불문하고 농림수산업·농산어촌의 담당자는 그가 가지고 있는 능력을 최대한 발휘하고 평가되어야 하며, 방침결정과정에 참획할 수 있는 사회를 만들기 위해서는 '개인' 으로서 주체성을 확보하고, 농산어촌의 가정과 지역사회에 존중하고 있는 고정적인 역할분담의식과 그에 기인한 관습·관행과 행동양식을 시정하는 등 모든 장소에서의 의식과 행동의 변혁이 필요하다.

이를 위해 농산어촌여성의 역할을 바르게 인식하고 적정한 평가 그리고 여성능력과 지위 향상을 위하여 「농산어촌여성의 날」(매년 3월 10일)을 활용하여 계발활동 등을 실시한다. 그리고 개인으로서의 주체성 확보, 성역할 분담의식의 시정, 사회적인 기운의 조성·고양, 조사연구·연수·통계조사 실시 등의 시

책을 추진한다.

## ② 정책·방침결정과정에서의 여성참획의 확대

여성의 참획을 획기적으로 높이기 위해서는 각 도도부현에서 책정하는 여성의 참획목표를 근거로 관계기관과의 연대 속에서 책정된 참획목표의 달성을 위한 체제정비를 지원함과 함께 계발활동을 추진한다. 정책·방침결정 과정에서의 여성참획의 확대, 학습회에 부부참가촉진 등 남녀쌍방에 대한 계발활동을 실시하고 동시에 시정촌에서도 참획목표책정과 그 달성을 위한 계발활동을 실시한다. 기타 남녀공동참획사회형성을 위하여 보급조직을 통한 활동을 전개한다.

## ③ 여성의 경제적 지위 향상과 취업조건·환경의 정비

경영부문에서의 여성역할을 적정하게 평가함과 동시에 여성이 스스로의 의사에 의해 경영 및 이와 관련되는 활동에 참획할 기회를 확보하기 위한 환경정비를 추진한다. 여성의 기술·경영관리 능력의 향상과 쾌적하게 일할 수 있는 조건을 정비하기 위한 시책을 추진한다.

지역활성화, 여성의 경제적 지위향상에 기여하도록 여성농어업자에 의한 기업(起業)활동을 지원한다. 지역활성화에 도움이 되는 기업가(起業家)의 육성을 추진하기 위하여 서구 선진국의 연수 등을 실시한다. 그리고 후계자가 창의적으로 일으킨 가공대책에 필요한 자금을 조성하여 여성기업을 위하여 우선적으로 지원한다.

## ④ 여성이 생활하기 좋고 활동하기 편한 환경 만들기

여성이 농림수산업·농산어촌에 취업·정주의 장점을 실감하고 다양한 삶의 방식이 가능할 수 있도록 생활하기 쉽고 활동하기 쉬운 환경 만들기를 추진한다. 여성의 주체적인 활동을 지원하는 노력조정 시스템 형성과 교류네트워크

형성을 위한 시책을 실시한다.

농산어촌의 여성이 살기 좋고 생기 넘치는 좋은 환경 만들기를 추진함과 동시에 농림수산업·농산어촌에 관심이 있는 도시사람이 취업·정주하기 좋은 환경 만들기를 추진한다.

또한 여성농어업자의 능력향상을 위한 연수 및 농어업경영, 가사, 육아 등으로 과중노동이 되는 출산·육아기의 여성농어업자에 대한 노동관리 및 여성 보호 등의 연수를 실시하였다.

그리고 소자녀화(少子女化)가 농산어촌사회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예측 및 소자녀화에 관한 우수사례 수집·보급으로 지역실정에 적합한 대처방안을 추진하고 있다.

#### ⑤ 고령자가 안심해서 활동하고 생활할 수 있는 조건의 정비

농산어촌의 여성은 농림수산업의 직업·가사·육아 등과 함께 고령자를 돌보는 경우가 많다. 또한 고령자를 돌보는 여성자신이 고령자인 경우가 많기 때문에 여성의 부담은 매우 크다.

농산어촌의 남녀가 평등한 입장에서 고령기를 안심해서 맞을 수 있는 환경을 정비해 가는 것이 중요하다. 고령자 생활지원체제의 정비, 고령자 활동의 추진, 노후의 자립 확보를 위한 각종의 사회보장제도 보급 등의 시책을 추진한다. 농산어촌고령자가 도시고령자와 함께 하는 지역 만들기 활동을 추진한다.

### (2) 수산청의 여성어업인 정책사례

#### ① 여성어업인 정책동향

남여공동참획사회기본법과 이에 근거한 국가 계획인 남여공동참획기본계획을 수산분야도 적용시키기 위하여 수산청은 ‘수산기본법’에 여성참여의 촉진(제23조)에 관한 내용을 규정하고 있다. 즉 국가는 남여가 사회의 대등한 구

성원으로서 모든 활동에 참가할 기회를 확보하는 것이 중요함을 감안할 때, 수산업에서 여성의 역할을 적절하게 평가함과 동시에 여성의 자발적인 의사에 의하여 수산업 및 이와 관련된 활동에 참가하는 기회를 확보하기 위한 환경정비를 추진한다.

그리고 ‘수산기본법’에 근거한 수산기본계획(2002년 3월 각의 결정)에 언급되어 있는 즉 수산업의 건전한 발전을 위하여 「어가경영에 있어 여성의 경제적 지위향상 및 역할을 명확히 하고, 여성의 수산업에 있어 그 역할을 적절하게 평가한다. 또한 여성 스스로 의사에 의해 수산업 및 이와 관련하는 활동에 참여하는 기회를 확보하기 위한 환경정비로서 어업협동조합 등의 활동에 참여목표 책정 및 그 달성을 위한 보급개발, 수산관련 활동에 필요한 정보제공 등을 추진한다」는 내용에 따라 다양한 시책을 추진하고 있다. 그리고 어촌여성에 의한 어업·수산물가공·판매 등의 경제활동은 어업경영 및 지역 활성화에도 기여하므로 이들의 기업적인 대책추진의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다.

따라서 어촌여성의 다양한 능력향상을 도모하기 위한 연수 및 활동 등을 지원하는 등 수산부문에서 여성활동의 참여를 위한 구체적인 환경정비 시책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첫째, 수산업개량보급직원을 통하여 여성어업자그룹에 의한 지역어획물의 고부가가치화 등의 연구·실천 활동을 추진하고, 어촌여성의 다양한 능력향상을 위하여 영어부(營漁簿)의 기장 및 경영분석을 위한 강습회, 이업종·타지역 그룹 등과의 교류학습회, 어업작업환경 등을 개선하기 위한 강습회 등의 개최하는 지원

둘째, 출산·육아기에 있는 여성의 경영참여이 가능하도록 모성보호를 위한 세미나개최, 지역에서 자녀교육상담체제구축을 위한 검토회 등을 실시함과 동시에 여성을 위한 시책 등에 관한 정보 제공

셋째, 여성어업자그룹이 실시하는 수산물가공 등을 위한 기구설치 등에 필요한 무이자자금(연안어업개선자금 중 부인·고령자활동자금) 조성 지원

넷째, 어촌여성 등의 기업화 그룹이 실시하는 수산물의 가공·판매 등의 사

## 업에 대한 지원

그리고 농림수산통계정보부에서는 수산업에 여성의 참획촉진에 관한 시책을 입안하기 위한 자료 및 각 지역에서 여성의 기업적(起業的) 활동을 촉진하기 위한 기초 자료의 제공 측면에서 어촌여성에 의한 자립적인 경제활동의 사례를 수집하여 책자로 발간<sup>4)</sup>하고 있다. 즉 어촌여성에 의한 경제활동을 테마로 어촌여성이 실시하고 있는 어업, 수산물가공, 판매 등의 경제활동사례를 정보수집하여 제공하고 있다. 2002년 11월 중순부터 2003년 1월 중순까지 약 2개월간 수집한 사례는 75사례이며, 정보수집사항은 경제활동주체개요, 경제활동상황, 활동개시경위, 해당활동을 개시함에 있어 필요한 비용과 구체적 용도, 구체적 활동내용, 노동조건, 활동효과 그리고 활동상의 과제와 필요한 지원책 등이다.

### ② 어촌여성기업적 활동지원 사업(중핵적어업자협업체등대책지원사업)

수산분야에서 여성의 참획을 촉진하기 위하여 ‘수산기본법’ 제23조에 근거하여 어촌여성기업적 활동에 대하여 지원사업을 2003년부터 실시하고 있다. 2005년 현재 지원받고 있는 어촌여성기업적 활동지원사업은 8건이며, 2008년까지 10건으로 사업지원을 늘리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어촌여성기업적 활동지원은 ‘중핵적어업자협업체등대책지원사업’으로서 이 사업의 목적, 지원대상요건 및 사업절차 등에 대한 개요는 다음과 같다.

#### 가. 중핵적 어업자 협업체 등 대책 지원사업의 목적

연안어업자의 대폭적인 감소와 고령화가 진행되는 과정에서 연안어업의 발전과 어촌의 활성화를 위하여 의욕과 능력이 있는 후계자를 적극적으로 확보·육성할 필요에 따라 어업경영 및 지역 활성화에 도움이 되는 어촌여성의 기업

4) 일본 농림수산통계정보부, 「바다의 은혜를 활용하여 우리들의 경영개선」(어촌여성에 의한 경제활동대책사례), 2003.

적(起業的) 활동에 대한 지원이 필요한 실정이다.

이를 위해 본 사업은 첫째, 청년어업자가 중심이 되어 어업경영개선을 위한 의욕적으로 활동하는 어업자 그룹(중핵적어업자협업체)이 실시하는 진보적·창조적인 대책, 그리고 둘째, 어업협동조합의 여성부(부인부)조직의 부원이 중심이 되어 기업적인 활동을 하는 그룹(어촌여성기업화그룹)이 실시하는 수산물의 가공·판매 등의 대책에 대하여 지원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사업실시기간 : 2003년~2007년, 사업주체 : 전어련, 보조율 : 1/2)

## 나. 지원대상의 요건

### 가) 어촌여성기업화그룹의 정의

어업협동조합의 여성부 또는 부인부조직의 부원이 중심이 되어 수산물의 판매, 가공 등의 기업적인 경제활동을 실시하는 어촌여성 등(어협여성부원과 어협여성부원이 아닌 그룹이 작성한 계획에 근거하여 활동하는 자)의 그룹, 단체 또는 법인으로 다음의 요건을 충족하는 것으로 한다.

- ~ 「경제활동계획」을 책정하여 도도부현의 인정을 받은 것
- ~ 자주적으로 조직된 그룹으로 10명 이상
- ~ 대표자 및 그룹의 절반이상은 어협여성부원

### 나) 대책계획의 책정과 도도부현에 의한 인정

어촌여성기업화그룹은 지역담당 보급원 및 어협 등에 의한 지도로(각 도도부현의 기본방침에 근거) 대책내용을 기재한 대략 5년간의 계획(「경제활동계획」)을 작성하여 지사에게 제출하여 인정을 받아야 한다.

### 다) 지원대상과 조성대상경비

도도부현지사의 인정을 받은 「경제활동계획」에 근거하여 어촌여성기업화그

룹이 각각 계획적으로 실시하는 다음의 대책에 대하여 지원한다.

첫째, 수산물의 가공·판매 등의 경제적인 대책에 관한 정보, 자료의 수집·분석, 기기·설비류의 구입, 개조 및 설치에 필요한 경비, 소모품·비품류의 구입, 지도사례금, 연수회개최 등에 소요되는 경비

둘째, 기타 평가위원회가 인정하는 의욕적인 대책

#### 라) 지원사업의 응모 절차

사업 응모에 대하여는 사업요망금액의 파악과 내용의 사전 확인을 위해 계획에 근거한 당해연도의 대책과 조성대상으로 하는 내용 등에 대하여 기재한 「○○년도 중핵적 어업자 협업체(어촌여성기업화그룹) 대책지원 사업의 개요」를 담당보급원 및 어업협동조합(이하 어협이라 함) 등에 의한 지도로 작성하여 어협, 어업협동조합도도부현연합회(이하 어련이라 함)을 경유하여 전국어업협동조합연합회(이하 전어련이라 함)에 제출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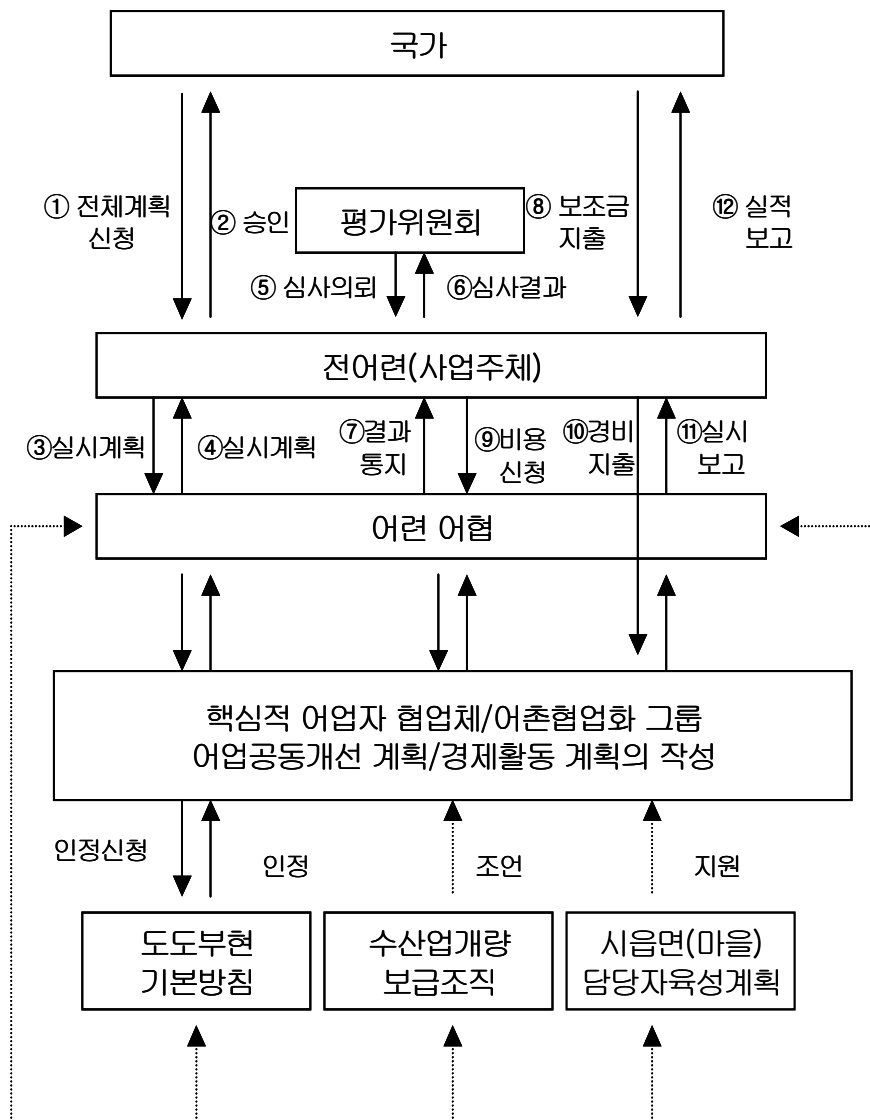
그 후 본 심사용으로 「사업실시계획서」를 작성하여 「그룹의 규약」, 지사의 인정을 받은 「어업공동개선계획」(경제활동계획)과 「인정서 사본」, 설치할 시설·기기류의 경비와 관련된 「견적서」와 「관리운영규정」 등을 첨부하여 어협, 어련을 경유하여 전어련에 제출한다.

#### 마) 사업내용의 심사 및 채택

전어련은 응모 마감 후 1개월 이내에 「평가위원회」(8인으로 수산관련 단체 임원, 어업자, 학식경험자로 구성됨)를 개최하여 각 대책내용에 대하여 다음의 점을 고려하여 심사한 후, 사업채택여부를 전어련에서 어련, 어협을 경유하여 당해 그룹에 통지한다.

일본 어촌여성기업화그룹 지원사업 실시절차를 도표로 나타내면 다음 <그림 3-1>과 같다.

〈그림 3-1〉 어촌여성기업화그룹 지원사업 실시절차





### (3) 전국어업협동조합의 어촌여성 대책과 여성부의 역할

#### 가. 전국어업협동조합의 어촌여성 대책

전국어업협동조합(이하 ‘전어련’ 이라 함)에서는 수산기본법 및 수산기본계획의 충실한 이행을 위하여 수산분야에서 여성참획의 촉진뿐만 아니라 어촌지역의 활성화 등을 고려하여 다양한 어촌여성 대책을 추진하고 있다. 이러한 전어련의 대책은 3가지 즉 자립을 지향하는 조직·사람만들기, 바다환경보전 그리고 수산물 소비확대의 측면에서 추진되고 있으며 그 내용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 가) 자립을 지향하는 조직·사람 만들기

##### ① 어업협동조합여성부의 리더 육성

그룹리더연구집회를 어업협동조합(어협이라 함) 여성부 리더학습과 정보교환의 장 제공으로 간주하여 어협여성부의 활동담당자를 육성한다.

##### ② 차기 리더의 육성

「프레쉬·미즈·프로그램」을 활용하여 젊은 어협여성부원을 초기단계에서 전국연수회 등에 참가하도록 하여 차기 여성부활동의 리더가 되도록 후계자를 육성한다.

##### ③ 생활설계 작성

어가의 경영안정을 도모하기 위해 라이프플랜 작성을 추진한다.

##### ④ 여성참획촉진

- 여성이 참여하기 쉬운 제도를 전어련 내 설치하도록 요청

- 어협합병계획단계에서 여성이 합병추진협의회 등에 참가하여 합병 후의 어협여성부 조직의 방향 및 역할 등에 대하여 어협과 토의하는 장을 확보하고 어협합병으로 어협여성부의 조직과 활동이 정체·축소되지 않도록 전어련에 요청, 또한 어협여성부에 소속어협에 요청하도록 지도

- 소속 어협이 합병할 때 관리위원 등의 위원에 여성을 등용하도록 각 어협 여성부가 소속 어협에 요청하도록 지도, 또한 이들 여성임원등용이 전국규모로 실시되도록 전어련 등에 요청

- 조합원자격의 요건이 적정하게 수행되지 않고 있는 경우에는 적정한 조치를 강구하도록 전어련 등에 요청

#### ⑤ 대화의 기회 만들기

어협전국여성연합이사는 여성의 목소리가 반영되도록 다음의 간담회 실시

- 수산청장관과의 간담회
- 전어련회장과의 간담회
- 합병어협조합장등과의 간담회
- 전국어청연임원과의 교류간담회 등

#### ⑥ 기업적 활동의 촉진

어협여성부원을 중심으로 구성되는 그룹의 기업적 활동을 촉진하는 지도를 실시하며, 행정과 함께 지원한다.

#### 나) 바다환경보전

바다환경을 지키고 다음 세대로 이어지게 하기 위하여 숲과 하천과 바다를 잇는 환경보전운동으로서 다음의 운동을 중심으로 추진한다.

### ① 천연비누사용추진운동

- 운동의 원점에 돌아와서 천연비누 ‘와까시오’의 안전성을 널리 홍보
- 또한 7월을 ‘천연비누사용추진월간’으로 정하여 비누의 사용촉진을 도모
- 전어련어정부와의 연대하여 비누사용촉진과 함께 「어촌의 생활환경개선 및 어촌활성화 추진회의」(수산정보조사업)를 개최하여 하수도폐수처리 등 어촌환경정비 조기실현 추진 노력

### ② 해변청소운동

- 전국어청연과의 전국 공동운동으로서 7월을 ‘바다의 날 기념하는 전국일제해변청소월간운동’으로 정하여 해변청소를 철저히 하도록 어협에 협력의뢰, 또한 쓰레기처리 등에 대하여 각 어협여성부가 소관시정촌에 대하여 활동지원 요청을 하도록 지도함과 동시에 도도부현수산주무부서에 활동지원 요청
- (사)바다와 바닷가환경비화추진기구(마린블루 21)가 실시하는 ‘청소년체험교육활동지원사업’ (해조오시바교실 및 해변청소)에 협력하여 주로 초등학교 등을 대상으로 바다환경보전에 대한 교육을 실시

### ③ 식수운동

어민의 숲만들기 활동 추진사업(수산정보조사업)을 활용하여 식수지역의 선정운동 등 지원

#### 다) 수산물 소비확대

전어련은 다음의 어협여성부의 활동을 지원하고 전국여성연 홈페이지 등을 활용하여 여성부 활동에 대한 홍보를 실시하고 있다.

### ① 활동비용의 일부 조성

각현의 어협여성연 활동지원을 위한 활동에 소요되는 비용의 일부 조성

## ② ‘어협전국여성연추장품’ (가칭)의 설정

각 어협여성부가 중심이 되어 가공·판매하는 상품을 홍보하기 위하여 ‘어협전국여성연추장품’ (가칭)을 설정하고 어협전국여성연홈페이지 등에서 홍보

## ③ ‘어촌에서 직접 만든 상품’ (가칭)의 홍보

어촌여성기업화그룹지원사업(수산정보조사업)을 활용하여 가공·판매하는 상품을 어협전국여성연홈페이지에서 ‘어촌에서 직접 만든 상품’ (가칭)으로 홍보하고 소비확대를 지원

## ④ 위생관리 철저

소비자에게 ‘안전과 안심’ 을 전하기 위하여 위생관리의 철저에 노력하며, 전어련어정부와 연대하여 연수회 개최

## 나. 어협여성부의 활동

### 가) 연혁

일본에서 어협부인부(현 여성부)가 탄생한 것은 1950년대로 어업부진으로 어촌여성이 빈곤에서 탈출하기 위하여 저축추진운동을 시작한 것이 계기였다. 이렇게 하여 각 지역에서 결성된 어협부인부가 횡적 연대로서 도도부현어부연(도도부현어협여성연합회)이 되고, 1959년에 전어부연(현 JF전국여성연)이 설립되었다. 1960년대에 부인부에서는 가계부기장을 통하여 어가생활개선대책에 큰 역할을 하였다. 또한 시대의 변화에 부응하여 어선해난유아를 독려하는 모금활동, 어패류 소비를 위한 어식보급활동, 생활의 장인 바다를 지키는 비누사용추진 등의 환경보전운동에 관여해 오고 있다. 이렇게 해서 어촌에서 부인부가 없어서는 안 되는 존재가 되었다고 할 수 있다.

## 나) 주된 활동과 역할

### ① 정보교환

생활 및 살림에 도움이 되는 정보 교환, 정기적인 국내외 연수회 및 시찰을 통하여 정보, 체험을 쌓고 서로 교환을 통하여 시너지 효과를 올리고 있다.

### ② 지역 활성화에 기여

바다환경을 지키기 위해 해변청소 및 합성세제대신에 비누사용추진운동 등의 실천, 산에 나무를 심는 식수활동을 통하여 숲과 하천과 바다를 잇는 환경보전에도 노력, 또한 어선해난유아를 지원하는 모금운동을 하는 등 지역활성화에 적극적으로 대처하고 밝고 살기 좋은 어촌 만들기에 힘쓰고 있다.

### ③ 어식보급 추진

여성부의 일은 대부분 어업과 관련되어 있으며, 특히 생선소비는 매우 중요하며 이를 위해 여성부에서는 생선을 알리는 요리교실을 열고, 생선요리를 책으로 만들어 제공하고 있다. 또한 아침시장에 참가하고, 새로운 가공품을 만들기에도 도전하여 소비확대에 노력한다.

### ④ 도시주민 등 타 지역과 교류

어촌의 좋은 점을 알리기 위해 도시의 어린이를 초대하여 체험학습을 실시하고, 타 지역 초등학교에 가서 조리실습을 하는 등 도시 및 타 지역과의 교류에도 힘쓰고 있다.

### ⑤ 지역의 결속과 친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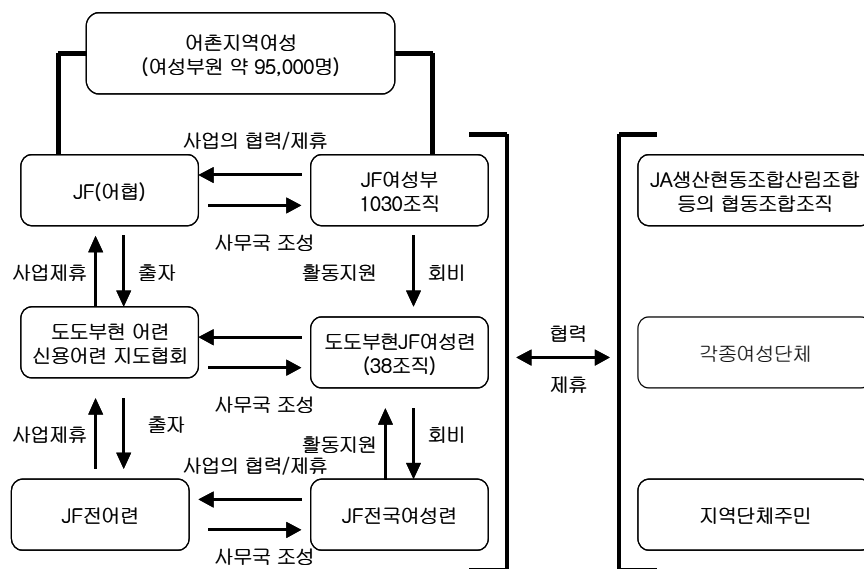
여성부는 항상 지역의 결속을 소중히 여기고 즐거운 활동에 심혈을 기울인

다. 여성부원이 모여서 수예, 다도, 꽃꽂이, 댄스 등 여러 교실을 열어 즐거운 취미생활 및 레크리에이션을 하며 또한 여행 및 가라오케 대회 등 친목을 소중히 한다.

## ⑥ 타 여성그룹과 교류

어협이 여성부는 지역내 여성그룹과 함께 이벤트를 개최하는 등 많은 사람과의 교류를 통하여 활동범위를 넓히고자 한다.

〈그림 3-2〉 일본 전어련 여성부 현황 및 활동



## 제4장

### 어촌여성의 노동실태분석

#### 1. 어업·어촌의 현황과 어가여성의 노동력구조<sup>5)</sup>

##### 1) 어업·어촌의 현황

###### (1) 어가인구의 감소 및 구성변화

어가수 및 어가인구의 변화추이를 살펴보면 2004년 현재 어가수는 1980년에 비해 54% 규모로, 어가인구는 1980년에 294,928명에서 209,855명으로 28.9% 규모로 축소되었다. 어가인구의 감소가 어가수의 감소보다 급격하게 진행되었음을 알 수 있다. 그러나 이러한 감소추세는 2000년 이후 다소 둔화되고 있는 것으로 집계되었다(〈표 4-1〉 참조).

어가인구의 어업종사현황을 살펴보면 2004년 전체 어가인구의 58.3%가 어업에 종사하고 있으며, 어업종사가구원 역시 어가수 및 어가인구와 마찬가지로 1980년에 비해 41.5%로 감소되었다.

그리고 어가인구의 성별비율을 살펴보면 1980년 이후 거의 변함없이 남녀 각각 50% 정도의 구성비로 집계되어 어가인구의 성별에 있어 변화를 발견할 수 없다.

그러나 연령별 어가인구의 구성에는 변화가 발생하였다. 연령별 여성어가인구의 분포를 살펴보면 1980년에는 15세 미만의 여성어가인구가 가장 많은 비

5) 어촌여성은 구체적으로 어가여성을 의미하며, 경우에 따라서는 여성어업인도 포함됨. 따라서 통계자료에 의한 분석이 가능한 어가여성의 노동력구조를 살펴봄으로서 어촌여성의 노동실태를 파악하도록 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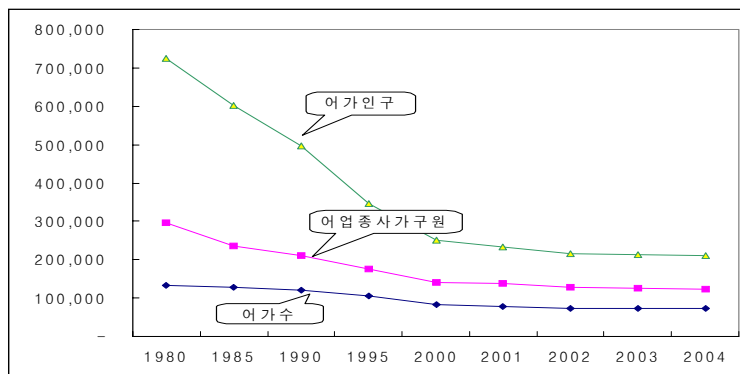
〈표 4-1〉 어가수와 어가인구수의 변화추이

단위 : 가구, 명, %

연 도	어가수	어가인구	남성	여성(여성비율)	어업종사가구원
1980(a)	134,109	725,314	371,287	354,027(49)	294,928
1985	126,800	602,237	301,701	300,536(50)	236,637
1990	121,525	496,089	248,839	247,250(50)	211,753
1995	104,480	347,210	171,793	175,417(51)	176,123
2000	81,571	251,349	126,775	124,574(50)	139,837
2001	77,717	234,434	117,025	117,409(50)	136,869
2002	73,124	215,174	107,688	107,486(50)	127,694
2003	72,760	212,104	106,384	105,720(50)	125,023
2004(b)	72,513	209,855	105,362	104,493(50)	122,385
b/a(%)	54.1	28.9	28.4	29.5	41.5

자료 : 통계청, 「어업기본통계조사보고서」, 각년도.

〈그림 4-1〉 어가수·어가인구의 감소



중을 차지하고 있었다. 그러나 2004년에는 50대 여성이 타 연령에 비해 많은 비중을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표 4-2〉 참조).

그리고 연령별로 여성어가인구의 변화추이를 살펴보면 1980년에 비해 2004년 현재 50대까지는 감소하고, 60대 이상은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나 어가여성의 노령화가 진행되고 있음을 알 수 있다(〈그림 4-1〉 참조). 어가의 여성인구



가 1980년에는 15세 미만, 10대, 20대의 순으로 많았으나 2004년에는 50대, 40대 그리고 70세 이상의 순으로 많은 것으로 집계되어, 어가여성인구의 연령구성에 변화가 일어났음을 알 수 있다.

〈표 4-2〉 연령별 여성어가인구의 변화추이

단위 : 명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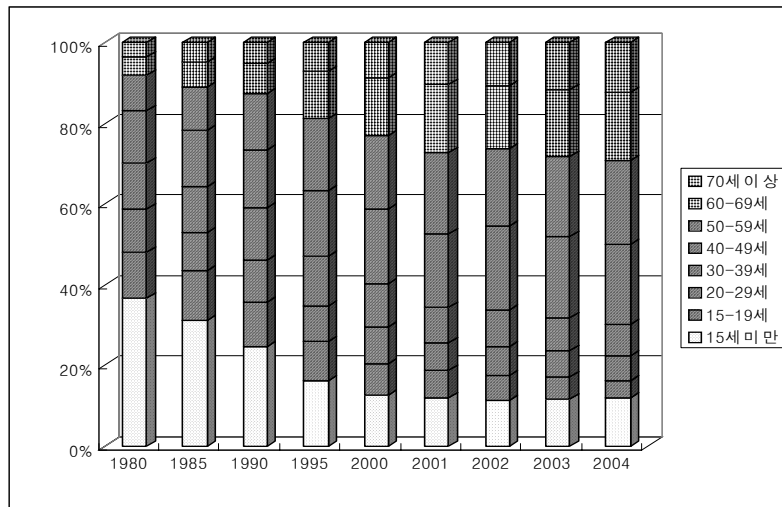
연 도	15세미만	15-19세	20-29세	30-39세	40-49세	50-59세	60-69세	70세이상	합 계
1980(a)	129,547	40,580	38,212	39,430	46,632	30,896	16,428	12,302	354,027
1985	93,928	36,470	28,457	34,281	42,123	32,589	18,613	14,075	300,536
1990	60,834	27,724	25,618	31,719	35,240	34,548	18,510	13,057	247,250
1995	28,461	17,095	15,551	21,512	28,472	31,450	20,249	12,627	175,417
2000	15,778	9,755	11,455	13,169	23,098	22,811	17,542	10,966	124,574
2001	14,084	7,980	7,987	10,339	21,542	23,531	19,764	12,182	117,409
2002	12,233	6,581	7,836	9,528	22,357	20,669	16,702	11,581	107,486
2003	12,326	5,727	6,991	8,676	21,342	20,697	17,630	12,332	105,720
2004(b)	12,385 (11.9)	4,465 (4.3)	6,625 (6.3)	8,173 (7.8)	20,585 (19.7)	21,687 (20.8)	17,774 (17.0)	12,798 (12.4)	104,493 (100%)
b/a	9.6	11.0	17.3	20.7	44.1	70.2	108.2	104.0	29.5

자료 : 통계청, 「어업기본통계조사보고서」, 각년도.

특히 젊은 어촌여성 중 15~19세, 20대, 30대의 여성이 전체 어가여성인구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타 연령층에 비해 각각 10% 미만으로 낮는데 이는 학업, 직장생활, 결혼 등으로 출타했기 때문이다.

한편 남성어가인구의 경우 연령별 변화추이를 살펴보면 여성어가인구와 비슷한 양상으로 고령화현상이 나타나고 있다(〈표 4-3〉 및 〈그림 4-3〉 참조). 2004년 연령별 남성어가인구의 구성을 살펴보면 15-19세가 학업 등으로 외지에 나가있어 그 구성비가 가장 낮은 수준에 머무르고 있다. 그리고 70세 이상 남성은 15~19세 다음으로 낮은 6.3%의 구성비를 나타내고 있는데 이는 동일 연령대의 여성어가인구의 절반 수준 정도로 어가의 남성수명이 어가의 여성수명보다 짧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다.

〈그림 4-2〉 연령별 여성어가인구의 구성변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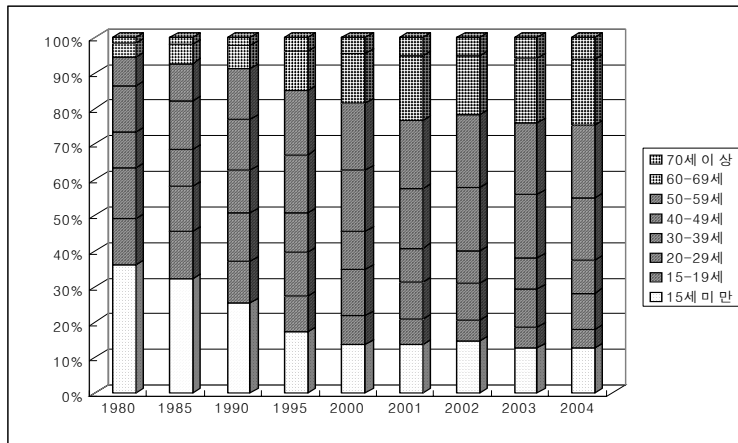
〈표 4-3〉 연령별 남성어가인구의 변화추이

단위 : 명

연 도	15세미만	15-19세	20-29세	30-39세	40-49세	50-59세	60-69세	70세이상	합 계
1980(a)	133,944	47,812	53,049	37,721	47,386	30,484	14,862	6,029	371,287
1985	96,604	40,329	38,363	31,533	41,220	31,402	16,202	6,048	301,701
1990	62,800	29,618	33,851	29,828	35,232	35,337	16,092	6,081	248,839
1995	29,832	17,313	20,846	19,172	27,957	30,769	19,151	6,753	171,793
2000	17,341	10,142	16,641	13,384	21,961	23,653	17,988	5,665	126,775
2001	15,943	8,540	12,126	11,102	19,512	22,483	21,033	6,286	117,025
2002	15,943	6,514	11,307	9,732	19,616	22,319	17,887	5,895	107,688
2003	13,593	6,251	11,138	9,337	18,928	21,590	19,132	6,415	106,384
2004(b)	13,417	5,541	10,655	9,727	18,313	21,523	19,493	6,692	105,362
	(12.7)	(5.3)	(10.1)	(9.2)	(17.4)	(20.4)	(18.5)	(6.3)	(100%)
b/a(%)	10.0	11.6	20.1	25.8	38.6	70.6	131.2	111.0	28.4

자료 : 통계청, 「어업기본통계조사보고서」, 각년도.

〈그림 4-3〉 연령별 남성어가인구의 구성변화



이상의 분석을 통하여 지난 25년 동안 어가수, 어가인구, 어업종사가구원은 지속적인 감소로 그 규모가 크게 축소되었으며, 젊은 세대가 감소하고 고령세대가 증가하는 고령화현상의 일반화 등 어촌인구의 인구학적 특성을 파악할 수 있었다. 그리고 특히 15~19세 및 20대의 젊은 여성이 차지하는 비중이 특별히 낮은 것으로 집계되어 이러한 젊은 여성의 감소가 어촌남성의 결혼대상 부족의 한 원인임을 알 수 있다.

## (2) 영어(營漁)구조의 변화

어가가 어업을 영위하는 영어구조를 전업과 겸업, 종사어업형태 그리고 양식장과 어선톤급별 규모의 측면에서 분석하고 그 변화를 살펴보고자 한다.

우선 어가가 어업에만 종사하는 전업이나 또는 어업 이외에 다른 산업에도 종사하는 겸업 형태이나에 관한 현황 및 변화추이를 나타낸 것이 〈표 4-4〉이다. 전업·겸업비율은 어가가 어느 정도 어업에 의존하는가를 나타내는 어가의 어업의존지표이기도 하다.

어가의 전·겸업별 변화추이를 살펴보면 1980년에 어업에만 종사하는, 즉 어업소득에만 의존하는 전업어가가 20,813가구, 16%의 비중에서 2004년에는

23,580가구, 33%의 비중으로 각각 증대하였다. 그러나 최근 전업어가수 및 전업비율은 2003년 이후 감소경향을 나타내고 있다(〈그림 4-4〉 참조).

반면에 겸업어가 및 겸업비율은 1980년 이후 지속적으로 감소하다가 2003년부터 증가추세로 바뀌었다. 특히 어업소득보다 타 업종 소득이 많은 제2종 겸업의 증가추세가 두드러지고 있다.

전업어가와 제1종 겸업어가는 어업소득에 대한 의존도가 높는데 어가의 어업의존도가 1980년에 66%였던 것이 2004년에는 73%로 증가하였다. 그러나 어가의 어업의존도는 2002년 최고 79%에 달했으나 2003년 이후 감소경향을 나타내고 있다. 그러나 2004년 현재 어업의존도가 73%로 여전히 어가의 어업에 대한 의존도는 매우 높은 편이라고 할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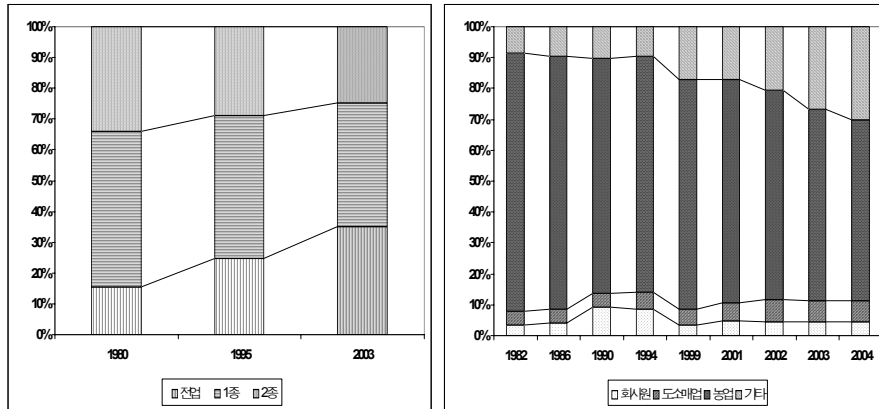
〈표 4-4〉 전·겸업별 어가수의 변화추이

단위 : 가구

연 도	계	전 업	겸 업		
			소계	제1종	제2종
1980	134,109 (100%)	20,813 (16%)	113,296 (84%)	67,901	45,395
1985	126,800 (100%)	22,112 (17%)	104,688 (83%)	70,149	34,539
1990	121,525 (100%)	28,051 (23%)	93,474 (77%)	55,510	37,964
1995	104,480 (100%)	26,016 (25%)	78,464 (75%)	48,455	30,009
2000	81,571 (100%)	29,699 (36%)	51,872 (64%)	29,233	22,639
2001	77,717 (100%)	19,926 (26%)	57,792 (74%)	33,299	24,492
2002	73,124 (100%)	28,267 (39%)	44,858 (61%)	29,442	15,417
2003	72,760 (100%)	25,424 (35%)	47,337 (65%)	29,255	18,083
2004	72,513 (100%)	23,580 (33%)	48,933 (67%)	29,519	19,414

자료 : 통계청, 「어업기본통계조사보고서」, 각년도.

〈그림 4-4〉 전·겸업별 어가구성비 〈그림 4-5〉 겸업분야별 어가구성비



그리고 겸업분야에는 제조업, 도소매업, 농업, 기타산업 등이 있으며 이 중에서 농업을 겸업으로 하는 어가의 비중이 가장 높다. 겸업별 어가의 변화추이를 살펴보면 기타분야의 겸업어가만이 지속적으로 증대하였고 대부분의 겸업어가는 감소하였으며(〈표 4-5참조〉) 특히 농업분야에서 급격한 감소를 나타내고 있으며 이러한 겸업분야별 어가의 구성비가 변한 것을 나타내는 것이 〈그림 4-5〉이다.

〈표 4-5〉 겸업분야별 어가수의 변화추이

단위 : 가구

연도	계	제조업 <sup>1)</sup>	도소매업	농업	기타
1982	105,410	3,558	4,827	87,824	9,201
1986	103,984	4,224	4,707	85,168	9,885
1990	93,474	8,569	4,085	71,248	9,572
1994	86,225	7,279	4,876	65,753	8,317
1999	74,185	2,591	3,816	55,091	12,687
2001	57,792	2,792	3,316	41,813	9,871
2002	44,858	1,952	3,320	30,322	9,264
2003	47,337	2,151	3,247	29,327	12,611
2004	48,933	2,128	3,406	28,570	14,829

주 : 1) ○ 1982~1989년 : 사무직만 포함.  
 ○ 1990~1994년 : 사무직, 생산직 포함.  
 ○ 1996~1997년 : 사무직, 생산직, 제조업종사자 모두 포함.  
 ○ 1998년~ : 제조업종사자로 한정, 다른 회사원은 기타에 포함.

자료 : 통계청, 「어업기본통계조사보고서」, 각년도.

〈표 4-6〉 어업형태 종사가구의 변화추이

단위 : 가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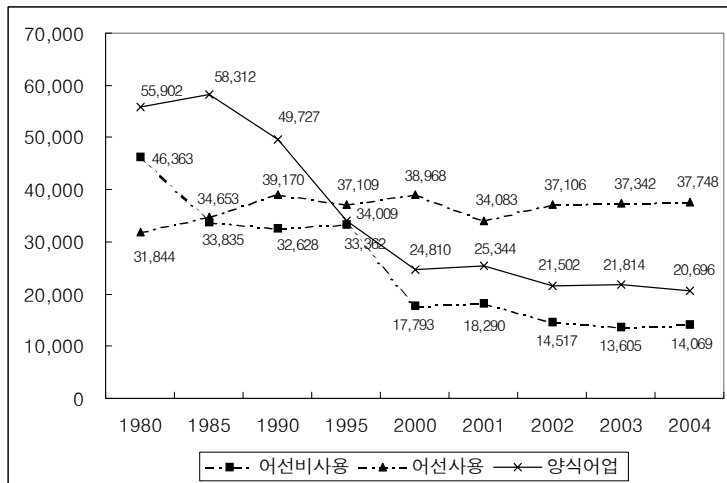
연 도	합 계	어선비사용	어선사용	양식업
1980(a)	134,109 (100%)	46,363 (35%)	31,844 (24%)	55,902 (42%)
1985	126,800 (100%)	33,835 (27%)	34,653 (27%)	58,312 (46%)
1990	121,525 (100%)	32,628 (27%)	39,170 (32%)	49,727 (41%)
1995	104,480 (100%)	33,362 (32%)	37,109 (36%)	34,009 (33%)
2000	81,571 (100%)	17,793 (22%)	38,968 (48%)	24,810 (30%)
2001	77,717 (100%)	18,290 (24%)	34,083 (44%)	25,344 (33%)
2002	73,124 (100%)	14,517 (20%)	37,106 (51%)	21,502 (29%)
2003	72,760 (100%)	13,605 (19%)	37,342 (51%)	21,814 (30%)
2004(b)	72,513 (100%)	14,069 (19%)	37,748 (52%)	20,696 (29%)
b/a(%)	54.1	30.3	118.5	37.0

자료 : 통계청, 「어업기본통계조사보고서」, 각년도.

다음으로 어가가 종사해온 어업분야의 변화추이를 살펴보면 전체 어업종사가구가 1980년 대비 2004년에는 54% 정도로 감소되었으며, 어선비사용어업부문과 양식업부문에서도 같은 기간 동안 각각 30%, 37%규모로 축소되었다. 그러나 어선사용어업부문에 종사하는 어가는 1980년 대비 2004년에 오히려 5,904가구, 118%로 증가하였다(〈표 4-6〉 참조).

그리고 2004년 현재 어업형태별 어업종사가구의 분포를 살펴보면 어선사용어업어가 52%, 양식업어가 29%, 어선비사용어업어가 19%의 순으로 집계되어 어선사용어업에 종사하는 어가가 압도적으로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1980년에는 양식업종사가구가 42%로 가장 많았고, 그 다음으로 어선비사용 어업, 어선사용어업 순으로 종사가구가 많았다. 이러한 추세가 1990년대 초반까

〈그림 4-6〉 어가의 종사어업형태 변화



〈표 4-7〉 어업형태별 종사원의 변화추이

단위 : 명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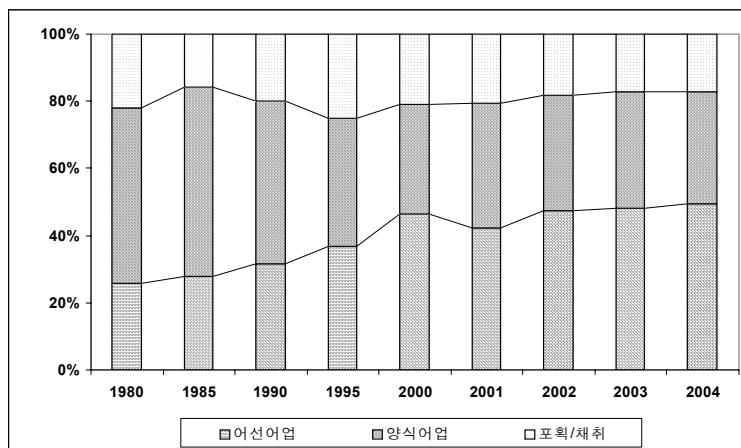
연 도	계	어선어업	양식어업	어선비사용		
				소 계	나잡·맨손어업 <sup>1)</sup>	기타어로
1980	294,928 (100%)	75,788 (26%)	154,630 (52%)	64,510 (22%)	-	-
1985	236,637 (100%)	65,950 (28%)	133,147 (56%)	37,539 (16%)	-	-
1990	211,753 (100%)	67,100 (32%)	102,530 (48%)	42,123 (20%)	11,229	30,894
1995	176,123 (100%)	64,973 (37%)	66,709 (38%)	44,441 (25%)	10,338	34,103
2000	139,837 (100%)	64,993 (46%)	45,450 (33%)	29,394 (21%)	7,125	22,269
2001	136,869 (100%)	57,718 (42%)	50,795 (37%)	28,355 (21%)	7,477	20,878
2002	127,694 (100%)	60,498 (47%)	43,916 (34%)	23,279 (18%)	22,755	524
2003	125,023 (100%)	60,348 (48%)	43,272 (35%)	21,403 (17%)	21,222	181
2004	122,384 (100%)	60,699 (50%)	40,609 (33%)	21,076 (17%)	20,829	247

주 : 1) 2001년까지 맨손어업이 기타로 구분되었으나, 2002년부터 나잡·맨손어업으로 구분.  
 자료 : 통계청, 「어업기본통계조사보고서」, 각년도.

지 지속되다가 1995년을 경계로 어선사용어업어가 양식업종사가구를 초월하면서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하게 되었고 또한 어선사용어업어가는 꾸준히 증가하다가 2002년도에 50% 이상을 점하게 되었다(〈표 4-6〉, 〈그림 4-6〉 참조).

어가의 종사어업형태가 지난 25년 동안 양식업중심에서 어선사용 즉 어선어업중심으로 전환되었으며, 이로 인해 어업형태별 종사원에도 변화가 일어났다. 1980년에는 양식업 종사원이 전체 어업종사원의 52% 비중으로 가장 많았으나, 2004년에는 어선어업의 종사원이 50%로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하는 것으로 집계되어(〈표 4-7〉 참조), 어업별 종사원의 구성 비율이 〈그림 4-7〉과 같이 바뀌었다.

〈그림 4-7〉 어업형태별 종사원 구성비 변화



마지막으로 생산수단을 통하여 어가의 영어구조를 파악할 수 있는데, 어업의 중요 생산수단이라 함은 양식업에서는 양식장이며, 어선어업에서는 어선이라 할 수 있다.

〈표 4-8〉에서 2004년도 양식장 면적 규모별 어가분포 현황을 살펴보면 1ha 미만의 어가가 전체 어가의 약 52%의 비중으로 절대 다수를 차지하고 있으며,



양식장규모가 커질수록 종사하는 어가는 적어지는, 양식장규모와 종사어가수는 반비례하는 구조를 갖고 있다.

1990년 이후 양식장 규모별 어가수의 변화추이를 살펴보면 6~10ha, 10~20ha의 어가수는 1990년에 비해 2004년에는 각각 1.3배, 1.1배로 증가한 것으로 집계되었으나(〈표 4-8〉 참조) 6~10ha의 어가수는 2001년 이후 증가하고 있지만, 10~20ha의 어가수는 감소추세에 있다는 점에서는 서로 다른 양상을 나타내고 있다.

양식장 면적 규모별 어가의 변화추이를 통하여 1ha 미만 소규모 영세양식어가 전체 구성비에서 차지하는 비율이 높아지고, 동시에 비교적 대규모라 할 수 있는 6~10ha 양식장의 어가수 및 구성비율이 증가하는 양식업어가에서 양극화현상이 나타나고 있다. 향후 이러한 양극화 현상이 계속 진행되어 고착화 될 것인가 아니면 일시적 현상으로 그칠 것인가는 좀 더 기다려 보아야 할 것 같다.

〈표 4-8〉 양식장 면적 규모별 어가수 변화추이

단위 : 가구

연 도	계	1ha미만	1~3ha	3~6ha	6~10ha	10~20ha	20ha이상
1990(a)	57,165 (100%)	24,034 (42.0)	22,791 (39.9)	7,630 (13.3)	1,560 (2.8)	832 (1.5)	318 (0.6)
1995	43,718	22,016	12,358	5,740	1,997	1,184	423
2000	28,704	14,805	7,417	3,601	1,373	1,219	289
2001	32,164	17,467	7,060	4,021	1,525	1,638	453
2002	26,502	12,306	6,790	4,128	1,594	1,244	440
2003	27,003	12,518	6,830	4,222	1,618	1,347	468
2004(b)	26,862 (100%)	13,836 (51.6)	5,845 (21.8)	3,953 (14.7)	2,027 (7.5)	915 (3.4)	286 (1.1)
b/a(%)	47	58	26	52	130	110	90

자료 : 통계청, 「어업기본통계조사보고서」, 각년도.

한편 1980년부터 2004년까지 동력선 톤수 규모별 어가수 변화추이를 살펴보면 10톤 미만의 연안어선은 큰 신장세를 보이는 반면에 10톤 이상의 중대형 근해 어선의 경우는 대폭적인 감소추세로 양극화현상을 나타내고 있다(〈표 4-9〉 참조). 이러한 근해어선의 대폭적인 감소에는 그동안 유엔해양법 협약의 발효에 따른 우리나라 인근 및 공해어장의 축소로 경영이 악화된 근해어선의 감척사업이 한 몫을 했다고 볼 수 있다.

최근 해양수산부가 연안어선에 대하여도 감척계획을 수립하고 예산 등을 확보하여 곧 시행하고자 하므로 향후 연안어선의 어가수는 줄어들 것으로 전망된다.

〈표 4-9〉 동력선 톤수 규모별 어가수 변화추이

단위 : 가구

연 도	계	2톤미만	2~5톤	5~10톤	10~20톤	20~50톤	50~100톤 <sup>1)</sup>	100톤이상
1980(a)	17,507 (100%)	5,020 (28.6)	6,633 (37.9)	2,286 (13.1)	1,692 (9.7)	973 (5.6)	903 (5.2)	-
1990	63,117	40,635	15,500	3,556	1,324	1,015	840	247
1995	53,327	31,071	15,161	4,321	888	980	688	218
2000	47,184	25,032	14,916	4,845	1,045	746	473	127
2001	45,793	27,919	12,915	3,487	634	592	245	-
2002	45,604	23,390	14,762	5,533	858	916	145	-
2003	44,340	22,461	14,493	5,459	912	766	249	-
2004(b)	45,232 (100%)	22,792 (50.4)	14,221 (31.4)	6,182 (13.7)	942 (2.1)	821 (1.8)	274 (0.6)	-
b/a(%)	258	454	214	270	56	84	30	-

주1) : 1980년, 2001~2004년의 경우 100톤이상 어선 미분류로 50~100톤에 포함.

자료 : 통계청, 「어업기본통계조사보고서」, 각년도.

### (3) 어가소득의 구조변화

어가소득은 어업소득, 어업외소득 및 이전소득의 합계로 구성되는데 어가소득의 변화추이를 살펴보면 1980년도 어업소득 67.5%, 어업외소득 32.5%이었던 것이 1995년도에는 어업소득 50.3%, 어업외소득 32.3%, 이전소득 17.4%, 2003년도에는 어업소득 45%, 어업외소득 36% 그리고 이전소득이 19%로 그

구성비가 변화된 것을 알 수 있다. 그 변화란 어가소득 중에서 어업소득의 비중은 감소하는 반면, 어업외소득과 이전소득은 증가라는 어가소득을 구성하는 구조에 변화가 발생한 것이다(〈표 4-10〉, 〈그림 4-8〉 참조).

〈표 4-10〉 어가소득의 변화추이

단위 : 천원, 가구

구 분	1980 (a)	1985	1990	1995	2000	2003 (b)	b / a (%)
어가소득	2,596 (100%)	4,869	10,023	18,780 (100%)	18,875	23,916 (100%)	921
어업소득	1,752 (67.5)	2,815	5,217	9,437 (50.3)	10,078	10,741 (44.9)	613
어업조수입	3,090	6,047	10,367	17,153	18,508	23,114	748
어업경영비	1,338	3,232	5,151	7,715	8,430	12,373	925
어업외소득	844 (32.5)	2,054	3,192	6,075 (32.3)	5,313	8,619 (36)	1021
농업소득	313	866	1,897	3,185	2,583	2,388	763
기타겸업소득	79	179	302	791	798	1,110	1405
사업외소득	451	1,009	992	2,100	1,932	4,443	985
이전소득	-	-	1,614	3,268 (17.4)	3,484	4,556 (19.1)	
가처분소득	2,500	4,601	9,973	18,683	18,695	20,147	805
가계비	1,998	3,607	7,072	13,139	15,058	20,019	1002
조세공과금	-	47	50	97	181	298	
분가지출	47	14	147	119	156	-	
어가경제잉여	456	979	2,754	5,425	3,480	3,897	855

주 : 1) 가처분소득=어가소득-조세공과금.

2) 어가경제잉여=가처분소득-가계비-분가지출.

3) 가계비중축도=가계비/어가소득\*100.

4) 평균소비성향=가계비/가처분소득\*100.

자료 : 어업총조사, 어가경제통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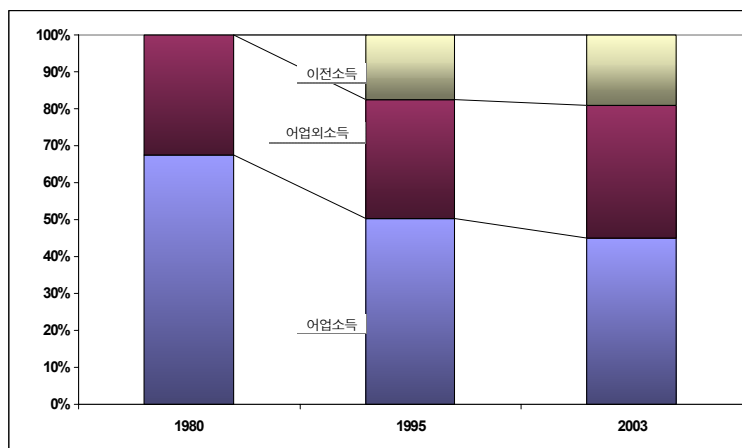
어가소득 중에서 차지하는 어업소득 비중의 감소는 어가의 어업의존도(어가 소득 중 어업소득이 차지하는 비중)를 저하시키게 되는데 이러한 어업소득 비중의 저하는 어업경영비가 대폭 증가하였기 때문이다. 또한 어업외소득 중에서 기타겸업소득과 사업외소득이 큰 폭으로 상승한 것도 어업소득의 비중을

상대적으로 저하시키는 이유가 되고 있다.

향후 이러한 어업소득의 비중은 국내외 어업여건 변화로 더욱 감소할 것으로 전망되며 어업소득감소의 대체방안으로 어업외소득의 증대를 통한 총소득을 향상시키고자 하는 어가의 노력은 일시적인 현상이 아닌 구조화될 것으로 예상된다.

따라서 향후 어촌사회에서는 어가의 소득유지 또는 증대를 위하여 어업외소득원의 개발이 시급한 과제이며 동시에 수산물의 부가가치를 높이는 등 어업소득증대를 위한 다각적인 방안이 강구되어야 할 것으로 사료된다.

〈그림 4-8〉 어가소득의 구성비변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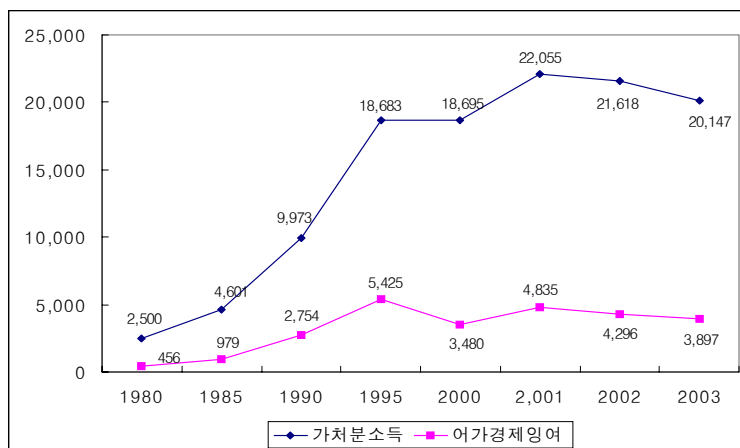


어가소득의 변화추이를 통하여 나타나는 또 다른 특징으로 가처분소득과 어가경제잉여의 감소를 들 수 있다. 가처분소득이란 어가소득에서 조세공과금을 제외한 자유롭게 처분할 수 있는 소득을 의미한다. 어가경제잉여는 어가소득에서 조세공과금, 가계비 그리고 분가지출 등 어가의 모든 지출을 제외한 소득으로 자산형성 또는 저축 등 어가의 부 축적으로 직접 이어지는 소득이라고 할 수 있다.

〈표 4-10〉에 나와 있는 가처분소득 및 어가경제잉여의 변화추이를 살펴보면, 가처분소득의 경우 1980년 대비 1995년에 647%, 동 기간에 어가경제잉여는 1090% 증대하였다. 1995년 대비 2003년도에 가처분소득은 8%포인트 정도 소폭 증가하였으나, 어가경제잉여는 오히려 28%포인트의 감소를 나타내고 있다.

그리고 가처분소득은 계속 증대하여 2001년에 최고 정점에 이르고 그 이후 감소하는 경향을 나타내고 있다. 반면에 어가경제잉여는 1995년까지 지속적으로 증가하였으며, 1995년 이후 대폭적인 감소에서 2001년에 약간 회복하였으나 그 이후 계속 감소하고 있다(〈그림 4-9〉 참조).

〈그림 4-9〉 가처분소득과 어가경제잉여의 변화



가처분소득 및 어가경제잉여의 감소는 열악한 어가경제생활을 판단하고 나타내는 척도이자 지표라고 할 수 있다. 특히 이러한 현상은 2000년 이후 두드러지게 나타나고 있는데 1995년 대비 2003년 어가소득의 증가율은 27%인 반면 가계비는 동 기간 중 52%나 증가하여 어가경제를 어렵게 하는 원인 중의 하나로 가계비의 상승을 들 수 있다.

## 2) 어가여성의 노동력 구조

### (1) 학력 등 인적자본

2004년 어가여성의 교육정도는 초등학교 졸업이하가 59%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지만, 고등학교 졸업이상이 25.9%로 점차 증가하고 있으며 대학이상의 고학력자도 6.1%를 차지하고 있다(〈표 4-11〉 참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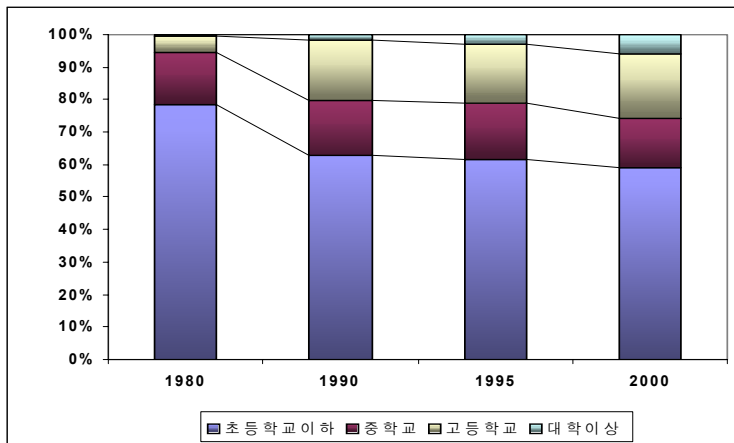
그리고 어가여성의 학력 변화추이를 살펴보면 1980년에 비해 2004년에는 초등학교 졸업 이하가 34.6%, 중학교 졸업이 44.2%로 감소하였으나 고등학교 졸업 189%, 대학 이상의 교육이수는 1,251%로 증가하여 어가여성에게 있어 고학력화 추세가 진전되고 있다. 따라서 인적자본의 측면에서 어가여성의 질적 성장이 이루어지고 있음을 알 수 있다.

〈표 4-11〉 어가여성의 교육정도별 변화추이

단위 : 명

연 도		합 계	초등학교이하	중학교	고등학교	대학이상
1980	계	460,807	313,505	104,186	41,714	3,434
	남	237,343	136,789	67,312	30,337	2,905
	여(a)	223,464	176,716	36,874	11,377	529
		(100%)	(79.1)	(16.5)	(5.1)	(0.2)
1990	계	372,455	195,799	77,868	87,231	11,557
	남	186,039	78,429	46,685	52,681	8,244
	여	186,416	117,370	31,183	34,550	3,313
1995	계	288,917	147,943	62,215	67,007	11,752
	남	141,961	57,541	36,544	40,268	7,608
	여	146,956	90,402	25,671	26,739	4,144
2000	계	218,230	106,374	40,136	54,432	17,278
	남	109,434	42,033	23,843	32,889	10,659
	여(b)	108,796	64,341	16,293	21,543	6,619
		(100%)	(59.1)	(14.9)	(19.8)	(6.1)
b/a(%)			34.6	44.2	189.4	1,251.2

〈그림 4-10〉 어가여성의 교육정도 구성



## (2) 취업구조

1980년 이후 20년간 어가여성의 취업구조를 살펴보기 위하여 성별 어가인구의 종사분야 변화추이를 제시한 것이 〈표 4-12〉이며, 어업부문과 비어업부문으로 구분하여 성별 종사원의 구성비를 통하여 전체 어가인구 및 어가여성의 취업구조를 파악할 수 있다. 동시에 성별 어가인구의 종사분야 변화추이를 통하여 어가여성의 취업구조 변화를 알 수 있다.

2000년 현재 15세 이상 어가의 경제활동인구 218,230명 중 163,938명이 어업 및 비어업분야에 종사하고 있어 어가의 경제활동비율 즉 취업률은 75%에 이르고 있다. 어가인구의 취업률은 1980년 96%였던 것이 1990년 83%, 1995년 69%로 감소하다가 2000년에 다시 약간 증가추세를 나타내고 있다. 이러한 어가인구의 취업률 증가는 어업부문 취업자의 증가에 기인하는 것으로 분석된다 (〈표 4-12〉 참조).

〈표 4-12〉 성별 어가인구의 종사분야의 변화추이

단위 : 명

구 분			1980(a)	1990	1995	2000(b)	b/a	
주 종 사 분 야	15세 이상 어가인구		725,314	372,455	288,917	218,230	30.1	
	합 계		699,522 (100%)	308,690	200,064	163,938 (100%)	23.4	
	어업부문	소 계	294,928 (42.2)	108,049	83,052	102,387 (62.4)	34.7	
		남	168,303 (24.1)	55,629	42,022	59,528 (36.3))	35.4	
		여	126,625 (18.1)	52,420	41,030	42,859 (26.1)	33.8	
	비 어 업 부 문	소 계		404,594 (57.9)	200,641	117,012	61,551 (37.6)	15.2
		남		194,291 (27.8)			29,431 (17.9)	15.1
		여		210,303 (30.1)			32,120 (19.7)	15.3
		농 업	소 계	242,182	156,088	99,426	41,721	
			남	125,849	-	-	19,334	
			여	116,333	-	-	22,387	
		도·소매업 (서비스업)	소 계	5,919	6,724	4,316	2,300	
			남	3,525	-	-	602	
			여	2,394	-	-	1,698	
		제조업 (상공업)	소 계	10,409	18,192	650	1,373	
			남	5,354	-	-	744	
			여	5,055	-	-	629	
		기타산업	소 계	146,084	19,637	12,620	16,157	
			남	59,563	-	-	8,751	
			여	86,521	-	-	7,406	
		가사,학생, 군인, 무직등	소 계	-	-	-	54,292	
			남	-	-	-	20,475	
			여	-	-	-	33,817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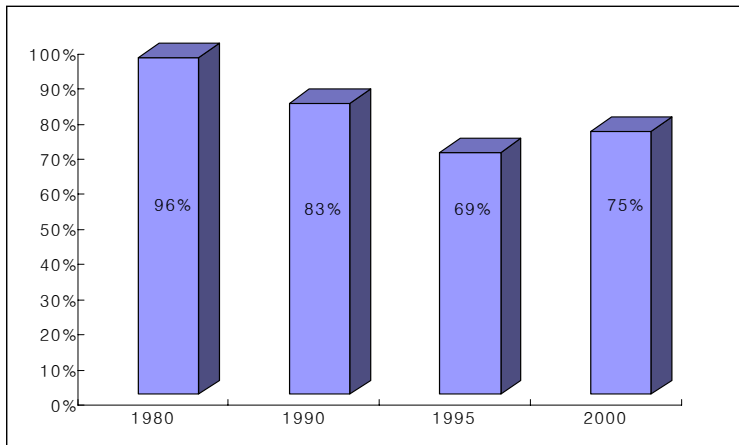
주 : 1) 1980년 어가인구는 전체 어가인구임.

2) (서비스업), (상공업) 분류는 1980년도에 한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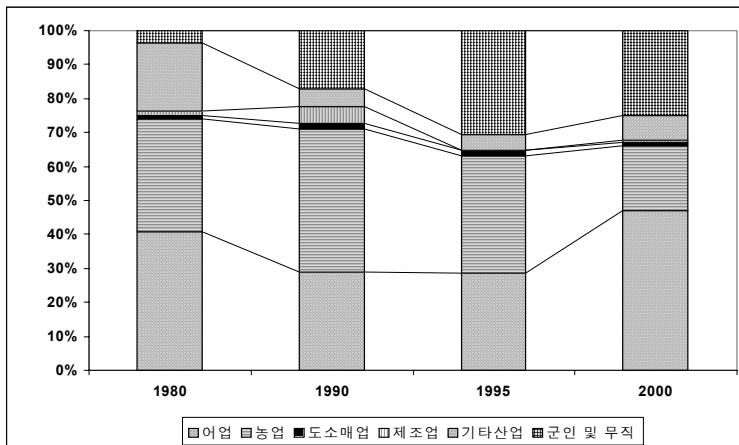
자료 : 어업총조사, 어업기본통계.



〈그림 4-11〉 어가인구의 취업률 변화



〈그림 4-12〉 어가여성의 주종사 분야 변화



어가여성의 취업구조 또한 크게 어업부문과 비어업부문으로 구분해서 살펴볼 수 있는데 우선 2000년도 어업부문의 여성취업자는 1980년의 33.8% 규모로 감소하였지만, 1995년과 비교해 보면 2000년에는 오히려 증가하는 추세에 있다고 할 수 있다.

반면에 비어업부문에는 농업, 도·소매업, 제조업 그리고 기타 산업 등이 있

는데 이들 비어업 산업분야에서 활동하고 있는 2000년도 어가여성은 1980년 대비 15.3%의 수준으로 감소하였으며, 특히 농업에서 활동하던 어가여성이 급격하게 감소한 것으로 집계되었다.

이러한 분석을 통하여 어가여성의 취업구조의 특징을 간단히 요약하면 어업 부문에 종사하는 어가의 여성종사자는 증가하고 있으나, 비어업부문의 어가여성종사자는 점점 줄어들어 어가여성의 주종사 분야가 비어업부문에서 어업부문으로 바뀌었다는 점이다.

### (3) 어업부문에서의 여성노동력

어업부문에 종사하고 있는 여성은 1980년 43%의 비중을 차지하고 그 이후 지속적인 증가를 보이다가 2001년 48%를 최고로 그 이후 감소경향에 있지만, 2004년 현재 어업부문 여성종사원은 46%로 1980년보다는 3%정도 그 비중이 높은 것으로 집계되었다(〈표 4-13〉 참조).

또한 여성어업종사원의 변화추이를 살펴보면 1980년 대비 2004년에는 약 44%로 감소하였지만, 같은 기간 남성어업종사원이 39%로 감소한 것보다는 감소율이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표 4-13〉 어업부문의 여성종사원 변화추이

단위 : 명, %

연 도	어업종사가구원	남성	여성	여성비율
1980(a)	294,928	168,303	126,625	43
1985	236,637	135,826	100,811	43
1990	211,753	118,648	93,105	44
1995	176,123	94,136	81,987	46
2000	139,837	76,188	63,647	46
2001	136,869	70,851	66,017	48
2002	127,694	69,666	58,027	45
2003	125,023	67,870	57,153	46
2004(b)	122,385	66,381	56,004	46
b/a(%)	41.5	39.4	44.2	-

자료 : 통계청, 「어업기본통계조사보고서」, 각년도.

연령별 여성어업종사원의 변화추이를 살펴보면 1980년에는 20대 이하가 차지하는 비중이 24%였던 것이 2004년에는 1%대로 급격한 감소를 나타내고, 반대로 60세 이상은 10%에서 32%로 급격한 증가를 보이고 있다(〈표 4-14 참조〉). 특히 2004년의 경우 50대 이상의 여성종사원이 전체의 64%를 차지하여 여성어업 노동력의 고령화가 앞으로 심각한 문제로 대두될 것으로 전망된다.

〈표 4-14〉 연령별 여성종사원 변화 추이

단위 : 명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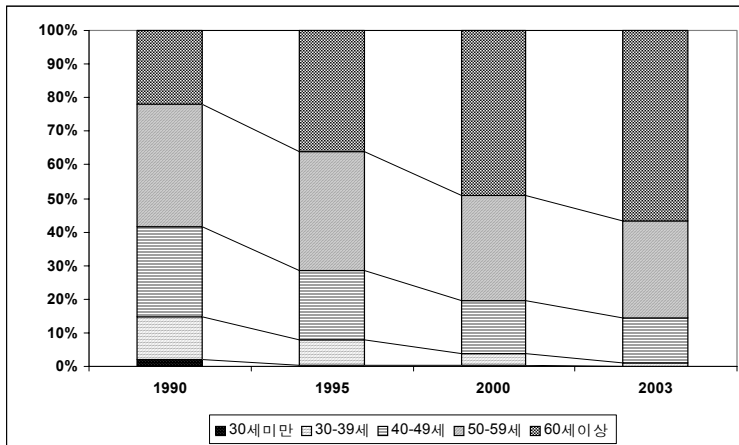
연 도	15~19세	20~29세	30~39세	40~49세	50~59세	60~69세	70세이상	계
1980	9,765 (8%)	20,461 (16%)	28,006 (22%)	34,238 (27%)	21,475 (17%)	9,171 (7%)	3,509 (3%)	126,625 (100%)
1985	1,280 (1%)	12,914 (13%)	23,776 (24%)	31,434 (31%)	22,298 (22%)	8,325 (8%)	784 (1%)	100,811 (100%)
1990	383 (0%)	7,549 (8%)	21,091 (23%)	26,149 (28%)	25,790 (28%)	12,143 (13%)	-	93,105 (100%)
1995	97 (0%)	2,525 (3%)	14,600 (18%)	21,705 (26%)	25,105 (31%)	17,955 (22%)	-	81,987 (100%)
2000	123 (0%)	1,519 (2%)	8,353 (13%)	17,492 (27%)	18,650 (29%)	13,826 (22%)	3,686 (6%)	63,647 (100%)
2004	62 (0%)	441 (1%)	4,332 (8%)	15,032 (27%)	17,577 (31%)	14,082 (25%)	4,478 (8%)	56,004 (100%)

자료 : 통계청, 「어업기본통계조사보고서」, 각년도.

여성어업경영주의 현황을 살펴보면 2004년 현재 전체 어업경영주 72,760명 중 여성어업경영주는 13,140명, 약 18%의 비중을 차지하고 있으며, 1990년도에 비해 비중은 약간 감소한 것으로 집계되었다. 그리고 여성어업경영주는 1990년 23,510명에서 2003년에는 13,140명으로 감소하였으며, 약 40%의 감소를 나타내고 있다(〈표 4-15〉 참조).

그리고 여성어업경영주의 연령별 분포를 살펴보면 2003년의 경우 60세 이상이 약 57%의 비중을 차지하여 압도적으로 많으며, 그 다음으로 50대가 29%의 비중을 차지하여 특히 50대 이상의 비중이 86%로 여성어업경영주에 있어 고

〈그림 4-13〉 연령별 여성어업경영주의 구성변화



〈표 4-15〉 여성 어업경영주의 변화추이

단위 : 명

구 분		1990(a)	1995	2000	2003(b)	b/a(%)
성 별 · 연 령 별  어 업 경 영 주	합 계	121,525(100%)	104,480(100%)	81,571(100%)	72,760(100%)	59.9
	남	98,015(80.7)	81,846(78.4)	66,586(81.6)	59,620(81.9)	60.8
	여	23,510(19.3)	22,634(21.6)	14,985(18.4)	13,140(18.1)	55.9
	남	계	98,015(100%)	81,846	59,620(100%)	
		30세미만	3,428(3.5)	1,080	267(0.4)	7.9
		30~39세	21,416(21.8)	12,293	4,355(7.3)	20.3
		40~49세	29,921(30.3)	23,859	16,257(27.3)	54.3
		50~59세	29,728(30.3)	20,851	19,297(32.4)	64.9
		60세 이상	13,522(13.8)	18,514	19,445(32.6)	143.5
	여	계	23,510(100%)	22,634	13,140(100%)	
		30세미만	445(1.9)	100	12(0.0)	2.7
		30~39세	3,006(12.8)	1,701	126(0.1)	4.2
		40~49세	6,316(26.9)	4,639	1,747(13.3)	20.5
		50~59세	8,536(36.3)	7,998	3,809(28.9)	44.6
		60세 이상	5,207(22.1)	8,196	7,447(56.7)	143.0

자료 : 어업총조사, 어업기본통계.

령화 문제가 심각하다고 할 수 있다.

여성어업경영주가 1990년에는 40대 미만이 9,767명, 약 42%의 비중을 차지하고 있었으나 2003년에는 40대 미만이 1,885명, 14%의 비중으로 젊은 여성어업경영주의 감소 및 비중 감소는 여성어업경영주의 노령화문제와 함께 양질의 여성어업경영주의 확보와 육성애로 등의 또 다른 문제를 불러일으키고 있다.

## 2. 어가여성의 노동실태와 정책수요

앞 절에서는 통계자료의 시계열분석을 통한 어가여성의 노동력구조와 그 변화를 중심으로 살펴보았다. 여기에서는 어가여성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하여 어가여성의 노동실태와 관련 정책수요를 파악하고자 하였다. 이 설문조사를 통하여 어가 및 어촌여성이 어업노동의 참여에 있어 걸림돌 또는 문제점을 분석하고 이를 해결하기 위한 방안으로 관련 정책수요를 도출하고자 한다.

여성에 있어 노동이란 경제활동에 의한 임금노동뿐 아니라 출산, 양육 및 가사노동이라는 무임금의 재생산노동 또한 여성이 담당해야 하는 주된 노동이므로 어가여성의 노동실태조사와 동시에 재생산노동에 대한 간단한 실태도 함께 조사하였다.

### 1) 설문조사개요

#### (1) 표본추출 및 표본의 지역별 분포

전국 450개 표본어가를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통하여 어가여성의 노동실태를 분석하고자 하였다. 표본어가 선정방법은 전국의 어가를 모집단으로 하여 지역을 고려한 층화 후 무작위 추출된 어가를 선택하는 층화임의추출법을 활용하였다.

〈표 4-16〉 표본추출 개요

구 분	내 용
모 집 단	전국의 어가
표본크기	450가구(유효표본)
표본추출방법	지역을 고려한 층화후 무작위추출법
표본오차	±2.5%(신뢰수준 95%)

450개 표본의 전국 분포를 살펴보면 전남 120표본(26.7%), 경남 125표본(27.8%), 경북 58표본(12.9%), 강원 56표본(12.4%), 충남 57표본(12.7%), 제주 34표본(7.6%)으로 각 도별로 세부 지역을 1-3개로 구분하여 표본을 추출하였다<sup>6)</sup>. 이들 세부 지역 내에서는 어촌계를 대상으로 표본을 추출하는 방법을 택하였다.

〈표 4-17〉 표본의 지역별 분포현황

구 분		표 본 크 기	비율 (%)
전남	소 계	120	26.7
	진도	38	8.4
	완도	48	10.7
	고흥	34	7.6
경남	소 계	125	27.8
	남 해	42	9.3
	통 영	50	11.1
	거 제	33	7.3
경 북	포 항	58	12.9
강 원	강 릉	56	12.4
충 청	소 계	57	12.7
	서 산	31	6.9
	태 안	26	5.8
제 주	소 계	34	7.6
	북제주	28	6.2
	남제주	6	1.3
전 체		450	100.0

6) 어업세력이 약하고 연구예산의 한계로 경기도와 전북의 어가는 설문조사대상에서 제외.

## (2) 조사방법 등

조사방법은 면접원의 직접 방문에 의한 1:1 개별면접(Face-to-face Personal Interview)방식이며, 이를 위해 구조화된 설문지(Structured Questionnaire)를 만들었다.

설문조사는 민간 조사기관인 (주)코리아데이터네트워크에 의뢰하여 2005. 7. 18 ~ 7. 26까지 8일에 걸쳐 실시했다.

## (3) 설문조사내용

본 연구의 주된 내용이 어가여성의 노동실태파악인 만큼 조사표에 그 내용을 담고자 하였으며, 조사표 내용은 <표 4-18>과 같다. 조사표는 가구별 일반 현황, 어업종사현황, 어업경영에 있어 의사결정관여도, 어업 및 가사노동시간, 생활만족도, 경제생활전망, 복지관련 실태, 그리고 정책수요 등의 영역에서 총 48개의 문항으로 이루어져 있다.

설문은 대부분 문항선택으로 되어 있으며, 특히 정책수요에 대하여는 주관 식인 자유기입형식을 취하고 있다.

<표 4-18> 조사표 내용

구 분	조 사 항 목
일반사항	연령, 학력, 가족수, 가족형태, 연간평균소득
노동실태	종사기간, 종사어업종류, 겸업실태, 하루평균노동시간 어업작업 및 경영의사결정, 어업노동정체성, 어업노동참여정도, 어업노동만족도, 어업노동시 어려운 점, 컴퓨터 이용현황
가사노동과 생활만족도	가사노동부담정도, 가사노동역할분담, 여가시간현황, 생활만족도, 향후 경제생활전망, 소득충족도, 충수입기여도
복지 실태	노후부양, 건강, 보호노동 및 보육시설, 건강상태 및 건강검진실태, 노후생활대책, 연금가입현황, 관광 및 문화행사참여현황
정책수요	단체 및 조직가입 현황, 관련제도 인지 및 시설이용현황, 필요정책 및 시설수요, 여성전문인력 요건, 여성노동에 적합한 시설개선

## 2) 일반 사항과 가구특성

조사대상의 인구학적 특성을 살펴보면 연령별로는 50대 36.5%, 40대 29.8%, 60대 18.9%의 순으로 많으며, 학력은 초등학교 졸업자가 45.6%, 중졸 25.1%, 고졸 19.6%, 전문대졸 이상이 2.9%의 분포를 나타내고 있다. 특히 조사대상 어가여성의 학력수준은 2000년도 어업총조사의 어가여성 학력수준보다 높은 것으로 집계되었다(〈표 4-19〉 참조).

조사대상 어가의 일반적 특성을 살펴보면 가족수가 2명 가구 28.7%, 4명 가구 25.8%의 비슷한 수준으로 많으며, 5명 이상 가구가 22.7%, 3명 가구 18.2% 등 다양하게 분포하고 있다. 가족구성의 형태를 살펴보면 부부와 자녀로 구성된 가족구성이 48.2%로 가장 많고, 부부만의 가족형태가 27.6%로 그 다음으로 많은 구성비를 나타내고 있다. 부모자녀로 이루어진 2대의 핵가족 가구가 전체의 50.4%, 조부모부모자녀로 이루어진 3대 가족형태가 14%로 자녀와 함께 동거하는 가족형태가 전체의 64.4%로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

조사대상 어가의 연간소득은 1,200만원 이하가 약 32.9%로 가장 많고, 2,400만원 이상 29.5%, 1,800-2,400만원 20%, 1,201-1,800만원 16%의 순으로 분포해 있다. 이 결과에 따르면 조사대상어가 평균소득은 전국 어가평균소득보다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즉, 2003년 전국 어가평균소득이 23,916,000원 수준임에 비해 조사대상가구 중 2,400만원 이상 소득을 얻는 어가는 약 30%이며, 1,800만원 이하가 약 49%로 나타났다.

조사대상 어가의 어업종류를 살펴보면 어선어업 47.8%, 양식업 45.3%, 기타 해녀 6.9%의 비율로 분포되어 있으며, 양식업 중에는 패류양식과 해면어류양식이 비교적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



〈표 4-19〉 조사대상 일반사항 및 가구특성

구 분			응답자(명)	비 율(%)
연 령	20대		6	1.3
	30대		46	10.2
	40대		134	29.8
	50대		163	36.2
	60대		85	18.9
	70대 이상		16	3.6
학 력	초 졸		205	45.6
	중 졸		113	25.1
	고 졸		88	19.6
	전문대졸		8	1.8
	대졸이상		5	1.1
	무 학		31	6.9
가족 수	1명		21	4.7
	2명		129	28.7
	3명		82	18.2
	4명		116	25.8
	5명		59	13.1
	6명 이상		43	9.6
가 족 형 태	본 인		22	4.9
	부 부		124	27.6
	부부+자녀		217	48.2
	본인+자녀		10	2.2
	부모+부부+자녀		63	14.0
	부부+손자/녀		14	3.1
연 간 소 득	1,200 만원 이하		148	32.9
	1,201-1,800 만원		72	16.0
	1,801-2,400 만원		91	20.2
	2,401-3,000 만원		59	13.1
	3,001 만원 이상		74	16.4
	무응답		6	1.3
어 업 종 류	어선어업		215	47.8
	양 식 업	소 계	204	45.3
		해조류	44	9.8
		해면어류	72	16.0
		패류	85	18.9
		육상	2	0.4
	종묘배양 및 중간육성양식		1	0.2
	기 타 (해녀)		31	6.9
합 계			450	100

### 3) 어업노동실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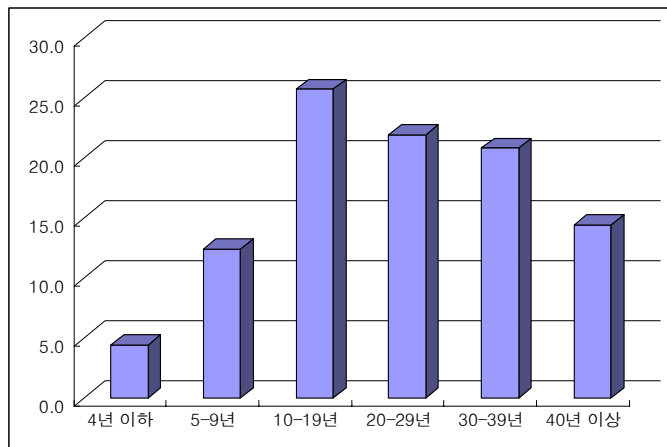
#### (1) 어업종사기간 및 참여형태

조사대상 어가여성의 어업종사기간을 살펴보면 10년 이상이 전체의 83.2%, 10년 미만은 16.8%로 대부분의 어가여성이 어업에 종사한 기간은 10년 이상의 장기간이라고 할 수 있다(〈표 4-20〉 참조). 이는 조사대상자의 연령구조에서 40대 이상이 전체의 88.5%임을 감안한다면 당연한 결과라 할 수 있다.

〈표 4-20〉 어업종사기간

구 분	응답자	비율 (%)
4년 이하	20	4.4
5-9년	56	12.4
10-19년	116	25.8
20-29년	99	22.0
30-39년	94	20.9
40년 이상	65	14.4
합 계	450	100.0

〈그림 4-14〉 어업종사기간의 분포현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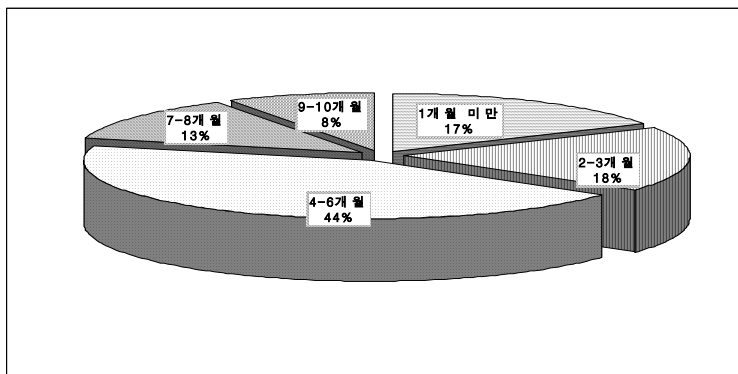
어업종사에는 어떠한 형태로 참여하는가에 대한 설문에서 ‘특정기간에만 일시적으로 어업일을 한다’가 51.3%, ‘일년 내내 어업일을 계속한다’는 48.7%로 약간의 차이가 있지만 거의 비슷한 수준으로 집계되었다.

특정기간에 일시 어업에 종사한다고 하지만 연간 종사기간을 살펴보면, 3개월 미만 35.1%, 4개월 이상 65%, 7개월 이상 20.8%로 4개월 이상 어업일을 하는 어가여성이 많은 것을 알 수 있다(〈그림 4-15〉 참조).

〈표 4-21〉 어업일 참여 형태

구 분	응답자	비율 (%)
특정 기간에만 일시적으로 어업 일을 한다	231	51.3
일년 내내 어업일을 계속한다	219	48.7
합 계	450	100.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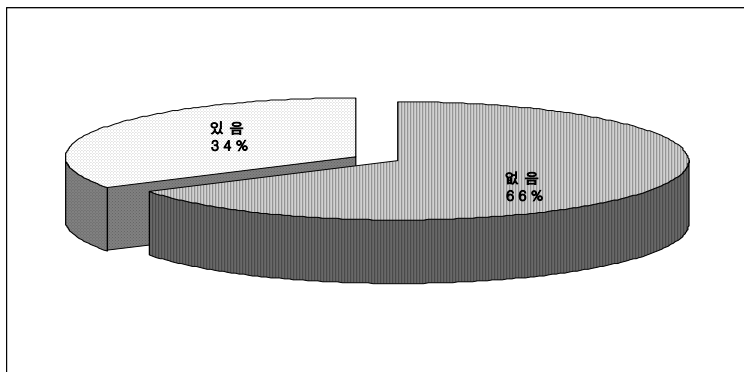
〈그림 4-15〉 연간 종사기간(특정기간 일시적 종사)



그리고 어업외 수입이 있는 타 업종 종사여부 조사결과, 전체 조사대상 450명 중 151명, 34%가 어업 이외 수입이 있는 일, 즉 겸업을 하고 있는 것으로 집계되었다. 이러한 겸업의 종류를 살펴보면 농사, 식당·포장마차, 굴박신작업, 자영업, 축산, 농촌품앗이, 청소업, 낚시용품점, 생선판매, 회사원, 품팔이, 화장품 방문판매, 민박 등 다양하다. 이중 농사가 전체의 64%로 가장 많은 것

으로 집계되어 어촌에서의 겸업으로 여전히 농업이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음을 보여준다.

〈그림 4-16〉 어업이외 타 업종 종사여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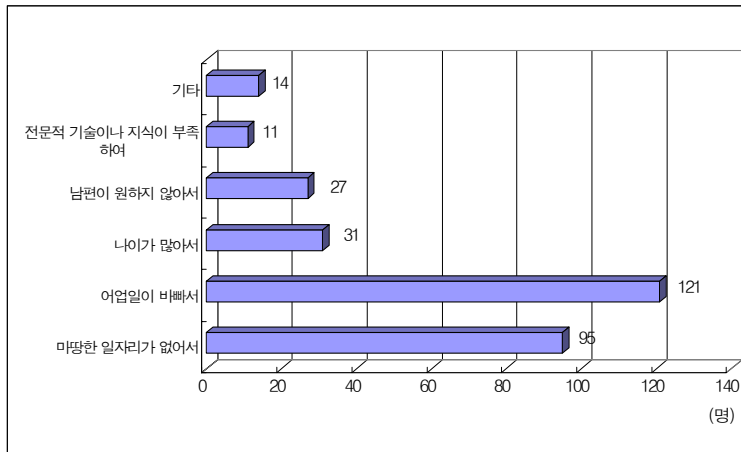


겸업의 이유에 대하여 ‘생활비 부족분 충당’, ‘여유 있는 생활을 보내기 위하여’, 그리고 ‘자녀교육비 충당’을 들고 있으며(〈표 4-22〉 참조), 그 반대로 어업 이외 다른 일을 하지 않는 이유로는 ‘어업일이 바빠서’, ‘마땅한 일자리가 없어서’로 나타났다(〈그림 4-17〉 참조).

〈표 4-22〉 어업 이외의 일을 하는 이유(겸업에 종사하는 경우)

구 분	응답자	비율 (%)
생활비의 부족을 충당하기 위하여	72	47.7
아이들 교육비에 보태려고	23	15.2
여유 있는 생활을 영위하려고	46	30.5
적성과 전문성을 살려 보람 있는 생활을 영위하려고	4	2.6
기 타	6	4.0
합 계	151	100.0

〈그림 4-17〉 어업 이외의 일을 하지 않는 이유



## (2) 어업노동 및 어업경영 의사결정 관여

조사대상자 중에 어선어업에 종사하는 여성의 어선 승선여부와 형태를 조사한 결과, 부부가 함께 어선에 승선하여 조업하는 부부조업 어가가 약 36%, 남편만 어선에 승선하고 본인은 육상어업활동만 하는 경우가 약 61%로 집계되었다(〈표 4-23〉 참조). 여성의 어선승선이 증가추세이기는 하지만 여전히 남편은 어선승선의 어업활동, 여성의 경우는 육상어업활동이 주를 이루고 있어 아직까지 어선어업부문에서는 성별 역할 구분이 명확함을 알 수 있다. 이는 어선어업이 비교적 노동강도가 높아 여성이 감당하기에는 육체적으로 한계가 많기 때문이다.

어가여성의 하루 평균 노동시간을 살펴보면, 어업노동의 경우 성어기에는 8시간 이상, 어한기에는 3시간 미만이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 가사일의 경우 성어기에는 2-3시간, 어한기에는 3-4시간 정도 가사를 돌보고, 비어업일의 경우 성어기와 어한기 공히 1시간 미만의 일이 가장 많은 것으로 집계되었다(〈표 4-24〉 참조).

〈표 4-23〉 어가여성의 어선 승선여부 및 형태

구 분	응답자	비율 (%)
부부가 함께 어선에 승선하여 어업활동	78	36.3
남편만 어선에 승선하고, 본인은 육상에서 어업활동	131	60.9
자녀가 승선한다	2	0.9
본인만 승선한다	2	0.9
인부가 없을 경우에만 함께 승선한다	1	0.5
선원과 함께 승선한다	1	0.5
합 계	215	100.0

〈표 4-24〉 하루평균 노동시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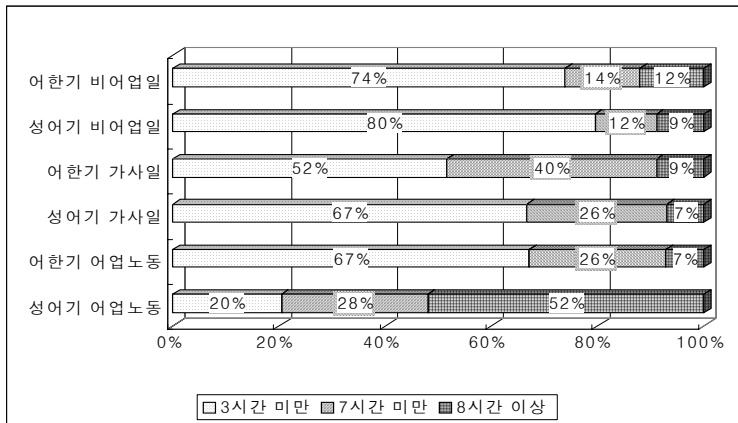
단위 : %

구 분		0시간	1시간	2시간	3시간	4시간	5시간	6~7시간	8~9시간	10시간 이상
성어기	어업노동	-	4.0	7.8	8.7	7.1	9.3	11.1	22.2	29.8
	가사일	0.2	11.1	31.6	23.8	16.0	5.6	4.9	4.2	2.7
	비어업일	61.1	7.8	6.7	4.0	3.6	3.6	4.4	7.1	1.8
어한기	어업노동	28.0	10.9	17.1	11.1	8.7	8.9	8.2	5.6	1.6
	가사일	0.2	2.2	17.8	31.3	22.4	9.1	8.0	4.7	4.2
	비어업일	61.1	4.2	4.7	3.8	4.4	4.4	5.3	8.2	3.8

당연한 결과이지만 성어기에는 8시간 이상의 어업노동이 많고, 어한기에는 상대적으로 가사일을 많이 하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그리고 비어업일에 소요되는 시간은 성어기와 어한기에 따라 큰 차이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그림 4-18〉 참조).

컴퓨터 사용유무에 대한 설문에서 어업과 관련하여 컴퓨터를 사용하고 있는 어가여성은 13명, 2.9%에 그치고, 컴퓨터의 사용이 가능한 어가여성은 104명, 23.1%로 집계되었다. 컴퓨터를 보유하지 않은 어가가 약 43%, 보유한 어가가 57%로 보유어가가 보유하지 않은 어가보다 많은 것으로 나타나 어가에 있어서도 컴퓨터 보급은 확산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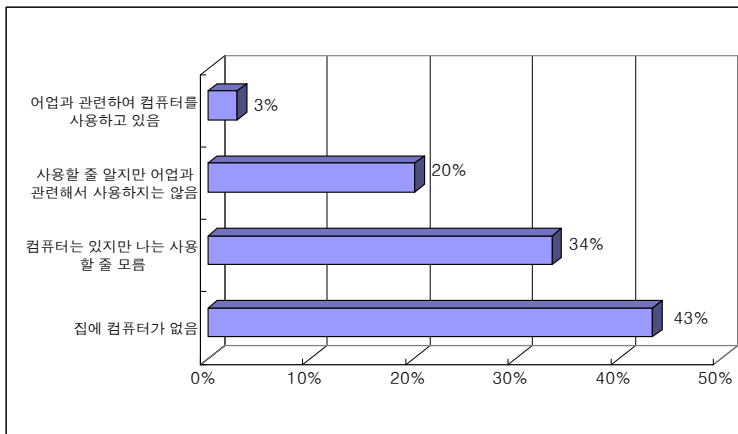
〈그림 4-18〉 성어기 및 어한기별 노동시간 분포현황



〈표 4-25〉 어업과 관련하여 컴퓨터 사용 유무

구 분	응답자	비율 (%)
집에 컴퓨터가 없음	195	43.3
컴퓨터는 있지만 나는 사용할 줄 모름	151	33.6
사용할 줄 알지만 어업과 관련해서 사용하지는 않음	91	20.2
어업과 관련하여 컴퓨터를 사용하고 있음	13	2.9
합 계	450	100.0

〈그림 4-19〉 어가여성의 컴퓨터 사용 현황



어업경영의 의사결정과정에 여성의 참여 정도를 알아보기 위하여 10개의 항목에 대하여 설문을 하였으며 그 결과를 나타낸 것이 <표 4-26>이다. 이 표에 의하면 어가여성이 단독으로 결정하거나 또는 어가여성이 주도하고 남편과 상의하여 결정하는 비율은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에 각 항목에 따라 의사결정주체가 상이하지만 대체로 남편이 단독으로 결정하거나 부부가 의논해서 결정하는 어가가 많은 것을 알 수 있다.

설문조사결과에 의하면 어업경영의 의사결정에 여성주도의 참여는 낮지만 어업경영 중 어업규모의 확대/축소, 수산물출하 및 판매, 어장 또는 어선구입 및 매각, 영어자금대부 및 관리 등의 어업경영 전체에 미치는 영향이 큰 항목에서는 부부가 의논해서 공동 결정하는 비율이 높게 나타나고 있다. 반면에 어업작업의 일정짜기, 어업종류 및 품종선택, 어업기자재 구입, 인부고용 등 세부적인 어업 작업에 있어서는 남편이 주도적으로 의사를 결정하는 것으로 나타났다(<표 4-26>, <그림 4-20> 참조).

어업경영의 의사결정에 있어 전반적인 어업경영에 있어서는 부부가 의논하여 결정하고, 세부 어업작업에 대하여는 남편이 주로 결정하는 특징을 나타내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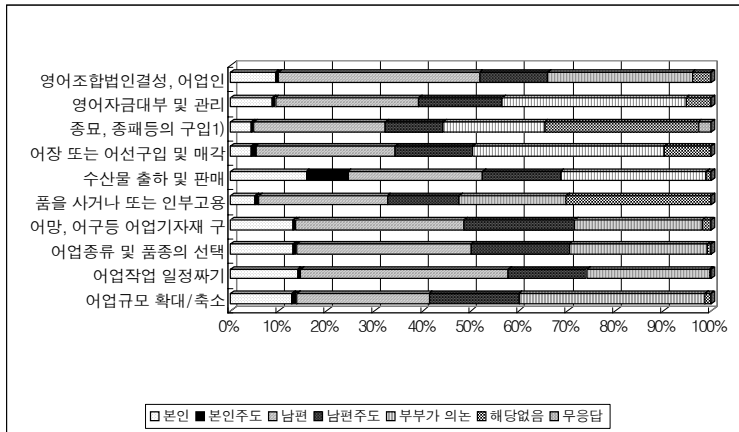
<표 4-26> 어업경영 의사결정 참여도

단위 : %

구 분	본 인	남 편	부부가 의논해서 공동결정	남편주도, 나와 상의 결정	본인주도 남편상의 결정	해당 없음	무응답
어업규모 확대/축소	12.9	27.6	38.7	18.7	0.9	1.1	0.2
어업작업 일정짜기	14.0	43.1	25.3	16.4	0.7	0.2	0.2
어업종류 및 품종의 선택	13.1	36.2	28.7	20.4	0.7	0.7	0.2
어망, 어구등 어업기자재 구입	13.1	35.1	26.7	22.9	0.4	1.6	0.2
품을 사거나 또는 인부고용	5.1	26.7	22.2	14.9	0.9	30.2	-
수산물 출하 및 판매	15.8	28.0	30.2	16.2	8.7	1.1	-
어장 또는 어선구입 및 매각	4.4	28.9	39.8	16.2	0.9	9.6	0.2
종묘, 종패 등의 구입1)	4.4	27.3	21.1	12.0	0.4	32.0	2.7
영어자금대부 및 관리	8.7	29.8	38.2	17.3	0.7	5.3	-
영어조합법인결성, 어업인후계자가입, 수협가입 등	9.3	41.8	30.0	14.2	0.7	3.8	0.2



〈그림 4-20〉 어업경영 의사결정 참여율 구성현황



그리고 남편과 비교하여 어가여성의 어업노동참여 정도를 살펴보면 어가여성의 평균 참여도는 42.6%, 남편의 평균 참여도는 52.4%로 남편의 어업노동참여가 약 15%포인트 정도 높은 것을 알 수 있다(〈표 4-27〉 참조).

어가여성과 그 남편의 어업노동 참여에서 특징은 참여도 41-50% 수준에서 부부 각각이 가장 높은 비율로 나타났고, 이 수준을 경계로 어가여성은 낮은 참여비율 쪽으로, 남편은 높은 참여비율 쪽으로 분포하는 것을 볼 수 있다.

〈표 4-27〉 어업노동 참여 정도현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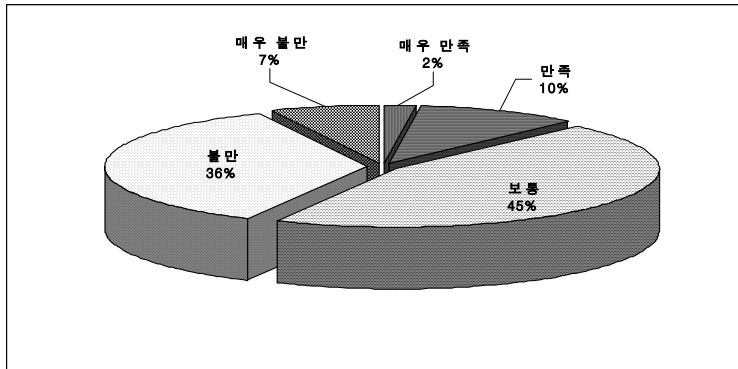
단위 : %

구 분	본 인	남 편
평 균	42,6	57,4
10% 이하	12,7	12,0
11~20%	13,8	2,0
21~30%	14,2	-
31~40%	15,6	0,2
41~50%	29,6	29,6
51~60%	0,2	15,6
61~70%	-	14,2
71~80%	2,0	13,3
81~90%	0,4	8,9
91~100%	11,6	4,2
합 계	100,0	100,0

### (3) 어업노동 만족도 및 어업인 정체성

자신의 어업노동 및 직업에 대한 만족도를 묻는 설문에 대하여 보통 약 45%, 불만 또는 매우 불만 약 43%, 만족 또는 매우 만족 12%로 집계되어 어가여성은 자신의 어업노동 또는 직업에 대하여 만족보다는 불만이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그림 4-21〉 참조).

〈그림 4-21〉 어업노동 및 직업 만족도



그리고 불만의 주된 이유로는 “일한 만큼의 댓가가 돌아오지 않아서” (54.2%), “일이 너무 힘들어서” (38.9%)이며, 소수의견으로 “정부의 수산정책이 현실과 동떨어져 있다” (5.1%)는 것 등을 들고 있다(〈표 4-28〉 참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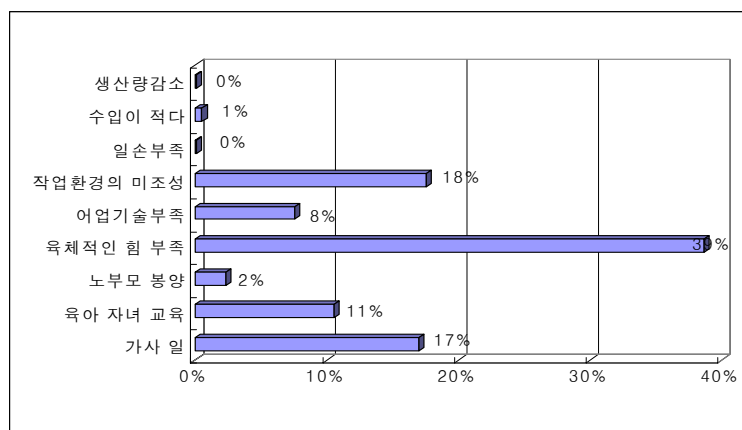
〈표 4-28〉 어업노동 및 직업에 대한 불만 이유

구 분	응답자	비율 (%)
일이 너무 힘들어서	84	38.9
일한 만큼의 댓가가 돌아오지 않아서	117	54.2
자연재해로 인한 피해가 너무 심해서	3	1.4
정부의 수산정책이 현실과 동떨어져서	11	5.1
사회인식이 안 좋아서	1	0.5
합 계	216	100.0

어업노동에서 겪고 있는 가장 큰 어려움으로 “육체적인 힘 부족” (39%), “여성에 적합하지 않는 작업환경” (18%), “가사 일” (17%) 등이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났다(〈그림 4-22〉 참조). 특히 육체적인 힘 부족과 여성에 적합하지 않는 작업환경은 서로 관련이 많은 것으로 여성에 적합한 작업환경을 조성한다면 육체적인 힘 부족의 어려움은 극복될 수 있을 것이다. 그리고 어가여성이 어업노동에 대한 불만이유 중의 하나가 일이 너무 힘들다는 것이므로 이는 육체적 힘 부족과 그 맥락을 같이하고 있다고 할 수 있다.

따라서 여성노동의 적극적인 어업노동 참여를 유도하기 위하여 작업환경을 친여성적으로 전환하는 것이 급선무라 할 수 있다.

〈그림 4-22〉 어업노동에서 가장 힘든 일



어업활동에 참여하는 우리나라 어가여성의 대부분은 자기 자신을 보조적인 어업인으로 인식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어업인으로서 자신이 전문적인 여성어업인인지 아니면 집안어업을 돕는 보조적인 어업인인지에 대해 약 46%가 집안 어업일을 돕는 보조적인 어업인, 약 27%는 남편과 동등한 공동어업경영인, 약 14%가 주부, 약 8%만이 전문여성어업인으로 인지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되었다(〈표 4-29〉 참조).

따라서 주부를 포함하여 조사대상 어가여성의 60%가 스스로 보조적인 어업인으로 규정하고 있어 어업노동에서 여성은 보조적인 역할에 머무르고 있음을 알 수 있다. 그러나 남편과 동등한 공동어업경영인 또는 전문여성어업인이라는 응답이 34.3%로 어업노동에 있어 여성의식 및 여성어업인으로서의 정체성이 낮은 것만은 아니라고 할 수 있다.

〈표 4-29〉 어업활동속에서 자신의 위치

구 분	응답자	비율 (%)
주 부	63	14.0
집안 어업일을 돕는 보조적인 어업인	206	45.8
남편과 동등한 공동어업경영인	120	26.7
전문적인 여성 어업인	34	7.6
기 타	24	5.3
해당없음	3	0.7
합 계	450	100.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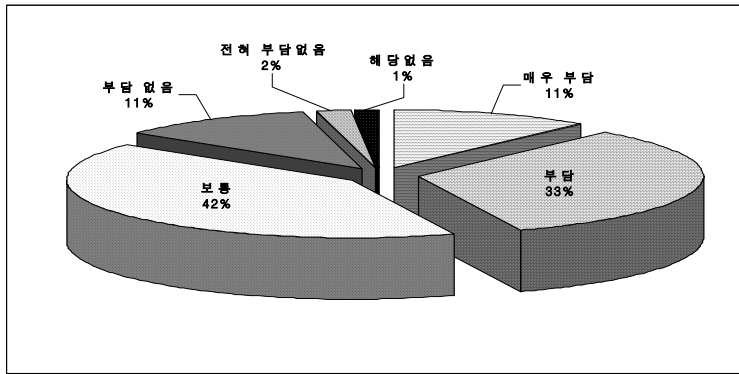
#### 4) 가사노동과 생활만족도

##### (1) 가사노동

조사대상 어가여성의 가사노동에 대한 부담정도 설문에서 “매우 부담” 또는 “부담” 이 약 44%, “보통” 약 41%, “부담 없음” 또는 “전혀 부담없음” 이 13%의 응답분포로 나타나 가사노동이 부담이 되고 있음을 알 수 있다(〈그림 4-23〉 참조).

그렇다면 가족내 가사노동은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는지를 살펴보기 위해 가사노동 10개 문항에 대한 가사노동 형태별 부담정도의 설문 결과는 〈표 4-30〉 및 〈그림 4-24〉와 같다. 이 표와 그림에서 알 수 있듯이 의식주와 관련된 가사노동 즉 집안청소, 식료품 구입, 식사준비, 설거지, 빨래 등은 주로 어가여성이 담당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림 4-23〉 가사노동의 부담정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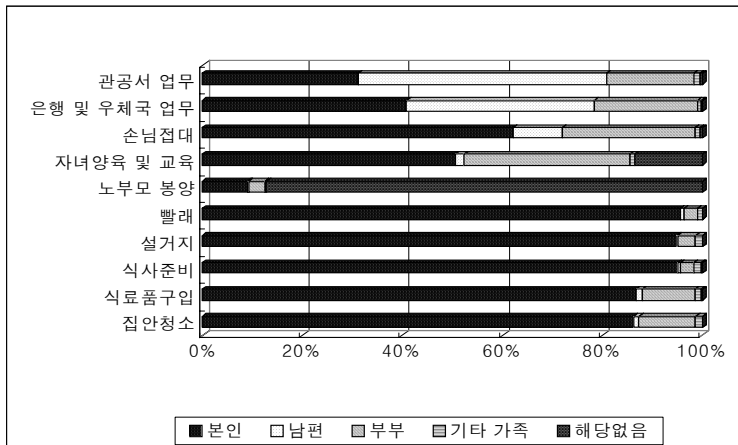
〈표 4-30〉 가사노동(활동)의 분담정도

단위 : %

구 분	본인이 주로 함	남편이 주로 함	부부가 함께 함	기타 가족들이 함	해당없음
집안청소	86.2	1.1	11.3	1.3	-
식료품구입	86.7	1.3	10.4	1.3	0.2
식사준비	95.1	0.4	2.7	1.6	0.2
설거지	94.9	0.2	3.6	1.3	-
빨래	95.6	0.7	2.9	0.9	-
노부모 부양	9.1	0.2	3.1	0.4	87.1
자녀양육 및 교육	50.7	1.8	33.1	0.9	13.6
손님접대	62.2	9.8	26.4	1.1	0.4
은행 및 우체국 업무	40.9	37.6	20.7	0.7	0.2
관공서 업무	31.1	49.8	17.3	1.3	0.4

그리고 노부모를 부양하고 있는 어가에서는 여성이 주로 노부모를 부양하는 역할을 담당하고 있는 것을 알 수 있다. 자녀양육 및 교육에 있어 여성이 주로 담당하는 비율이 약 51%, 부부가 함께 담당하는 것이 약 33%로 여성이 담당하는 비율이 높게 나타났다. 그러나 타 가사노동 항목과 비교하여 자녀양육 및 교육은 부부가 함께 하는 비율이 가장 높게 집계되었다. 그리고 손님접대, 은행 및 우체국 업무 등에서도 어가여성이 주로 분담하는 비율이 높게 나왔으며, 남편이 주로 담당하는 가사노동은 관공서업무가 유일한 것으로 나타났다.

〈그림 4-24〉 가사노동 분담



〈표 4-31〉 가사노동 중 가장 걱정되고 힘든 일

단위 : 명, %

구 분	응답 빈도	비 율
집안청소	48	10.7
식료품구입	17	3.7
식사준비	60	13.3
설거지	1	0.2
빨래	8	1.7
노부모 봉양	33	7.3
자녀양육 및 교육	217	48.2
손님접대	13	2.8
은행 및 우체국 업무	13	2.8
관공서 업무	26	5.7
기타(무응답, 해당없음 등)	14	3.1
합 계	450	100

가사노동을 주로 어가여성이 담당하고 있는 설문결과에 비추어 가사노동을 부담스러워하는 것은 당연한 귀결이라 할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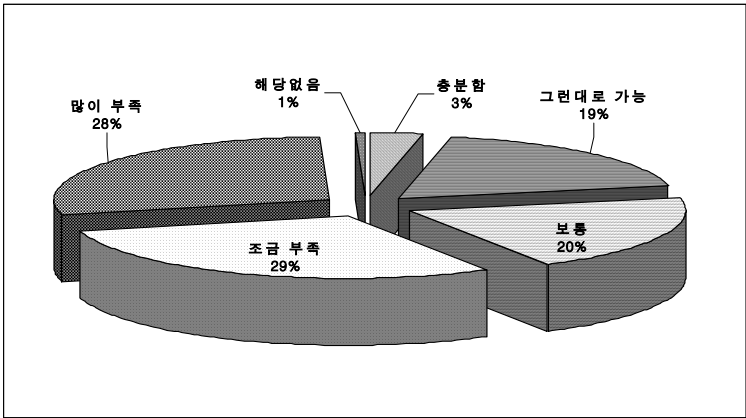
그리고 이들 10개 문항의 가사노동 중에서 어가여성은 현재 가장 걱정되고 힘든 일로서 자녀양육 및 교육을 들고 있는데, 전체 450가구의 어가여성 중

217명(48.2%)이 응답하여(〈표 4-31〉 참조) 현재 어가여성이 가장 관심을 갖는 걱정거리는 자녀양육과 교육임을 알 수 있다. 그 다음으로 식사준비와 집안청소 등의 가사노동을 들고 있다.

(2) 생활만족도

현재의 소득으로 생활 가능성에 대해 “충분” 또는 “대체로 가능” 이 약 22%, “조금 부족” 또는 “많이 부족” 이 약 58%로 소득에 비해 생활비가 부족한 어가가 2배 이상 많은 것으로 집계되었다.

〈그림 4-25〉 소득 충족도



〈표 4-32〉 가계 총수입 기여정도

구 분	응답자	비율 (%)
20% 미만	92	20.4
20~39%	138	30.7
40~59%	153	34.0
60~80%	30	6.7
80% 이상	37	8.2
합 계	450	100.0

그리고 조사대상의 어가여성이 가계의 총수입에 얼마만큼 기여하고 있는 정도에 대한 설문에서 기여도가 40~59% 수준이 34%로 가장 많은 것으로 집계되었다(〈표 4-32〉 참조). 전체적으로는 가계 총수입에 40% 이상 기여하고 있다는 응답이 약 49%의 비율로 어가여성이 가계의 총수입에 기여하는 정도는 결코 낮은 수준이라 할 수 없다.

〈표 4-33〉 가정생활 전반에 대한 만족정도

구 분	응답자	비율 (%)
매우 만족	11	2.4
만 족	73	16.2
보 통	255	56.7
불 만	97	21.6
매우 불만	14	3.1
합 계	450	100.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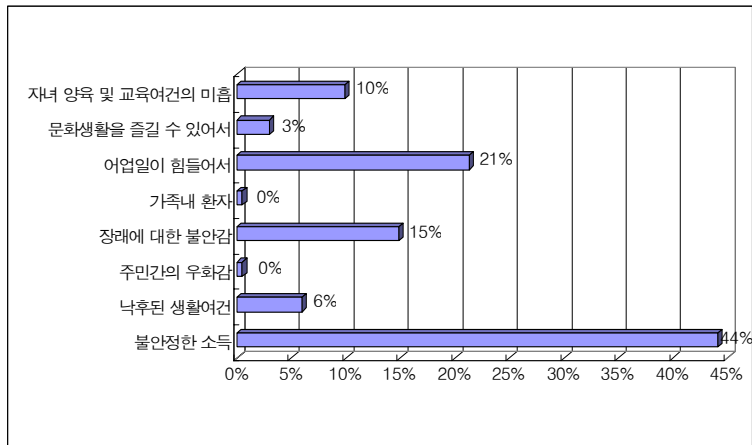
소득생활, 이웃과의 관계 등 가정생활 전반에 대하여 “보통” 이 57%, “불만” 또는 “매우 불만” 25%, “만족” 또는 “매우 만족” 19%로 불만의 경우가 만족보다 약 6%포인트 정도 높은 것으로 집계되었다(〈표 4-33〉 참조).

그리고 이러한 불만의 이유로 “불안정한 소득” (44%), “힘든 어업일” (21%), “장래에 대한 불안” (15%), “자녀양육 및 교육여건의 미흡” (10%) 순으로 응답이 많았다(〈그림 4-26〉 참조). 이중 “힘든 어업일” 이 두 번째로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데 어업노동에서 여성노동 부분에 대한 정책적 고려 및 배려가 필요한 것으로 사료된다.

한편 향후 가정경제 사정에 대하여 약 35%가 좋아질 것으로 전망 또는 기대하고 있으며, 21%는 오히려 나빠질 것으로 내다보고 있으며, 44%는 변함없을 것으로 생각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표 4-34〉 참조). 가정경제사정이 좋아질 것으로 전망 또는 기대하고 있는 어가여성이 그 반대보다 약 14%포인트가 많은 것으로 집계되어 장래의 가정경제에 대하여 낙관적으로 생각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그림 4-26〉 생활불만의 이유



〈표 4-34〉 5년 후 가정경제사정 전망

구 분	응답자	비율 (%)
매우 좋아질 것이다	11	2.4
좋아질 것이다	145	32.2
변함없을 것이다	199	44.2
나빠질 것이다	77	17.1
매우 나빠질 것이다	18	4.0
합 계	450	100.0

## 5) 복지 및 문화생활 실태

### (1) 노후대책

전국과 비교하여 특히 어촌고령화가 급속히 진행되면서 노인문제가 심각하게 대두될 것으로 예상되는 속에서 부모의 노후부양을 누가 책임져야 하는가에 대한 설문에서 “부모 스스로”가 노후를 책임져야 한다가 전체의 약 43%로 가장 높게 나타났다(〈표 4-35〉 참조). 그 다음으로 “국가 및 지역사회” 약

35%, “자녀” 약 19%의 순으로 집계되었다.

이러한 설문결과에서 조사대상 어가여성은 당사자인 부모 스스로가 일차적으로 노후를 준비해야 하며, 다음으로 국가 및 지역사회의 책임을 묻고 있으며, 노부모 부양을 자녀에게만 책임을 묻는 자녀책임론에 대하여는 부정적인 견해를 갖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이러한 현상이 어촌사회에만 나타나는 것이 아니고 전국에서 보편적으로 나타나고 있는 현실이지만, 평균연령이 높고 보수적인 어촌에서 이러한 결과를 보이는 것은 노후대책에 대한 인식의 변화가 상당함을 보여주는 사례라고 할 수 있다.

〈표 4-35〉 부모의 노후부양에 대한 책임

구 분	응답자	비율 (%)
부모 스스로	193	42.9
자녀	85	18.9
국가 및 지역사회	167	37.1
부모+자녀	1	0.2
무응답	4	0.9
합 계	450	100.0

부모스스로가 노후생활을 책임져야 한다는 견해가 가장 많았는데 그렇다면 향후 노후생활을 위하여 어떠한 대책을 준비하고 있는가에 관한 설문에서 “노후가 매우 걱정스럽다”는 응답이 전체의 39%로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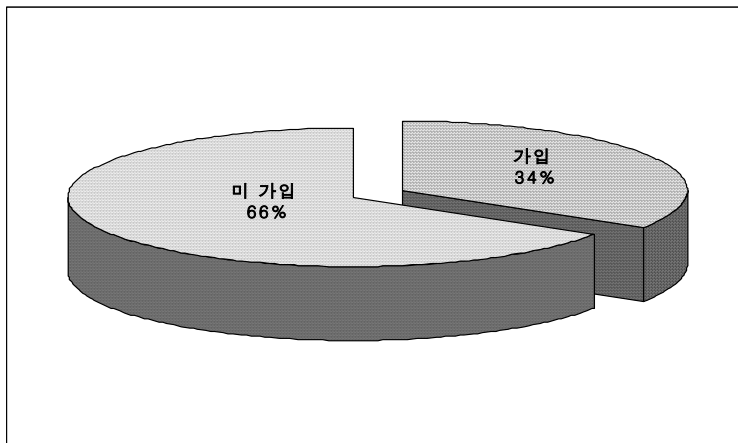
노후가 걱정스럽다는 응답을 제외하면 조사대상 어가여성의 61%는 노후대책을 준비하고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그 노후에 대한 준비로 “농어민연금에 가입” 하거나(26%), “저축·연금·부동산 등 기타자산으로 충당” 하며(16%), “계속해서 어업을 한다” (5%) 등의 대책을 세우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표 4-36〉 참조).

〈표 4-36〉 노후생활 대책(복수응답)

구 분	응답자	비율 (%)
저축/민간보험/부동산등 기타재산으로 충당할 수 있어 별 걱정 없음	94	15.9
노후대책으로 농어민 연금에 가입하고 있음	153	25.9
별다른 대책은 세우고 있지 않지만 걱정은 없음	49	8.3
자녀의 부양을 받을 것이므로 그다지 걱정스럽지 않음	21	3.6
노후생활이 매우 걱정스럽다	232	39.3
계속해서 어업을 하여 노후생계는 그다지 걱정되지 않음	31	5.2
국민연금에 가입하고 있음	11	1.9
합 계	591	100.0

앞의 노후준비 대책 설문에서 농어민연금이 노후대책의 주요한 방안으로 제시되었는데 그렇다면 조사대상 어가의 연금 가입실태를 살펴보면 전체의 34%가 현재 농어민 연금에 가입하고 있으며, 66%가 미가입으로 집계되었다.

〈그림 4-27〉 농어민 연금 가입유무



## (2) 어촌보육시설

노부모 부양과 함께 6세 미만의 자녀에 대한 보호 및 돌봄은 어가여성에게

큰 부담이 되고 있다. 특히 6세 미만의 자녀는 반드시 누군가의 직접적인 보살핌이 필요하므로 이러한 자녀양육과 관련된 복지에 대하여 설문을 하였다.

조사대상 450어가 중 46어가에 6세 미만의 자녀가 있는데, 이들 중 78%인 36어가에서는 보육시설에 자녀를 보내고 있으며, 나머지 22%의 10어가는 집에서 돌보는 것으로 집계되었다. 집에서 돌보는 경우 대부분 조사대상인 어가여성인 돌보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표 4-37〉 참조).

〈표 4-37〉 보육시설 활용 유무(6세 미만의 자녀가 있는 경우만)

구 분		응답자	비율 (%)
보육시설에 보낸다		36	78.3
집에서 돌본다	소 계	10	21.7
	본 인	8	17.3
	자 매	1	2.2
	부모(엄마)	1	2.2
합 계		46	100.0

어린이를 위한 어촌보육시설에 대하여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인가에 대한 설문에서 저렴한 비용(28.3%), 좋은 시설(21.7%), 좋은 교육내용(19.6%), 가까운 거리(15.2%), 맡기는 시간 장시간(15.2%) 등의 순서로 응답빈도가 높았으나 그 차이는 많지 않고 고르게 분포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표 4-38〉 참조).

〈표 4-38〉 어촌보육시설에 바라는 점

구 분	응답자	비율(%)
거리가 가까워야 한다	7	15.2
비용이 저렴해야 한다	13	28.3
시설이 좋아야 한다	10	21.7
맡기는 시간이 길어야 한다	7	15.2
교육내용이 좋아야 한다	9	19.6
합 계	46	100

어가여성이 바라는 어촌보육시설이란 거리, 비용, 시설, 보육시간 그리고 교육내용을 골고루 갖춘 시설이겠지만 동시에 다 갖추기에는 한계가 있으므로 이 중에서 가장 우선적으로 고려해야 할 사항은 저렴한 비용과 좋은 시설이라고 할 수 있다. 따라서 향후 어촌보육 복지부문에서 정부지원은 이러한 어가여성의 의견이 반영되어 실시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 (3) 건강

어가여성의 건강상태를 알아보기 위하여 자신이 판단한 건강정도, 어업작업으로 인한 증세, 그리고 건강검진유무에 대하여 설문을 하였다.

자가진단의 건강정도에서는 건강하지 못하거나 건강이 나쁘다는 응답이 약 39%, 건강하다가 약 31%, 보통이다가 약 31%의 비율로 집계되었다(〈표 4-39〉 참조). 설문결과로만 볼 때 조사대상 어가여성의 40%는 건강하지 못하다는 것을 알 수 있다.

〈표 4-39〉 건강정도

구 분	응답자	비율 (%)
이주 건강	18	4.0
건강한 편	120	26.7
보통	138	30.7
건강하지 못함	152	33.8
건강이 매우 나쁨	22	4.9
합 계	450	100.0

어업노동 또는 어업작업에서 나타나는 증세로는 어깨결림 증세가 가장 심한 것으로 나타났다. 그리고 요통, 손발저림, 야간빈뇨, 두통 등은 자주 또는 가끔 나타나는 증세로 두통의 경우 특히 제주지역의 해녀에게서 집중적으로 나타나는 증세라고 할 수 있다.

그리고 호흡곤란, 불면증, 복부팽만감, 매스꺼움, 부종 등은 증세빈도가 낮게 나타나 이들 증세는 어가여성에게는 심각하지 않은 것으로 판단된다(〈표

4-40) 참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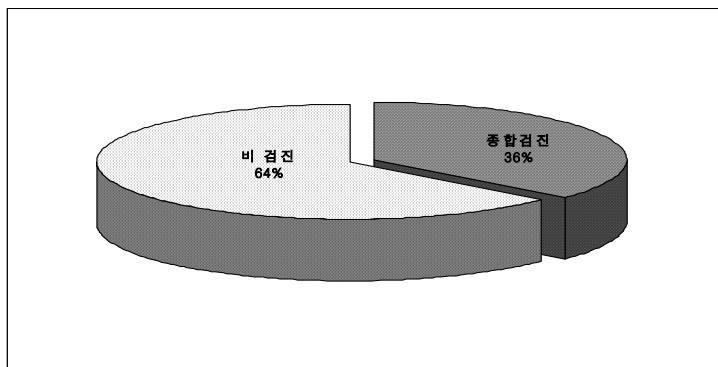
최근 2년 동안 종합 건강검진에 대한 유무 설문에서 응답자의 64%는 건강 검진을 받은 적이 없으며, 36%는 받은 적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그림 4-28〉 참조). 어가인구 중 노령인구가 차지하는 비중이 높고, 어가여성의 힘든 어업노동 등의 어촌현실을 감안한다면 건강복지 차원에서 정기 건강검진제도의 도입에 대한 검토가 필요한 시기라고 사료된다.

〈표 4-40〉 어업작업으로 인한 증세빈도

단위 : %

구 분	없음	가끔	자주	해당없음
어깨결림	13.1	38.0	48.7	0.2
요통	30.2	38.2	31.3	0.2
손발저림	26.9	38.9	33.8	0.4
야간빈뇨	26.9	38.9	33.8	0.4
호흡곤란	78.0	15.8	5.8	0.4
불면증	69.6	20.4	9.6	0.4
어지러움	37.3	46.0	16.4	0.2
복부팽만감	68.0	24.9	6.7	0.4
매스꺼움	74.2	19.8	5.3	0.7
부종	61.6	25.6	12.4	0.4
두통	36.2	41.3	22.2	0.2
기타증세	0.4	1.6	-	-

〈그림 4-28〉 최근 2년 동안 종합 건강검진 유무



#### (4) 문화생활

여가여성의 문화생활 실태를 알아보기 위하여 여행 및 관광유무와 횟수, 문화행사 관람횟수에 대하여 간단한 설문을 하였다. 매년 여행 또는 관광을 한다는 응답이 43%로 가장 많으며, 2-3년에 한번 여행 또는 관광을 한다는 응답이 29%로 집계되었다(〈표 4-41〉 참조). 그리고 매년 여행 또는 관광횟수를 보면 1회가 응답자의 60%, 2회 이상이 40%로 매년 여행 또는 관광횟수가 결코 적다고는 할 수 없다(〈표 4-42〉 참조). 그러나 전혀 여행 또는 관광을 하지 않는다는 응답이 26%로 집계되어 여행 또는 관광의 문화생활에서 격차가 있음을 알 수 있다.

〈표 4-41〉 국내외 여행 또는 관광 유무(야유회 포함)

구 분	응답자	비율(%)
매 년	195	43.3
2~3년에 한번 정도	129	28.7
전혀 없음	119	26.4
4~5년에 한번 정도	4	0.9
기 타	3	0.7
합 계	450	100.0

〈표 4-42〉 매년 여행 또는 관광 횟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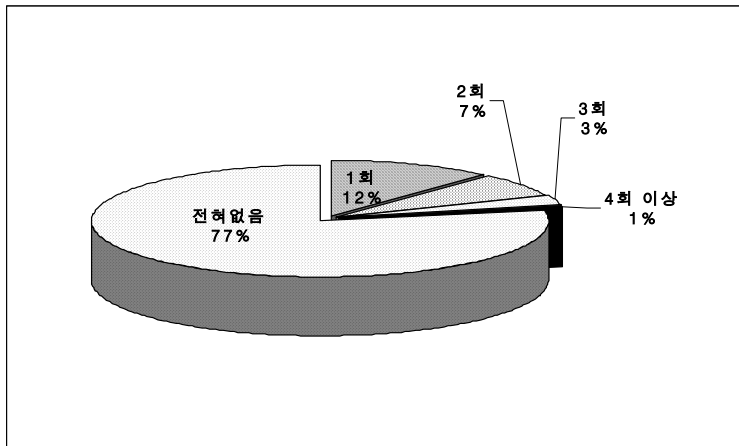
구 분	응답자	비율 (%)
1회	117	60.0
2회	52	26.7
3회	15	7.7
4회 이상	11	5.6
합 계	195	100.0

그리고 지난 1년 동안 연극, 영화, 전시회, 연예공연, 음악공연 등의 문화행사의 관람유무 및 관람횟수에 대하여 조사대상 여가여성 중 351명인 78%가

문화행사를 관람한 경험이 없는 것으로 조사되었다(〈그림 4-29〉참조).

문화행사를 관람한 경험이 있는 어가여성은 99명으로 응답자의 22%에 지나지 않으며, 관람횟수도 2회 미만이 대부분으로 여행 또는 관광의 문화생활과 비교하여 문화행사 관람은 아직까지 낮은 수준이라고 할 수 있다.

〈그림 4-29〉 지난 1년 동안 문화행사 관람 횟수



## 6) 정책 수요

### (1) 단체 및 조직 가입실태

어촌어가여성이 여성어업인으로 역할과 책임을 다하기 위해서는 개개인의 활동만으로는 한계가 많으므로 여성어업인으로 구성된 혹은 기존의 남성어업인의 단체 또는 조직가입을 통한 체계적인 활동 및 접근이 필요하다. 이와 같은 관점에서 단체 혹은 조직 가입실태 및 이와 관련된 애로사항에 대한 실태 파악이 중요하다고 판단되어 이에 관한 설문조사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정리하였다.

단체 혹은 조직 가입여부에 대한 설문결과, 대부분의 어가여성은 단체 혹은



조직에 가입하지 않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단체 혹은 조직에 가입한 일부 어가여성의 경우도 이름만 올라 있을 뿐 적극적인 활동은 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표 4-43〉 참조).

〈표 4-43〉 단체 혹은 조직에 가입여부

단위 : %

구 분	가입하지 않음	이름만 올림	적극 활동
수협	73.1	19.6	7.3
어촌계	77.1	14.4	8.4
영어조합법인	95.8	3.1	1.1
어업인후계자	96.0	1.8	2.2
어촌여성관련단체가입	97.3	0.7	2.0
기 타	-	0.4	-

그리고 소수이지만 여성 관련단체에 가입하고 있는 10명의 가입단체를 살펴 보면 어업과 관련된 단체로는 여성어업인부녀회, 어촌여성부녀회, 수산업경영인연합회부인회, 어업인경영회 등이 있으며, 어업과 무관한 단체로는 여성의용소방대원, 생활개선회 등이 있다(〈표 4-44〉 참조)

〈표 4-44〉 어촌여성 관련단체 가입

구 분	응답자
여성어업인부녀회	2
여성의용소방서 대원	1
어촌여성부녀회	1
생활개선회	2
수산업경영인연합회부인회	2
어업인경영회	1
합 계	11

단체 혹은 조직활동상에서 또는 이들 단체 혹은 조직에 가입하고자 할 때

결림들이 되고 가장 어려운 점으로서 “집안 어업일에 지장 또는 애로” 응답이 전체의 49%로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표 4-45〉 참조).

그리고 다음으로 “경제적인 애로” (24.2%), “거리가 멀어 교통장애” (12.2) 등이 많은 비중을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났는데, 여기에서 경제적인 애로는 어업이외 겸업소득이 있는 어가여성의 애로라고 볼 수 있다. 그리고 거리가 멀어 교통장애 등은 어촌이 지리적으로 가장 낙후된 곳에 위치해 있어 단체 또는 조직활동이 불편하고 많은 시간이 소요되기 때문인 것으로 생각된다.

〈표 4-45〉 단체 및 조직 활동상 또는 가입시 어려운 점

구 분	응답자	비율 (%)
가족의 비협조	18	4.0
집안 어업일에 애로	222	49.3
관련 기관 비협조	6	1.3
거리가 멀어 교통장애	55	12.2
경제적인 애로	109	24.2
남편이 주로 함	4	0.9
홍보 부족	1	0.2
나이가 많아서	7	1.6
관심이 없어서	3	0.7
바빠서	3	0.7
없 음	5	1.1
모 름	17	3.8
합 계	450	100.0

## (2) 제도인식 및 관련시설 이용

현재 어가여성 및 여성어업인과 관련된 제도로써 어업경영과 관련하여 어업인후계자 여성우대제도와 수협복수조합원제도가 있으며, 출산과 관련하여 어가도우미제도를 들 수 있다. 이들 관련 제도에 대한 인식과 이용여부를 통하여 어가여성 및 여성어업인에 의한 정책평가를 해 볼 수 있다.

설문조사결과 조사대상 어가여성의 85% 이상이 이들 제도에 대해 모르고 있는 것으로 집계되었다(〈표 4-46〉 참조). 어업인후계자 여성우대제도에 대하

여는 약 15%, 수협복수조합원제도에 대하여는 약 11%의 어가여성만이 인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어가 도우미제도에 대한 인지수준은 가장 낮은 수준으로 약 6%만이 알고 있을 뿐이다.

그리고 이들 제도의 이용여부에서 조사대상 어가여성의 대부분이 이용한 경험 없는 것으로 나타나 정책 실현도가 미흡한 것으로 평가할 수 있다. 향후 이들 제도의 문제점이 무엇인가에 대한 파악과 함께 개선 그리고 적극적인 홍보가 필요할 것으로 사료된다.

〈표 4-46〉 제도의 인식 및 이용 여부

단위 : %

구 분	제 도 인 식		이 용 여 부	
	알고 있음	모름	있음	없음
어업인후계자 여성우대제도	14.7	85.3	1.6	98.4
수협복수조합원제도	10.9	89.1	1.1	98.9
어가 도우미제도	5.6	94.4	0.2	99.8

### (3) 정책수요 및 여성전문어업인의 요건

어촌의 어가여성을 위한 정책수요가 무엇인가를 파악하기 위하여 관련 제도 또는 시설에 관한 필요정도에 대한 설문을 실시하였으며, 그 결과를 제시한 것이 〈표 4-47〉이다. 8개 항목 각각에 대한 필요정도 그리고 가중평균을 통해 이들 중 가장 시급하고 필요한 정책수요를 선정할 수 있었다.

〈표 4-47〉에 의하면 부부가 공동으로 어업인 후계자가 되는 것에 대한 필요정도는 약 53%, 여성에게 기술과 자금지원의 필요정도는 62.4%, 여성이 조직 또는 단체의 임원 진출지원의 필요정도는 78.9%, 건강관리 및 무료검진 등의 확대의 필요정도는 62.7%, 6세 미만 유아동을 위한 관련시설 확충의 필요정도는 96.8%, 6세 이상의 청소년을 위한 관련시설 확충의 필요정도는 77.5%, 노인후생복지를 위한 시설확충의 필요정도는 83.3%, 어가여성의 기술습득 및 교육참여 확대의 필요정도는 98%로 모든 항목에서 필요하다는 응답이 50% 이상

으로 나타났으며, 특히 2개 항목은 90% 이상의 응답자가 필요로 하고 있는 것으로 집계되었다.

설문조사결과에 의하면 어촌에 어가여성을 위한 이들 8개 항목관련 제도 또는 시설은 반드시 필요한 것으로 파악되었지만, 이들 중 5점 만점의 가중평균 값에 의한 우선순위를 매겨본다면, 첫째 6세 미만의 유아동을 위한 관련시설 확충, 둘째 교육참여확대, 셋째 노인후생복지시설확충, 넷째 6세 이상의 청소년을 위한 관련시설 확충, 다섯째 조직 및 단체에 여성임원진출지원, 여섯째 어촌여성의 무료건강검진의 확대, 일곱째 여성에 어업기술과 자금지원 그리고 마지막 여덟째 부부공동어업인후계자의 순이다.

따라서 향후 어촌 및 어가여성 관련 정책수립 및 검토 등에서 가장 우선적으로 고려되어야 할 제도로 가정주부로서 육아와 여성어업인으로서 교육참여 확대라고 할 수 있다.

〈표 4-47〉 어가여성을 위한 제도 또는 시설의 필요 정도

구 분		매우 필요	필요	보통	전혀필 요없음	해당 없음	가중 평균
부부가 공동으로 어업인 후계자가 되는 것	빈도	97	141	138	73	1	3.58
	비율	21.6	31.3	30.7	16.2	0.2	
여성이 수산물가공, 유통, 어촌관광 등으로 진출할 수 있도록 기술과 자금 지원	빈도	123	158	115	51	3	3.77
	비율	27.3	35.1	25.6	11.3	0.6	
여성이 수협이사, 대의원, 어촌계 임원으로 진출하도록 지원	빈도	158	197	73	22		4.09
	비율	35.1	43.8	16.2	4.9		
여성의 건강관리 및 무료검진 등의 확대	빈도	121	161	119	47	2	3.78
	비율	26.9	35.8	26.4	10.4	0.4	
6세 미만 유아동을 위한 육아도우미 및 프로그램개발, 관련시설 확충	빈도	354	82	10	1	3	4.74
	비율	78.7	18.2	2.2	0.2	0.7	
6세 이상 청소년을 위한 자녀교육도우미 및 프로그램개발, 관련시설 확충	빈도	194	155	71	19	11	4.12
	비율	43.1	34.4	15.8	4.2	2.4	
노인후생복지를 위한 시설확충	빈도	216	159	56	14	5	4.26
	비율	48.0	35.3	12.4	3.1	1.1	
어업기술, 컴퓨터기능 습득 등의 교육참여 확대	빈도	330	111	7	1	1	4.71
	비율	73.3	24.7	1.6	0.2	0.2	

그리고 어업분야에서 전문여성어업인이 되기 위하여 어떠한 요건이 필요한가에 대한 설문에서 가사노동에 대한 부담감소와 여성의 어업종사여건 개선이 이루어져야 한다는 응답이 각각 23.4%와 21.2%로 높게 나타났다. 그리고 여성어업인의 지위향상, 유망업종 및 품종개발여건 구축, 그리고 어가여성의 노력과 의식개발이 그 다음 많은 순으로 집계되었다(〈표 4-48〉 참조).

〈표 4-48〉 여성 어업전문 인력의 요건(복수응답)

구 분	응답자	비율 (%)
여성어업인에 대한 지위향상	180	13.3
생활환경개선으로 가사노동부담 감소	316	23.4
영어(營漁)교육에 적극 참석할 수 있는 기회와 여건조성	71	5.3
수협, 영어조합법인 등 생산자조직에 대한 참여보장	97	7.2
유망업종, 품종개발여건 구축	151	11.2
여성용 복지시설확충으로 어업종사여건 개선	287	21.2
후계자/선도어가에 여성선정 확대	68	5
어가여성의 적극적인 노력과 의식개발	136	10.1
무응답	44	3.3
합 계	1350	100

#### (4) 어촌여성이 바라는 어업작업 환경개선과 지원

설문조사에서 밝혀진 어촌여성이 희망하는 여성노동에 적합한 어업노동환경 또는 시설개선 그리고 지원방안을 정리하여 제시한 것이 〈표 4-49〉이다. 이 표에 의하면 어업작업과 관련하여 가로등시설확충, 어장진입로포장, 선착장편리하게 개선, 그늘막 설치, 자동화 및 기계화시설확대, 바닷가에서 바로 작업해서 출하할 수 있도록 개선 등의 작업환경개선 또는 시설개선과 함께, 샤워시설설치, 휴게시설 설치, 찜질방 설치, 공중목욕탕 확충 등의 후생복지 차원에서 개선을 희망하는 것을 알 수 있다.

그리고 어촌여성의 발전과 여성어업인의 역할 수행을 위한 정부지원 방안에 대하여 자녀교육비지원, 어업관련 기술교육, 노인복지시설확충, 무료건강검진

범위확대, 병원시설취약, 운동시설 및 육아시설확충, 문화센터지원, 생활정보 제공 등 자녀양육과 교육, 건강, 문화후생복지의 생활전반에 걸친 다양한 지원 방안을 요구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이는 여성이 어업노동과 함께 육아 및 가사노동 등의 재생산노동의 주된 담당자이기 때문이다.

또한 해녀작업에 대한 지원, 어업외 부업일거리 마련지원, 일한만큼의 적절한 대가 등은 어촌여성이 단순히 가게의 어업일을 돕는 보조적 위치보다는 여성어업인으로 요구하는 지원방안이라 할 수 있다.

〈표 4-49〉 여성노동에 적합한 환경 또는 시설개선, 지원방안

환경 또는 시설개선	지 원 방 안
샤워시설 설치, 가로등시설확충, 공동화장실시설확충, 휴게시설설치, 어장진입로포장, 탈의장시설 설치, 선착장개선, 포구환경정결, 그늘막 설치, 바닷가에서 바로 작업해서 출하 가능하도록, 찜질방 설치, 공중목욕탕확충, 자동화 및 기계화시설확대, 직판장설치, 방파제수도설치 등	교육비지원, 어업관련기술교육, 노인복지시설확충, 무료건강검진범위확대, 문화센터지원, 운동시설확충(생활체육의 보편화), 육아시설확충, 찜질방 확충, 잠수병치료지원, 어촌계여성휴양시설지원, 해녀 탈의실 온수보일러 지원, 어업외 부업일거리 마련지원, 일한만큼의 적절한 대가, 생활정보 제공, 여성단체기관확충 등

## 7) 설문조사결과의 시사점

어촌의 어가여성을 대상으로 실시한 설문조사 결과를 통하여 다음과 같은 시사점을 얻을 수 있다.

- ① 어가의 가족은 자녀를 포함하는 가족형태를 다수 구성하고 있어 향후 노력여하에 따라서는 어업후계자 확보에 유리한 입장에 있다고 할 수 있다.
- ② 10년 이상의 장기간, 성수기에는 10시간 이상의 장시간 어업에 종사하고 있으며, 어업노동 분담률은 약 43%로 어업노동에 있어 여성의 역할을 무시할 수 없는 중요한 변수가 되고 있다.

- ③ 어업경영 의사결정에 여성주도의 참여는 낮으나 부부가 의논하여 결정하거나, 어업의 세부작업은 주로 남편이 주도하며, 남편과 공동어업경영인 또는 여성전문어업인으로 인식하고 있어 어업노동에 있어 실질적 여성의 역할이 정착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 ④ 어업노동에 불만을 많이 갖고 있으며, 그 이유로는 일한 만큼의 댓가가 없고, 어업일이 너무 힘들다는 것이며, 어업노동에서 가장 힘들고 걸림돌은 육체적 힘부족, 여성노동에 적합하지 않는 작업환경, 가사일 그리고 육아 및 자녀교육 등으로 어촌여성의 노동실태를 잘 나타내고 있다. 어업은 노동강도가 높아 여성노동에는 적합하지 않으므로 친여성적인 작업환경으로 개선하거나 또는 노동강도가 높지 않는 수산분야의 일을 발굴하여 제공할 필요가 있다.
- ⑤ 여성인 주부가 주로 가사노동을 전담하고 가사노동에 대하여 부담스러워하고 있으며, 가사노동 중 가장 걱정되고 힘든 것으로 자녀양육 및 교육을 들고 있다. 어촌여성 역시 도시 및 타 지역과 마찬가지로 자녀양육 및 교육에 대한 부모로서의 책임과 의무 그리고 열의와 정성을 엿볼 수 있다.
- ⑥ 어촌여성은 부모의 노후부양책임은 부모자신에게 있다고 생각하고 있으며, 노후대책을 걱정하고, 특히 어촌보육시설에 대하여는 저렴한 비용과 좋은 시설을 희망하고 있다. 따라서 어촌보육시설 이용료에 대한 지원 확대 등을 통해 어촌여성의 자녀양육에 대한 부담을 경감시키는 특별한 배려가 필요하다.
- ⑦ 생활 전반에 대하여 만족보다는 불만이 많으며, 그 이유로는 불안정한 소득, 힘든 어업일, 자녀양육 및 교육여건 미흡 등을 들고 있는데 어촌여성의 총체적인 근심과 걱정거리를 엿볼 수 있다. 향후 어가소득 안정화 및 자동화 또는 기계화 등 여성친화적인 어업작업 환경개선 등은 해양수산부가 적극 간여하고 검토해야 할 정책과제라 할 수 있다.
- ⑧ 어촌여성이 어업노동에서 자신의 권리를 찾고 지위를 향상시키기 위하여 개인보다는 단체가입을 통하여 추진하는 것이 효과적이다. 그러나 아직

까지 어촌여성의 단체 및 조직 가입률은 매우 저조한 실정이며, 집안 어업일, 경제적 애로, 교통불편 등이 단체활동 또는 가입에 걸림돌이 되고 있다. 어촌여성이 조직하는 단체 등 대한 적극적인 지원을 통하여 여성의 지위와 권리를 향상시키는데 해양수산부는 노력을 해야 할 것이다.

- ⑨ 어업인후계자여성우대제도, 수협복수조합원제도, 어가도우미제도 등 해양수산부가 실시하고 있는 현행 여성어업인 관련 제도에 대한 인식 및 관련 시설이용은 매우 저조한 것으로 나타나 정책목표를 달성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평가할 수 있다. 따라서 이들 제도와 사업에 대한 적극적인 홍보강화가 필요하다.
- ⑩ 어촌여성이 바라는 정책을 우선순위로 제시하면 첫째, 6세 미만 유아동을 위한 육아 도우미 및 프로그램개발과 관련시설확충, 둘째, 교육 참여 확대(어업기술, 컴퓨터기능 습득), 셋째, 노인후생복지 시설확충, 넷째, 6세 이상의 청소년을 위한 자녀교육도우미 및 프로그램개발, 관련시설 확충, 다섯째, 수협이사, 대의원, 어촌계임원으로 진출하도록 지원, 여섯째, 여성의 건강관리 및 무료검진 등의 확대 등으로 해양수산부는 향후 정책 개발에 이들 의견을 우선적으로 수용할 필요가 있다.
- ⑪ 어촌여성이 전문여성어업인이 되기 위해서는 가장 먼저 가사노동부담이 줄어야 하며, 그 다음으로 여성에 적합한 어업종사여건, 여성어업인의 지위향상, 여성에 적합한 유망업종과 품종개발여건 구축 그리고 여성자신의 적극적인 노력과 의식개발 등의 순이다. 이것은 여성자신의 적극적인 노력과 의식개발도 중요하지만 이에 앞서 주변 여건과 기반이 먼저 개선되거나 바뀌어야 한다는 것으로 정책의 우선순위를 정하는 데 중요한 근거가 될 수 있다.
- ⑫ 여성노동에 적합한 어업노동환경개선 또는 시설개선으로 샤워시설설치, 가로등시설확충, 공동화장실시설확충, 휴게시설설치, 어장진입로포장, 선착장개선, 자동화시설확충 등이 요구되었으며, 이 요구는 어업작업 환경개선뿐 아니라 후생복지 차원에서의 개선으로 어촌여성 또는 여성어업인



정책개발 및 활용에 적극 반영하거나 수용되어야 할 것이다.

- ⑬ 어촌여성의 발전과 지원방안으로 어촌여성이 희망하는 것은 교육비 지원, 어업관련기술교육지원, 노인복지시설확충지원, 무료건강검진범위확대, 잠수병치료지원, 육아시설확충지원, 해녀탈의실 온수보일러 지원 등 등 종류가 다양하며 어업생산에 한정되지 않고 가사노동을 포함하여 후생복지 등에 걸쳐 그 범위가 넓다고 할 수 있다. 여성이 가사노동을 대체로 전담하기 때문에 이러한 총체적인 지원체계가 마련되지 않는다면 어업노동에서 여성노동력 또는 인력의 감소는 빠르게 진행될 것이며, 아울러 여성의 어촌정착 기피는 더욱 심화될 것으로 예상된다.

## 제5장

### 어촌여성의 노동여건 개선을 위한 정책과제

#### 1. 여성 어업인 관련 현행 정책사업의 문제점

해양수산부에서는 어촌여성을 대상으로 한 별도의 정책은 없고, 어촌여성과 관련하여 농어촌발전특별조치법(제4조)에 의해 실시되고 있는 여성어업인 후계자 육성사업이 정책적으로 유일하다고 할 수 있다. 이 사업은 해양수산부가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예산을 지원하며, 시도와 시군에서는 사업자선정 및 사후 관리, 수산기술관리소에서는 전문교육 및 새로운 기술 보급의 역할을 담당하고 수협에서 사업비를 지원하고 관리하는 업무를 담당하고 있다.

이 사업의 목적은 어촌정착을 희망하는 젊고 유능한 여성을 어업인 후계자로 우선 선발하여 여성전문인력 육성 및 수산업 경쟁력을 제고하는 데 있다. 전체 어업후계인력 선정인원의 20% 범위 내에서 여성을 우선 선정하는 것이다.

여성 어업인 전문인력 육성사업은 어업인 후계자 육성사업과 병행 추진하고 있으며, 1981년부터 2004년까지 약 23년 동안 179억원을 지원하여 727명(전체 후계자중 4.5%)을 육성하였다(〈표 5-1〉 참조). 그리고 1인당 지원규모는 개인 별 사업계획에 따라 20~50백만 원으로 차등지원하고 있다.

또한 해양수산부는 어업인후계자 육성사업 시행지침을 개정하여 여성어업인 후계자에게 현행 30점의 가점을 상향조정하는 방식으로 가점제도를 개선하고자 한다. 동시에 기 선정된 여성어업인후계자에 대하여는 자립능력 제고를 위해 전문교육기관에서 교육을 실시하는 등의 여성 어업인후계자 확대방안과 함께 연차별 투자계획을 세워두고 있다.

〈표 5-1〉 여성어업인후계자 육성사업 실적 현황

단위 : 명, 억원

구 분	계		2001년까지		2002년		2003년		2004년	
	인원	금액	인원	금액	인원	금액	인원	금액	인원	금액
전체 후계자	16,029	3607	14,147	3039	732	219	673	205	477	144
여성 후계자	727 (4.5%)	179	612 (4.3)	144	49 (6.7)	15	34 (5.1)	11	32 (6.7)	925

자료 : 해양수산부.

〈표 5-2〉 여성어업인후계자 육성을 위한 연차별 투자계획

단위 : 명, 백만원

목 표		2004년 까지		2005년		2006년 이후	
인원	사업비	인원	사업비	인원	사업비	인원	사업비
1,000	26,157	727	17,932	50	1,500	223	6,725

자료 : 해양수산부.

이러한 육성사업에도 불구하고 어업분야의 특수성과 열악한 작업환경 등의 요인으로 여성어업인의 어촌정착기피, 여성어업인후계자 신청자의 어업기반 취약 및 영어경력 저하, 그리고 1998년 이후 어업인 후계자 육성자금의 대폭적인 삭감으로 인한 여성어업인 후계자 확대 어려움 등이 문제점으로 지적되고 있다.

따라서 이러한 문제점을 극복하고 어촌 및 수산업에서 여성인력 유지 또는 적극적인 활용을 위해서는 단편적인 여성어업인 후계자 사업보다는 육아와 가사노동을 포함한 여성노동문제, 문화 복지생활 등의 총체적인 관점에서 어촌여성 및 여성어업인 정책이 추진되어야 한다.

## 2. 정책과제

앞장에서 검토한 국내외 여성정책사례분석 및 어촌여성 노동실태 설문조사 결과분석 그리고 현행 여성어업인 육성사업의 문제점 검토를 토대로 향후 해

양수산부 또는 민간단체인 수산업협동조합 등이 어촌여성에 대한 재평가와 새로운 인식의 계기로 삼아 추진해야 할 정책과제를 제시하고자 한다.

여기에서 제시하는 정책과제는 어촌여성뿐만 아니라 여성어업인을 포함하여 노동 및 문화 복지생활 등의 총체적인 관점에서 여성의 삶의 질 향상과 사회경제적 지위를 향상시키는 데 초점을 두고 있다. 특히 어촌여성 및 여성어업인의 노동여건 개선이야말로 바로 이들의 삶의 질 향상과 사회경제적 지위 향상과 직결되는 중요한 정책과제라 할 수 있다. 본 연구에서 제시하는 정책과제는 향후 정책으로 활용되거나 활용가능성이 매우 높을 것으로 전망된다.

## 1) 국내외 사례분석을 통한 정책과제

### ① 어촌여성의 경제활동실태 기초조사사업 실시

어촌여성의 노동여건을 개선하고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 가장 우선적인 정책과제는 어촌여성 또는 여성어업인의 생활, 취업, 복지, 노동 등 경제활동 전반에 대한 실태파악을 위한 기초조사사업의 실시이다. 현재 어촌여성 또는 여성어업인에 관한 경제활동 실태는 전혀 알려진 바가 없는 실정이다. 상세한 정보와 근거 자료가 없는 상태에서 어촌여성 및 여성어업인의 삶의 질과 사회적 지위향상을 위한 정책수립과 추진이 어렵기 때문이다.

특히 세계 각국의 여성노동 정책 패러다임이 WID(Women-in Development)에서 GAD(Gender and Development)로, 그리고 성 주류화(Gender Mainstream)로 변화하는 추세를 고려할 때 성 인지적 노동통계의 구축을 위한 여성어업인의 경제활동 실태조사는 여성어업인 육성정책의 성공을 위한 토대가 될 것이다.

어촌여성 경제활동 실태조사의 대상은 전국의 어가를 대상으로 하고, 경제활동 실태조사의 주요내용은 노동력 구조, 취업구조, 노동환경, 복지환경 등을 파악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노동력 구조면에서는 연령구조, 학력구조 변화분석을 통해 어촌여성의 어업부문 노동 참여율의 변화, 어가규모별 어업 종사자

비율, 비어업 부문 참여와 종사자의 노동력 구조 등을 분석하고 시사점을 도출하도록 한다.

취업구조 부문의 조사에서는 성별 노동분업 실태, 어업 형태별 성별 노동분업 실태, 어업 여성의 어업 활동 참여실태, 어촌여성의 어업형태별 임금차별 실태, 어업 여성 노동에서 현대화 장비 활용실태, 어촌 여성 기술 및 경영교육 수요, 어업 여성 노동력의 생산성 제고 가능성 등에 대한 분석이 필요하다.

노동환경 부문에서는 어촌 여성의 노동강도와 노동시간, 어촌 여성의 가사노동과 노동분담, 가전제품 보급률, 어가주부의 가사노동 보조자, 가사노동에 대한 남편의 지원정도, 남편에 대한 어촌 주부의 가사노동 분담요구 수준, 어촌 여성의 비어업 부문 취업실태, 비어업 부문 취업형태와 노동조건, 어촌 여성 노동력의 비어업 부문 이동조건 등에 대한 상세한 파악이 요구된다.

복지환경 부문의 조사에서는 어촌 여성의 출산 휴식 실태, 어촌 여성의 육아와 경제활동 관계, 어촌 지역의 어린이 보육시설 입지 실태, 어촌지역의 어린이 보육시설 이용실태, 어촌여성의 연금가입 실태, 연금 가입에 대한 여성 어업인의 견해, 노후보장대책 등에 대한 내용을 구체적으로 파악할 수 있어야 한다.

그리고 어촌 여성의 어업경영 참여 실태, 어촌여성 임금수준, 경제활동활성화를 위한 과제 등도 어촌여성의 경제활동 실태 파악을 위한 중요한 내용이다.

## ② 여성어업인 육성 5개년 계획 수립

현재 여성어업인과 관련된 해양수산부의 육성정책 및 사업은 단위 사업의 형태를 띠고 있는 여성 어업인 후계자 사업이 거의 유일하다고 할 수 있다. 이러한 단위사업 만으로 여성 어업인 육성정책은 그 목표를 달성할 수 없다. 보다 종합적이고 총체적인 차원에서의 접근이 필요하며, 이러한 접근이 가능하도록 이미 제도적으로는 ‘여성농어업인육성법’이 마련되어 있다.<sup>7)</sup> 따라서 이

7) 우리나라 농림부에서는 여성 농업인 정책으로 농업·농촌기본법과 여성농어업인육성법(2002년 제정)에 근거하여 ‘제1차 여성농업인 육성 5개년 계획’을 실시하고 있으며, 2006년부터는 ‘제2차 여성농업인 육성 5개년 계획’이 실시될 예정으로 있다.

법에 의거한 여성어업인 육성5개년 계획은 당장 수립하여 추진해야 하는 매우 시급한 정책과제라 할 수 있다.

여성농어업인육성법의 주요내용은 <표 5-3>과 같으며 앞으로 해양수산부가 수립하고자 하는 여성농어업인육성법에 근거한 여성어업인 육성기본계획에는 다음과 같은 내용이 포함되어야 한다.

- i) 여성어업인 육성정책 목표
- ii) 여성어업인 육성정책의 기본방향
- iii) 여성어업인 육성을 위한 핵심사업

여성어업인 육성정책의 기본목표는 궁극적으로 여성 어업인들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데 있다고 할 수 있다. 특히 우리나라 어촌여성 및 여성어업인은 어업노동외에 가사노동의 과중노동에 시달리고 있으며, 도시에 비해 사회문화적인 혜택에서 소외되어 있는 현실을 고려할 때 어촌 여성어업인의 삶의 질 향상 사업은 매우 시급한 과제라 할 수 있다.

따라서 여성농어업인육성법에 제시되어 있는 여성농어업인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한 구체적 시책인 i) 모자가정에 대한 지원(모·부자복지법 제4조제2호 규정), ii) 농어업을 경영하는 노인여성에 대한 지원, iii) 농어촌지역 아동에 대한 보육 및 방과 후 이동지도, iv) 출산을 전후한 여성농어업인의 모성보호와 건강증진을 위한 지원, v) 기타 복지증진에 관한 사항 등을 중심내용으로 하는 여성어업인 기본계획이 마련되어야 할 것이다.

제3장에서 분석한 우리나라 농업정책사례에서 알 수 있듯이 농업 및 농촌부문에서는 2006년부터 제2차 여성농업인육성5개년기본계획이 실시될 예정으로 있다. 아직까지 여성어업인육성기본계획을 수립하지 못하고 있는 해양수산부에 있어 향후 여성농어업인육성법에 의거한 법정계획인 여성어업인 육성 5개년 기본계획의 수립과 추진이야말로 중요한 정책과제라 할 수 있다.

〈표 5-3〉 여성농어업인육성법의 주요내용

구 분	내 용
목적(제1조)	적극적인 지원을 통하여 건강한 농어촌가정구현과 농어업의 발전 및 농어촌 사회의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함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무(제3조)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종합적인 정책을 수립하고 필요한 재정지원 할 수 있음
여성농어업인 육성기본의 수립(제5조)	다음의 각호가 포함된 5년 마다 기본계획 수립 1. 여성농어업인 육성정책 목표 2. 여성농어업인 육성정책의 기본방향 3. 핵심정책과제(농어업경영능력향상, 여성농어업인의 지위향상, 여성농어업인의 삶의 질 향상, 여성농어업인 육성에 필요한 시책)
여성농어업인 관련 실태조사 등(제8조)	효율적 여성농어업인 정책수립을 위하여 여성농어업인의 농어촌생활 실태 및 농어업노동실태 등 여성농어업과 관련한 사항에 대한 정기적 조사를 실시하고 이를 기본계획에 반영
여성농어업인의 경영향상을 위한 사업추진 (제9조)	농어업관련 전문인력 육성 사업 1. 농어업기술교육·농어업경영교육 및 그 교육체계의 구축 2. 여성농어업 후계인력 육성 3. 여성농어업인 생산자단체의 육성과 지원 4. 여성농어업인에게 적합한 영농·영어작업의 환경정비 또는 자동화 5. 여성농어업인에 대한 경영상담과 자금의 지원
여성농어업인의 지위향상을 위한 시책(제10조)	1. 농어업정책 및 여성농어업인육성에 관한 정책결정과정에 참여확대 2. 직업의식 고취 및 사기진작 3. 농어업생산활동기반 마련을 위한 고충상담 4. 문화·교양·건강 등 지역실정에 맞는 프로그램의 운영·지원
여성농어업인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시책(제11조)	1. 모자가정에 대한 지원(모·부자복지법 제4조제2호규정) 2. 농어업을 경영하는 노인여성에 대한 지원 3. 농어촌지역 아동에 대한 보육 및 방과후 아동지도 4. 출산을 전후한 여성농어업인의 모성보호와 건강증진을 위한 지원 5. 기타 복지증진에 관한 사항
여성농어업인 단체에 대한 지원(제12조)	행정적 지원, 필요 경비 전부 또는 일부를 보조할 수 있음
여성농어업인 관련 시설의 설치·운영(제13조)	여성농어업의 권익 및 복지증진을 위한 시설 설치·운영 가능 여성농어업인 관련시설에 대하여 필요한 경비 전부 또는 일부를 보조할 수 있음

### ③ 수산업협동조합의 어촌여성 지원사업 개발

일본의 어업협동조합에서는 이미 오래전부터 여성부를 설치하여 어촌의 어가여성을 대상으로 다양한 여성대책을 추진해 오고 있다. 즉 조직·사람만들기(여성부 리더육성, 생활설계 작성, 여성참획촉진 등), 바다환경보전(천연비누사용추진운동, 해변청소운동, 식수운동), 수산물소비확대(어촌에서 직접 만든 상품 홍보, 위생관리의 철저 등) 등 여러 측면에서 추진하는 어업협동조합의 어촌여성대책은 어업에 한정하지 않고 어가여성의 지역생활과 어촌지역보전까지 고려하고 있다고 할 수 있다.

현재 우리나라 수산업협동조합의 지도사업부문에는 어촌여성을 대상으로 하는 대책 및 지원사업은 없는 실정이다. 수산업과 어촌에 있어 여성의 역할과 중요성은 더욱 증대할 것으로 전망된다. 정부에게만 어촌여성정책과 대책을 맡길 것이 아니라 민간단체인 수산업협동조합에서도 어촌여성에 대하여 적극적인 관여와 대책, 지원 등에 적극 참여하여 어촌여성을 육성하고 여성의 지위를 향상시키는데 기여해야 할 것이다. 일본의 사례는 유익한 참고가 될 것이며 수산업협동조합의 지도사업부문에 새로운 지평을 열 것으로 기대된다.

## 2) 설문조사 결과 분석을 통한 정책과제

### ① 어촌여성 지원정책 및 사업개발

본 연구의 설문조사에서 나타난 어촌여성이 가장 필요로 하는 정책순위를 제시하면 첫째, 6세 미만 유아동을 위한 육아도우미 및 프로그램개발, 관련시설확충, 둘째, 어업기술, 컴퓨터기능 습득 등의 교육참여 확대, 셋째, 노인후생 복지를 위한 시설확충, 넷째, 6세 이상 청소년을 위한 자녀교육도우미 및 프로그램개발, 관련시설확충, 다섯째, 여성이 수협이사, 대의원, 어촌계임원으로 진출하도록 지원, 여섯째, 여성의 건강관리 및 무료검진 등의 확대, 일곱째, 여성이 수산물가공, 유통, 어촌관광 등에 진출할 수 있도록 기술과 자금지원 마지



막, 여덟째, 부부가 공동으로 어업인후계자가 되는 것이다(〈표 5-4〉 참조).

어촌여성이 요구하는 8가지 정책수요에 대하여 검토하고자 한다. 우선 이들 8가지 정책 중에서 자녀양육 및 교육, 건강관리 및 후생복지 등의 4가지 정책과 관련해서는 관계중앙행정기관이 모두 참여하는 ‘농림어업인 삶의 질 향상 특별법’에 의거한 제1차 농림어업인 삶의 질 향상 및 농산어촌 지역 개발 시행 5개년 계획(2005년~2009년)이 2005년 6월에 수립되어 이미 시행 중에 있다.

〈표 5-4〉 어촌여성을 위한 정책수요

순 위	정 책 내 용
1	6세 미만 유아동을 위한 육아 도우미 및 프로그램 개발, 관련 시설 확충
2	어업기술, 컴퓨터기능 습득 등의 교육참여 확대
3	노인후생복지를 위한 시설 확충
4	6세 이상 청소년을 위한 자녀교육도우미 및 프로그램 개발, 관련 시설 확충
5	여성이 수협이사, 대의원, 어촌계임원으로 진출하도록 지원
6	여성의 건강관리 및 무료검진 등의 확대
7	여성이 수산물가공, 유통, 어촌관광 등에 진출할 수 있도록 기술과 자금 지원
8	부부가 공동으로 어업인후계자가 되는 것

이 계획은 그동안 부처별로 분산 지원되고 있는 다양한 농산어촌 지원사업들을 농산어촌의 특수성을 고려하여 하나의 계획에 종합하여 체계화한 것이다. 따라서 이들 4가지 어촌여성과 관련된 정책에 대하여는 향후 해양수산부에서는 기본계획이 어촌과 여성어업인에 대하여 차질 없이 추진되고 있는가를 나름대로 실태를 파악하고, 촉구하는 것이 주요 임무라고 할 수 있다.

나머지 어촌여성이 요구하는 4가지 정책은 수산분야와 관련된 것으로 어업기술, 컴퓨터기능 습득 등의 교육참여 확대, 수협이사·대의원·어촌계임원 진출 지원, 수산물가공·유통·어촌관광사업에 참여할 수 있도록 지원, 부부가 공동으로 어업인후계자가 되는 것으로 이는 해양수산부가 독자적으로 추진해야 할 어촌여성 또는 여성어업인을 위한 정책과제라 할 수 있다.

첫째, 어업기술 및 컴퓨터기능 습득 등의 교육과 관련해서는 수산과학원, 지방해양수산청 그리고 지구별 수협이 여성어업인을 위한 교육실시 추진 주체가 되고 해양수산부에서는 이러한 교육에 대한 지원대책을 마련한다.

둘째, 수협이사, 대의원 및 어촌계임원에 대하여는 여성할당제 도입 등을 통한 어촌여성 및 여성어업인의 진출을 확대할 필요가 있다.

셋째, 어선어업보다는 노동 강도가 높지 않고 비교적 여성이 참여하기 용이하다고 판단되는 수산물가공·유통·어촌관광사업 등에 여성 진출을 지원하는 프로그램 개발이 필요하다. 특히 이 부분의 국가지원사업에 관해서는 제3장에 언급하고 있는 일본 수산청의 어촌여성기업(起業) 지원사례가 많은 참고가 될 것이다. 넷째, 부부가 공동으로 어업인후계자가 되는 것에 대하여는 현행 어업인후계자가 주로 경영자금지원으로 한정되어 부채가 증가할 것이라는 우려가 한편에서는 있으나 전문 여성어업인 육성차원에서 수용 가능한 정책이라고 할 수 있다.

## ② 어촌여성의 노동환경 개선프로그램 개발

설문조사결과에 따르면 어촌여성이 전문여성어업인이 되기 위해 갖추어야 할 요건으로 첫째 생활환경개선 등으로 현재보다 가사노동에 대한 부담이 감소되어야 하며 둘째, 여성의 어업종사여건의 개선이 이루어져야 하고 셋째, 여성어업인의 지위가 향상되어야 하며 넷째, 어업과 관련하여 유망업종 및 품종 개발 여건이 구축되어야 하며 다섯째, 여성 스스로의 적극적인 노력과 의식개발이 필요한 것으로 제시되었다.

이들 요건은 여성 스스로의 노력과 의식개발보다는 과부하의 여성노동을 경감하고 여성에 적합한 환경으로 개선하는 등의 여건기반이 먼저 이루어져야 한다는 중요한 메시지를 담고 있다. 이 다섯 가지 요건과 관련하여 어촌여성의 노동환경 개선 프로그램개발을 제시해 보고자 한다.

가장 우선적으로 고려되어야 하는 것이 어촌여성의 가사노동 부담을 경감시키는 정책이 필요하다. 특히 가사노동 중 어촌여성이 가장 걱정하고 힘들어하

는 일은 ‘자녀양육 및 교육’ 으로 자녀양육 및 교육여건을 개인이 개선하기에는 한계가 많고 국가 또는 지역사회가 공동으로 이 부분에 대한 노력과 대처가 절대적으로 필요하다고 할 수 있다. 그리고 노부모를 돌보는 일은 주로 여성이 담당하고 있어 여성의 일이 가중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고령화사회에서 노부모를 돌보는 여성자신 또한 고령이므로 ‘농산어촌 재가노인복지센터’의 지원을 받아 노부모부양 등의 가사노동 부담을 줄이는 프로그램이 개발되어야 할 것이다.

그리고 여성의 어업종사여건 개선과 관련하여 어촌여성은 어업노동 및 직업에 대한 불만의 이유로 ‘일이 너무 힘들어서’, 어업노동에서 가장 큰 어려움으로 ‘육체적인 힘 부족’과 ‘여성노동에 적합하지 않는 작업환경’, 그리고 어촌생활전반에 대한 불만의 이유로 ‘힘든 어업일’ 등을 들고 있다. 이는 어업작업이 노동강도가 높고, 육체적인 힘을 많이 요하는 작업으로 여성이 감당하기에는 애로가 많기 때문이다.

따라서 여성에 적합한 어업종사여건을 마련하기 위한 어업 작업환경의 개선이 시급하다. 이러한 어업종사여건이 개선되지 않는다면 남성인력의 확보가 어려운 어촌에서 여성인력의 확보 및 활용은 용이하지 않고 어업인력수급에 상당한 차질로 수산업이 정체 또는 위기에 처할 수도 있다.

여성의 어업종사여건을 개선하기 위하여 해양수산부 관련사업 중 예를 들면 어촌종합개발사업, 어항개발사업에서 육체적 힘의 소모를 적게 하는 여성친화적인시설물 설치로 전환할 필요가 있다. 본 연구의 설문조사에서 요구되는 어업시설 및 작업환경 개선을 제시해 보면 다음과 같다. 향후 해양수산부에서는 본 연구에서 제시된 친여성적 어업시설 및 작업환경 개선은 정책에 곧바로 활용될 수 있는 방안이라 할 수 있다.

**〈친여성적 어업시설 및 작업환경 개선〉**

- 샤워시설 설치, -가로등시설 확충, - 공동화장실시설 확충, - 휴게시설 설치
- 탈의장 시설 편리하게 개조, - 어장진입로 확충포장, - 방파제 진입로 확장
- 선착장 사용편리하게 개조, - 물양장 확장, - 그늘막 설치 - 바닷가에서 바로 작업·출하가능 시설, - 자동화시설 도입, - 찜질방 설치, - 공중목욕탕확충 등

다음으로 여성어업인의 지위를 향상시키기 위해서는 우선 여성어업인을 대상으로 조직만들기와 사람만들기 그리고 이의 실천을 위한 교육 및 연수실시와 지원대책이 필요하다. 이와 관련하여 현재 해양수산부는 여성어업인 교육 및 지원대책을 계획하고 있으나 아직까지 구체화되지 못하고 있다. 이는 해양수산부만으로는 역부족이며 수협, 수산업경영인연합회 등의 민간단체가 주체가 되어 여성어업인 조직을 만들고, 교육 및 연수 등의 육성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해양수산부는 적절한 지원을 담당하는 정부와 민간간의 역할분담이 필요하다.

그리고 이러한 여성어업인의 조직 및 사람만들기는 여성어업인 스스로가 노력하고 또 의식을 바꾸려는 계기와 토대가 되므로 매우 중요한 시책이라고 할 수 있다.

마지막으로 어촌여성이 전문여성어업인이 되기 위해서는 노동강도가 높지 않은 여성에 적합한 유망업종 및 품종개발이 필요한데 농업에서 여성의 참여가 확대된 이유 중의 하나가 하우스 등 특수농작물의 재배 확산에 있다고 한다. 즉 벼농사보다 육체적으로 힘을 필요로 하지 않고 작업이 고되지 않는 선별, 포장, 관리 등 여성이 참여하기에 적합한 농업노동환경이 조성되었기 때문이다.

따라서 육체적으로 고된 어선어업보다는 여성어업인이 적극적으로 참여하여 소득을 올릴 수 있는 유망업종 및 품종에 대한 다양한 연구 및 개발사업을 통하여 여성의 어업경영참여 여건이 성숙되어야 할 것이다. 예를 들면 여성에 적합한 유망업종으로 설문조사에서 제시된 것으로 수산물가공, 유통 및 어촌관광사업 등을 들 수 있다.

### ③ 체계적인 정책홍보의 강화

현재 해양수산부가 관여하고 있는 여성관련 정책에는 어업인후계자 여성우대제도, 수협복수조합원제도 그리고 어가도우미제도 등이 있다. 이들 제도의 인지정도와 이용여부에 대하여 어촌여성의 대부분은 이러한 제도를 알지 못하

고 있으며, 이용실적은 거의 전무한 것으로 설문조사에서 나타났다. 어가도우미제도의 경우 본 연구의 설문조사대상 450명 중 단 1명만이 이 제도를 이용한 것으로 조사되었다. 이들 제도와 관련 사업에 대한 해양수산부의 적극적인 홍보가 필요한 실정이다.

특히 어업인의 삶의 질 향상과 관련하여 대부분의 정책과 관련사업은 농업인과 함께 추진되고 이러한 과정에서 해양수산부의 역할은 매우 미약하다고 할 수 있다. 이렇게 되면 자칫 농촌단위 또는 농가여성 중심으로 추진될 가능성이 많고 어촌과 어가여성은 배제될 수도 있다.

따라서 해양수산부는 해양수산부 주도의 관련 정책은 물론이고 농림부가 주축이 되어 추진하고 있는 어촌여성 관련정책 및 사업에 대하여도 적극적인 홍보를 통하여 정책목표를 달성할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이다.

## 제6장

### 결론 및 정책건의

#### 1. 결 론

최근 우리나라의 출산율은 OECD 국가 중에서 가장 낮은 수준으로 향후 노동력 또는 인력수급에 상당한 차질이 예상되어 국가적 차원에서 저출산 문제에 적극 대처하고 특히 모성보호 또는 모성을 인권적 차원에서 다루고자 하는 것이 여성정책 또는 미래 인력확보 정책의 큰 흐름이라 할 수 있다.

오랫동안 사적인 영역에서 해결해야 하는 문제로 인식되어 오던 임신, 출산, 양육과 관련된 재생산 영역의 일을 노동권의 문제로 인식하고 확보하는 과정에서 특히 기혼여성 노동자의 수가 증대하면서 모성보호의 문제는 더욱 중요한 문제로 부각되고 있다. 최근에는 임신, 출산, 양육 등 재생산과 관련된 영역을 여성 개인에게만 부과할 것이 아니라 사회전체가 책임지고 해결해야 하는 문제로 보는 인식이 확산되어 여성정책에 적극 반영되고 있다.

또한 세계적으로 권장 또는 시행되고 있는 여성노동정책의 공통점은 성평등한 고용기회와 근로조건을 만들고 적극적 조치를 활용하여 여성고용을 최대한 확대하며 여성들이 가정과 직장을 양립할 수 있도록 다양한 지원제도를 마련함과 동시에 성역할 분담 이데올로기에서 탈피할 수 있도록 의식화하는 작업들로 이루어지고 있다.

이러한 세계적 동향으로 여성정책의 패러다임이 WID(Women-in Development)에서 GAD(Gender and Development)로 그리고 이제는 성주류화

(Gender Mainstream)로 변화하고 있다. 최근 우리나라에서도 이러한 세계적 동향을 반영하여 여성노동정책의 성주류화를 위해 성인지적 기법에 의거한 정책을 수립하고자 한다. 성인지적 기법에 의한 성주류화 정책이란 남성과 여성의 특성과 차이를 각각 반영하여 정책의 효과가 궁극적으로 양성 간 평등을 달성하는데 기여하고자 하는 정책이다.

이러한 국내외의 여성정책동향은 수산업과 어촌분야에서도 예외가 될 수 없다. 어가의 경제활동인구 중 50.3%, 어업종사원의 45.8%가 여성으로 어업노동에 있어 여성의 참여는 남성에 결코 뒤지지 않으며, 어촌인구의 감소 및 고령화로 어업활동에 여성 참여율은 더욱 높아질 것으로 전망된다. 또한 향후 어업노동에서 여성노동 또는 여성인력이 차지하는 비중과 역할은 매우 중요한 요소가 되고 있다.

그러나 어촌여성의 경우도 마찬가지로 어업노동과 함께 가사노동, 출산 및 육아 등 재생산노동의 담당으로 과 노동 상태에 있으며, 어업노동 및 재생산노동의 부담을 줄이지 않는다면 어업부문에서 여성의 참여와 역할은 크게 기대할 수 없으며, 또한 어업인력의 확보에 많은 애로가 예상된다. 따라서 어업노동 및 재생산노동에서 여성참여를 유도하는 여건개선이 시급한 실정이며 여기에 본 연구의 필요성이 있으며, 이러한 여건을 개선하기 위한 정책과제의 도출에 본 연구의 목적을 두고 있다.

본 연구를 수행함에 있어 임금노동과 함께 무임금의 재생산노동을 담당하는 여성노동에 대한 이해를 돕기 위하여 먼저 여성노동에 대한 간단한 이론적 검토를 하였다. 그리고 여성정책변화에 대한 세계적 동향을 살펴보고 이어 우리나라의 여성노동정책 동향을 분석하였다.

그리고 이러한 국내외 여성노동정책 동향을 기초로 하여 수산관련 통계자료를 이용하여 여성어업노동력 구조와 변화추이를 분석하고, 어촌여성을 대상으로 노동실태와 정책수요를 설문조사를 통하여 파악하였다.

특히 설문조사에 의한 어촌여성 노동실태 파악은 처음 수행되는 연구이며, 이로 인해 어촌여성의 노동실태가 최초로 알려졌다고 할 수 있다. 아울러 본

연구의 결과는 어촌여성의 의사가 반영되는 정책수립과 추진에 기여하는 중요한 자료적 가치를 가진다는 측면에서 의의가 있으며 많은 활용이 기대된다.

이 장에서는 설문조사에 의한 어촌여성의 노동실태를 요약하고 정책적으로 활용도가 높은 본 연구를 통해 도출된 정책과제를 제시하고 이를 효과적으로 추진하기 위한 정책건의를 제안하고자 한다. 어촌여성의 노동실태에 대한 설문조사결과를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 ① 10년 이상 장기간 어업에 종사하고 있는 여성이 대부분이며, 특정기간동안 일시적 어업일을 하는 경우와 일년 내내 어업일을 하는 여성이 약 절반씩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남
- ② 어업외 겸업을 하고 있는 여성이 34% 정도이며, 생활비 부족을 충당하기 위하여 그리고 여유 있는 생활을 영위하기 위함이 그 이유이며, 겸업을 하지 않는 이유로는 마땅한 일자리가 없어서 그리고 어업일이 바빠서 등임
- ③ 특히 어선어업에 있어 부부승선조업은 36%로 나머지 여성은 육상에서 선별 및 포장작업을 하고 있어 노동 강도가 높은 어선어업에서의 여성참여율은 상대적으로 낮은 편임
- ④ 어업경영 의사결정에서는 어업규모 확대, 출하 및 판매, 어선구입 및 매각, 자금대부 및 관리 등 어업경영 전반에 걸친 의사결정에서는 부부가 의논해서 공동으로 결정하고, 세부적인 어업작업에 있어서는 남편이 주도적으로 의사결정을 하고 있음
- ⑤ 어업노동 및 직업에 대하여는 불만이 많았으며, 그 이유로 일한 만큼 댓가를 받지 못한다, 일이 너무 힘들다는 것을 들고 있음
- ⑥ 특히 어업노동에서 가장 큰 어려움은 육체적인 힘부족, 여성노동에 적합하지 않는 작업환경 그리고 가사노동으로 나타남
- ⑦ 응답자의 60%정도가 집안일을 보조하는 어업인으로 자신을 규정하고 있지만, 남편과 공동어업경영인 또는 전문여성어업인으로 인지하는 여성이 34%로 어업노동에 있어 여성의 정체성이 낮은 것만은 아님
- ⑧ 가사노동에 대하여는 부담을 안고 있으며, 대부분의 가사노동을 주부인



여성이 담당하고 있으며, 자녀양육 및 교육에 관하여는 부부가 함께 담당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남

- ⑨ 가사노동 중 가장 걱정되고 힘든 일로 자녀양육 및 교육을 들고 있는데 이는 현재 어촌여성이 가장 관심을 갖는 부분이기도 함
- ⑩ 소득, 이웃 및 가족 관계 등 가정생활 전반에 대하여 만족보다는 불만이 많았으며 그 이유로는 불안정한 소득, 힘든 어업일 그리고 장래에 대한 불안, 자녀양육 및 교육여건의 미흡 등을 들고 있음
- ⑪ 조사대상 어가여성의 약 40%가 노후를 걱정하고 있으며, 노후대책으로 농어민연금에 가입하고 있는 응답이 약 26%로 가장 높게 나타남
- ⑫ 어가여성이 바라는 어촌보육시설은 가까운 거리, 저렴한 비용, 좋은 시설, 장시간의 보육시간, 좋은 교육내용 등을 골고루 갖춘 시설이지만 특히 저렴한 비용을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고 있음
- ⑬ 약 40%의 여성이 건강을 염려하고 있으며, 최근 2년 동안 건강검진을 받지 않은 여성이 64%에 이르고 있음
- ⑭ 어가여성의 단체 및 조직 가입은 매우 저조하며, 그 이유로는 집안 어업일에 지장을 주거나 또는 영향을 미친다는 것임
- ⑮ 어가여성 및 여성어업인과 관련된 제도인식과 관련 사업에 대한 이용은 매우 저조하였으며, 적극적인 홍보가 필요함
- 우선순위로 본 어촌여성을 위한 정책수요 및 관련시설은 첫째, 6세 미만 유아동을 위한 육아도우미 및 프로그램개발, 관련시설 확충, 둘째 어업기술, 컴퓨터기능 습득 등의 교육참여 확대, 셋째, 노인후생복지를 위한 시설확충, 넷째, 6세 이상 청소년을 위한 자녀교육도우미 및 프로그램개발, 관련시설 확충, 다섯째, 여성이 수협이사, 대의원, 어촌계 임원으로 진출하도록 지원, 여섯째, 건강관리 및 무료검진 등의 확대, 일곱째, 여성이 수산가공, 유통, 어촌관광 분야에 진출할 수 있도록 기술과 자금 지원, 여덟째, 부부가 공동으로 어업인 후계자가 되는 것임
- 전문여성어업인이 되기 위한 필요 요건은 가사노동에 대한 부담 감소,

여성에게 적합한 어업종사여건의 마련, 여성어업인의 지위향상, 유망업종 및 품종개발여건 구축 그리고 어가여성의 노력과 의식개발의 순으로 나타나

## 2. 정책건의

### 1) 정책과제 요약

최근 국내외 여성노동정책 동향, 국내외 사례분석 그리고 설문조사결과분석 등을 바탕으로 제5장에서 구체적으로 제안한 정책과제를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이 정책과제는 앞으로 어촌 및 여성어업인 정책에 중요하게 활용될 것으로 사료된다.

첫째, 어촌여성의 경제활동에 대한 기초조사사업의 실시

- 상세한 정보 및 통계자료가 없는 상태에서 어촌여성의 노동환경개선, 삶의 질과 사회경제적 지위향상을 위한 정책수립은 불가능하기 때문임
- 따라서 본 연구의 설문조사방법 및 내용은 기초조사사업에 유효하게 활용될 수 있음

둘째, 여성어업인 육성5개년계획의 수립추진

- 종합적이고 체계적으로 어촌 및 여성어업인에 관한 정책추진을 위하여 여성 ‘농어업인육성법’에 근거한 여성어업인 육성5개년 계획의 수립이 시급함

셋째, 어촌여성의 의견이 반영된 정책추진

- 이 연구를 통해 그 동안 해양수산부의 정책대상에서 소외되고 있었던 어촌여성의 의견을 적극 반영하는 정책수립이 가능해짐. 특히 설문조사에서 제기된 어촌여성이 희망하는 정책과 개선방안 등은 해양수산부와 관계중앙행정기관과 공동으로 추진하거나 또는 수산과 어촌부문에 한해서는 해양

수산부가 단독으로 정책에 적극 활용할 수 있음

넷째, 수산업분야에서 전문여성어업인 지원정책 개발 및 추진

- 다양한 어가도우미제도(출산, 육아 및 노인부양 등)를 통해 가사노동 부담을 경감하는 지원정책을 개발하고 추진
- 어촌종합개발사업, 어항개발사업 등에 있어 여성친화적인 시설로 전환하여 여성이 참여하기 편리한 어업노동환경의 조성과 이에 대한 지원
- 어촌여성 또는 여성어업인의 지위 향상을 위하여 이들 대상으로 교육 및 연수를 실시하고 이에 대한 지원 그리고 수협, 어촌계 임원에 여성할당제 등을 통한 여성진출을 확대
- 육체적으로 고된 어선어업보다는 여성어업인이 적극적으로 참여하여 소득을 올릴 수 있는 유망업종 및 품종개발을 위한 정책개발

다섯째, 어촌여성 관련 정책에 대한 홍보강화

- 해양수산부가 주체가 되어 추진하는 여성관련 제도 및 사업에 대한 적극적인 홍보강화를 통해 정책목표를 달성할 수 있도록 해야 함

여섯째, 수산업협동조합의 어촌여성 지원대책 마련

- 정부에게만 어촌여성정책과 대책을 맡길 것이 아니라 민간단체인 수산업협동조합에서도 어촌여성에 대하여 적극적인 관여와 지원대책이 필요함. 특히 수협의 새로운 지도사업으로 개발하여 추진

## 2) 정책건의

어촌여성을 위한 정책과제를 효과적으로 정책에 활용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은 정책 건의를 하고자 한다.

첫째, 여성농어업인육성법에 의거하여 ‘여성어업인육성기본계획’을 수립하여 보다 체계적이고 종합적인 관점에서 어촌여성의 어업노동 및 삶의 질이 향상되고 여성어업인력의 지속적 확보가 가능하도록 관련 정책을 추진해야 한다. 그리고 여성어업인 육성5개년 기본계획을 수립하기 위한 기초실태 조사

시 본 연구에서 개발된 조사표 내용을 적극 활용하도록 한다.

둘째, 어촌여성의 가사노동부담은 관계중앙부처가 관련되어 ‘농림어업인 삶의질향상 및 농산어촌지역개발시행계획(2005.6)’에 따라 향후 어느 정도 경감될 것으로 보이나 이 부분에서 해양수산부 독자적인 정책역할은 매우 제한되어 있다. 그러나 이 시행계획은 농림부가 주도적인 역할을 하고 있어 자칫 어촌 및 수산분야는 후순위로 밀리거나 배제될 가능성이 많다. 따라서 동 시행계획이 어촌 및 수산분야에도 철저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해양수산부는 어촌 및 수산분야에 대한 실태파악 및 기초 통계자료를 충분히 확보해 둘 필요가 있다. 그리고 이러한 실태파악 및 통계자료 분석을 통하여 어업인을 위한 새로운 정책개발이 제안되어야 할 것이다.

셋째, 해양수산부는 본 연구에서 제안된 정책과제 중 어촌여성을 위해 독자적으로 할 수 있는 정책과제로 여성에 적합한 어업노동환경의 개선, 어업관련 교육참여 확대, 노동강도가 높지 않은 유망업종 및 품종개발, 여성관련 정책에 대한 적극적인 홍보 등에 주력해야 할 것이다. 이를 추진함에 있어 지방해양수산청, 수산과학원, 수협, 수산업경영인연합회 등 민간단체와의 협력이 필요하다. 또한 해양수산부 시설사업에서 여성친화적인 시설로 전환하도록 노력해야 할 것이다. 특히 민간단체의 어촌여성육성사업에 대한 지원대책을 마련하고, 노동강도가 높지 않는 수산물유통, 가공 및 어촌관광부문에 여성어업인의 기업(起業)을 지원할 수 있는 제도검토 및 구체적인 지원사업 방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

넷째, 본 연구에서 제안된 정책과제 중에는 해양수산부가 바로 정책화 또는 사업화할 수 있는 것이 있는 가하면 그렇지 않은 정책과제가 있다. 이는 설문조사 대상에서 일부 지역이 누락되었고, 전체 표본규모가 작아 본 연구내용이 전국을 아우르는 내용이라고 하기에는 한계가 있기 때문이다. 특히 어촌여성을 위한 작업여건개선, 복지시설확충 그리고 어업기술 증진사업 등에 대한 구체적인 사업화 방안에 대하여는 본 연구에서 제안된 내용을 바탕으로 향후 해양수산부의 심도 있는 검토가 있어야 할 것이다.



## 참고문헌

- 강남식, “페미니즘과 성주류화 전략”, 『NGO 시대의 지식 키워드 21』, 서울 : 아르케, 2001.
- 강동욱, “노동시장의 여성장애인 이중차별구조”, 『사회복지정책』 15권, 한국 사회복지정책학회, 2002.
- 강이수·신경아, 『여성과 일』, 서울 : 동녘, 1999.
- 강현아, “한국과 일본의 여성노동정책에 관한 비교연구-1987년 이후 정책내용의 변화 중심으로-”, 『현대사회과학연구』, 전남대학교 사회과학연구소, 1996.
- 권영자, “한국의 여성정책에 관한 연구”, 『여성연구』 통권 제47호, 1995.
- 김경희, “성인지적 예산도입을 위한 시론적 연구: 지방자치단체 여성정책 예산분석 사례를 중심으로”, 『지방자치단체 여성정책과 예산의 새로운 패러다임』, 한국여성민우회 심포지움 자료집, 2002.
- , “성주류화와 성인지적 예산분석의 개념 이해”, 『젠더·예산·여성운동』, 한국여성민우회, 2003.
- 김복규, “우리나라 여성정책의 변화와 발전과제”, 『2000년도 기획세미나국 제포럼 발표논문집』(정부와 참여), 한국행정학회, 2000.
- 김애령, 『여성정책의 변화에 관한 정치사회적 연구: A도를 중심으로』, 이화여대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1999.
- 김양희, “여성정책 주류화를 위한 이론 및 방법론, 쟁점”, 『여성정책주류화를 위한 세미나』, 서울: 한국여성개발원, 2001.
- 김엘림, 『신정부 여성노동정책의 동향과 과제』, 한국여성연구소, 서울: 여성과 사회, 1994.
- 김영옥·김경희, “여성노동정책의 한계와 새 패러다임의 모색”, 『한국 여성정

- 책의 뉴 패러다임 정립」, 여성부, 2004.
- 김재원, “노동시장에서의 여성차별-이론과 개선방향을 중심으로”, 「경제교육연구」, 한국경제교육학회, 1998.
- 김혜정, 「경상남도 여성정책의 현황과 과제: 성인지적 관점을 중심으로」, 신라대 사회복지대학원 석사학위논문, 2005.
- 김재호, 「여성노동시장의 현상과 과제」, 한국노동연구원, 2001.
- 노동부, 「근로여성정책의 변화에 관한 연구」, 2001.
- 농촌경제연구원, 「농촌여성의 의식변화와 역할에 관한 연구」, 1992.
- \_\_\_\_\_, 「농가여성의 노동력 구조와 경제활동 실태」, 1997.
- 민경희, “지방자치대의 여성정책”, 「충북개발연구」, 충북개발연구원. 1995.
- 박숙자, “세계 여성고용정책 비교”, 「여성과 직업」. 부산대 여성연구소: 시그마프레스, 2000.
- 백진아, “여성노동정책의 전개와 과제”, 「동덕여성연구」 9호, 동덕여자대학교 한국여성연구소, 2004.
- 신용자·김영신, 「여성정책과 남녀평등법제도」, 서울: 노문사, 2000.
- 오화영·이해진, “한국의 산업화와 여성고용구조의 변화: 1960-2000년대”, 「동덕여성연구」 8호, 동덕여자대학교 한국여성연구소. 2003.
- 장지연, “모성휴가제도의 변화과정과 여성노동권-2001년 모성보호3법 개정과정을 중심으로”, 「여성연구」 2004년 제1호 통권 66호, 한국여성개발원, 2004.
- 정순영·방혜영·김영혜, 「2002 유엔여성발전 주제 및 이행전략에 관한 연구」, 서울: 한국여성개발원, 2002.
- 조형·강인순·정진주, 「여성의 시민적 권리와 사회정책: 한국여성노동자의 삶의 질을 중심으로」, 서울: 한울, 2003.
- 최현실, 「글로벌 가버넌스로서의 국제기구와 한국의 여성정책변화」, 부산대 대학원 박사학위 논문, 2005.
- 통계청, 「어업기본통계조사보고서」, 각년도.
- 한국노동연구원, 「21세기 지식기반사회에서의 근로여성 중기정책방향 및 목표

- 설정」, 노동부, 2001.
- 한국여성개발원, 「OECD 회원국의 여성고용정책」, 서울: 한국여성개발원, 2000.
- 한국여성개발원, 「국민소득 2만불 시대 여성경제활동 참가 변화 추이와 정책적 함의」, 여성, 2004.
- \_\_\_\_\_, 「여성농업인 육성 5개년 계획시안」, 2000
- \_\_\_\_\_, 「여성농업인 실태조사」, 2003.
- \_\_\_\_\_, 「여성농업인 육성 5개년 계획 중간평가」, 2005.
- 일본 농림수산성통계정보부, 「바다의 은혜를 활용하여 우리들의 경영개선」(어촌여성에 의한 경제활동대책사례), 2003.
- MacAlister Elliott & Partners Ltd, “ The Role of Women in the Fisheries Sector” , TENDER FISH/2000/01-LOT No 1, 1443/R/03/D, 2002.3





(우) 137-851 서울 서초구 방배3동 1027-4 수암빌딩

## 어촌여성의 노동실태 및 의식조사

안녕하십니까?

한국해양수산개발원에서는 어촌 여성의 노동실태 및 의식을 파악하기 위하여 설문 조사를 실시하고자 합니다. 이 조사를 통해 얻어진 결과는 어촌 여성인 정책수립을 위한 중요한 기초 자료로 활용됩니다.

바쁘시더라도 여러분의 진솔한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께서 작성하신 조사내용에 대한 비밀은 법에 의하여 엄격히 보호되며, 통계목적 이외의 사용을 금지하고 있습니다(통계법 제13조, 14조). 감사합니다.

**연구기관 : 한국해양수산개발원**

- 연구책임자 : 최성애 연구위원
- 참여연구진 : 황진희 책임연구원

**조사기관 : (주)코리아데이터네트워크**

서울시 강남구 역삼동 667-14 KDN 빌딩  
 담당연구원 : 김희정 연구원  
 전화) 02-548-5141 팩스) 02-548-5144, 02-512-0777

### □ 응답자

시·도	시·군·구	소속어촌계명	성명	연락처

### □ 조사자 및 조사일자

조사자성명	연락처	조사일자

## I. 일반사항

문1. 귀하의 나이는?( )

- ① 20대              ② 30대              ③ 40대  
④ 50대              ⑤ 60대              ⑥ 70대 이상

문2. 학교는 어디까지 다니셨습니까?

- ① 국졸              ② 중졸              ③ 고졸  
④ 전문대졸        ⑤ 대졸이상        ⑥ 무학

문3. 현재 함께 살고 있는 가족은 총 몇 명입니까? 총    명

문4. 귀하의 가족형태는?

- ① 본인              ② 부부              ③ 부부+자녀        ④ 본인+자녀  
⑤ 부모(편부모 포함)+부부+자녀    ⑥ 부부+손자/녀    ⑦ 기타( )

문5. 귀하의 연간 소득은 평균적으로 얼마나 됩니까? \_\_\_\_\_만원

## II. 노동실태

문6. 귀하는 지금까지 어업에 몇 년간 종사해 오셨습니까?(    년)

문7. 현재 귀하가 종사하고 있는 어업종류는 구체적으로 어떤 종류입니까?

문7-1. 종사하시는 어업 종류 중에서 가장 소득이 많은 것은 어디입니까?

어업종류	구체적인 종류 및 품종	문7-1. 소득이 가장 많은 종류
1) 어선 어업	종류 :	
2) 해조류 양식업	품종 :	
3) 해면어류 양식업	품종 :	
4) 패류 양식	품종 :	
5) 육상어패류 양식	품종 :	
6) 종묘배양 및 중간 육성양식	품종 :	
7) 기타		

문8. (어선어업에 종사하는 경우만) 어선에 부부가 같이 승선하여 활동하십니까? 아니면 남편만 승선하여 활동하고, 본인은 주로 육상에서 활동하십니까?

- ① 부부가 함께 어선에 승선하여 해상어업활동
- ② 남편만 어선에 승선하여 어로활동, 본인은 주로 육상에서 어업활동
- ③ 기타 :

문9. 귀댁의 어업활동 및 작업은 어떻게 하십니까? 해당하는 곳에 V를 해주십시오

구 분	가족노동				품앗이 한다	손품(고용)을 산다
	주로 본인	주로 남편	부부가 비슷하게	기타 가족		
어업작업	1	2	3	4	5	6

문10. 귀하가 어업활동과 관련하여 하시는 일은?

- ① 특정 기간에만 일시적으로 어업일을 한다
- ② 일년 내내 계속한다

- ① 1개월 미만(가끔 어쩌다가 참여, 거의 하지 않는 경우)
- ② 2-3개월(한번씩 일이 생기면 참여)
- ③ 4-6개월(일년에 받은 안되게 참여)
- ④ 7-8개월(일년에 반 이상을 참여)
- ⑤ 9-10개월(특별한 경우가 아니면 대부분 참여)
- ⑥ 기타

① 없음                      ② 있음(무엇 : )

※ 있는 경우 무엇인지 구체적으로 기입해 주십시오(농업, 공무원, 회사원,   
      굴박신작업, 식당일 등)

① 마땅한 일자리가 없어서                      ② 어업일이 바빠서  
③ 나이가 많아서                                      ④ 남편이 원하지 않아서  
⑤ 전문적 기술이나 지식이 부족하여          ⑥ 기타

[illegible]

문15. 귀하는 하루 평균 노동시간(어업, 가사, 비어업부문)은 얼마나 됩니까?

구 분	어업노동	가사일(노동)	비어업일(노동)
어업성어기	시간	시간	시간
어한기	시간	시간	시간

\* 비어업일 : 어업노동과 가사일(노동)을 제외한 일을 말함.

문16. 귀택의 다음과 같은 어업작업 또는 어업일을 주로 누가 결정하고 있습니까? 해당하는 난에 V해 주십시오

구 분	본인	남편 (본인 관여치 않음)	부부가 의논 해서 공동결정	남편주도, 나와 상의 결정	본인주도, 남편과 상의 결정
1) 어업규모 확대/축소	1	2	3	4	5
2) 어업작업 일정 짜기	1	2	3	4	5
3) 어업종류 및 품종의 선택	1	2	3	4	5
4) 어망, 어구 등 어업기자재 구입	1	2	3	4	5
5) 품을 사거나 또는 인부고용	1	2	3	4	5
6) 수산물 출하 및 판매	1	2	3	4	5
7) 어장 또는 어선구입 및 매각	1	2	3	4	5
8) 종묘, 종패 등의 구입	1	2	3	4	5
9) 영어자금대부 및 관리	1	2	3	4	5
10) 영어조합법인결성, 어업인후 계자가입, 수협가입 등	1	2	3	4	5

문17. 귀하가 어업활동 속에서 느끼는 자신의 위치는?

- ① 주부                                      ② 집안 어업일을 돕는 보조적인 어업인  
 ③ 남편과 동등한 공동어업경영인                      ④ 전문적인 여성어업인  
 ⑤ 기타

문18. 배우자(남편)과 비교시 귀하의 어업참여 정도는?

전체	본인(%)	남편(%)
100%		

문19. 귀하는 현재 자신의 직업 또는 어업노동에 대하여 얼마나 만족하십니까?

- ① 매우 만족    ② 만족    ③ 보통    ④ 불만    ⑤ 매우 불만

문20. 현재 자신의 직업 또는 어업노동에 대하여(앞의 문항에서 불만 또는 매우 불만에 응답한 경우만)만족하지 못하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 ① 일이 너무 힘들어서  
 ② 일한 만큼의 댓가가 돌아오지 않아서  
 ③ 어업에 대한 사회의 인식이 좋지 않아서  
 ④ 자연재해로 인한 피해가 너무 심해서  
 ⑤ 정부의 수산정책이 현실과 동떨어져서  
 ⑥ 기타 : \_\_\_\_\_

문21. 귀하가 어업노동(활동)에서 겪고 있는 가장 큰 어려움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중요한 항목 두 가지를 고르십시오.

- ① 가사 일                      ② 육아 자녀교육                      ③ 노부모 봉양  
 ④ 육체적인 힘 부족    ⑤ 어업기술부족과 기계조작 미숙  
 ⑥ 여성에게 적합한 작업환경의 미조성  
 ⑦ 기타 :

문22. 귀하는 어업과 관련하여 컴퓨터를 사용하고 계십니까?

- ① 집에 컴퓨터가 없음                      ② 컴퓨터는 있지만 나는 사용할 줄 모름

- ③ 사용할 줄 알지만 어업과 관련해서 사용하지는 않음  
 ④ 어업과 관련하여 컴퓨터를 사용하고 있음  
 ⑤ 기타 : \_\_\_\_\_

### Ⅲ. 가사노동과 생활 만족도

문23. 귀하가 느끼는 가사노동에 대한 부담은 어느 정도입니까?

- ① 매우 부담 ② 부담 ③ 보통 ④ 부담없음 ⑤ 전혀 부담없음

문24. 귀댁의 가사노동(활동)은 어떻게 분담하고 계십니까? 이 중에서 가장 힘든 일은 어떤 것입니까?

가 사 노 동	본인이 주로 함	남편이 주로 함	부부가 함께 함	기타 가족들이 함	가장 걱정되고 힘든 일
집안청소	1	2	3	4	1
식료품구입	1	2	3	4	2
식사준비	1	2	3	4	3
설거지	1	2	3	4	4
빨래	1	2	3	4	5
노부모 봉양	1	2	3	4	6
자녀양육 및 교육	1	2	3	4	7
손님접대	1	2	3	4	8
은행, 우체국업무	1	2	3	4	9
관공서업무	1	2	3	4	10

문25. 귀하는 하루 평균 자기만의 여가시간은 어느 정도입니까?

어업성어기	어한기
시간	시간



문26. 현재의 소득으로 생활이 가능합니까?

- ① 충분함 ② 그런대로 가능 ③ 보통 ④ 조금 부족 ⑤ 많이 부족

문27. 귀하는 귀택 총수입에 어느 정도 기여하고 있습니까? 해당 난에 V해 주십시오

구 분	20%미만	20~39%	40~59%	60~80%	80%이상
기여도	1	2	3	4	5

문28. 귀하는 소득, 이웃과의 관계 등을 고려해 볼 때 가정생활 전반에 대한 만족은 어느 정도 입니까?

- ① 매우 만족 ② 만족 ③ 보통 ④ 불만 ⑤ 매우 불만

문29. 현재 생활에 대한 불만(앞의 문항에서 불만 또는 매우 불만에 응답한 경우만) 의 이유는 무엇입니까?

중요한 항목 두 가지만 선택하십시오.

- ① 불안정한 소득      ② 낙후된 생활여건      ③ 주민간의 위화감  
 ④ 장래에 대한 불안감      ⑤ 가족내 환자      ⑥ 어업일이 힘들어서  
 ⑦ 문화생활을 즐길 수 없어서      ⑧ 자녀 양육 및 교육여건의 미흡  
 ⑨ 기타 : \_\_\_\_\_

문30. 귀택의 경제사정은 5년 후에 어떻게 변할 것으로 생각되십니까?

- ① 매우 좋아질 것이다      ② 좋아질 것이다  
 ③ 변함 없을 것이다      ④ 나빠질 것이다  
 ⑤ 매우 나빠질 것이다

#### IV. 기타복지(건강, 노후대책, 문화생활 등)

문31. 귀하는 부모의 노후부양에 대한 책임이 어디에 있다고 보십니까?

- ① 부모 스스로      ② 자녀      ③ 국가 및 지역사회  
④ 기타 : \_\_\_\_\_

문32. (6세 미만의 자녀가 있는 경우만)자녀를 보육시설(놀이방, 어린이집, 유아원, 미술원, 피아노학원 등)에 보내십니까?

- ① 보육시설에 보낸다  
② 집에서 돌본다(누가: \_\_\_\_\_ )

문33. 귀하는 어촌보육시설의 경우 다음 중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 ① 거리가 가까워야 한다      ② 비용이 저렴해야 한다  
③ 시설이 좋아야 한다      ④ 맡기는 시간이 길어야 한다  
⑤ 교육내용이 좋아야 한다      ⑥ 6세 미만의 자녀가 없다  
⑦ 기타 :

문34. 귀하의 가정에서 교육비의 부담 정도는?

- ① 매우 부담 ② 부담 ③ 보통 ④ 부담이 작다 ⑤ 아주 부담이 작다

문35. 귀하는 자신의 연령에 비추어 볼 때 얼마나 건강한 편입니까?

- ① 아주 건강 ② 건강한 편 ③ 보통 ④ 건강하지 못함 ⑤ 건강이 매우 나쁨

문36. 귀하는 다음과 같은 어업작업으로 인한 중세가 얼마나 자주 있었습니까?

구 분	증세빈도			구 분	증세빈도		
	없음	가끔	자주		없음	가끔	자주
어깨결림	1	2	3	어지러움	1	2	3
요통	1	2	3	복부팽만감	1	2	3
손발저림	1	2	3	매스꺼움	1	2	3
야간빈뇨	1	2	3	부종	1	2	3
호흡곤란	1	2	3	두통	1	2	3
불면증	1	2	3	기타 :	1	2	3

문37. 귀하는 최근 2년 동안 종합 건강검진을 받은 적이 있습니까?

- ① 예                      ② 아니오

문38. 귀댁은 농어민 연금에 가입하셨습니다?

- ① 가입                      ② 가입하지 않음

문39. 귀하는 자신의 노후생활에 대해 대비하셨습니까? 해당사항 전부 선택  
해 주십시오.

- ① 저축, 민간보험, 부동산 등의 기타 재산 등으로 충당할 수 있어  
별 걱정 없음
- ② 노후대책으로 농어민연금에 가입하고 있음
- ③ 별다른 대책은 세우고 있지 않지만 걱정은 없음
- ④ 자녀의 부양을 받을 것이므로 그다지 걱정스럽지 않음
- ⑤ 노후생활이 매우 걱정스럽다
- ⑥ 계속해서 어업을 하여 노후생계는 그다지 걱정되지 않음
- ⑦ 기타 : \_\_\_\_\_

문40. 귀하는 국내의 여행 또는 관광(야유회 포함)을 어느 정도 하십니까?

- ① 매년(연 평균 : \_\_\_\_\_회)      ② 2-3년에 한 번 정도  
 ③ 전혀 없음      ④ 기타 : \_\_\_\_\_

문41. 귀하는 지난 1년 동안 다음과 같은 문화행사에 직접 관람하신 적이 있습니까? (문화행사, 전시회, 국악, 민속놀이공연, 음악공연, 연극, 영화, 무용공연, 연예공연 등)

- ① 있다( \_\_\_\_\_회)      ② 없다

## V. 정책 수요

문42. 귀하는 다음의 단체 혹은 조직에 귀하의 이름으로 가입하십니까?

구 분	가입하지 않음	이름만 올림	적극 활동
수협	1	2	3
어촌계	1	2	3
영어조합법인	1	2	3
어업인후계자	1	2	3
어촌여성관련단체 (단체명: _____)	1	2	3
기타:	1	2	3

문43. 귀하가 여성어업인으로서 위의 관련 단체 및 조직활동을 하면서 또는 가입하고자 할 때 가장 어려운 점은?

- ① 가족의 비협조    ② 집안 어업일에 애로      ③ 관련기관 비협조  
 ④ 거리가 멀어 교통장애(섬, 오지에 위치)      ⑤ 경제적인 애로  
 ⑥ 기타 : \_\_\_\_\_

문44. 귀하는 다음과 같은 사항에 대해 알고 계십니까?

구 분	제도인식		이용여부	
	알고 있음	모름	있음	없음
어업인후계자여성우대제도	1	2	1	2
수협복수조합원제도	1	2	1	2
어가도우미제도	1	2	1	2

문45. 어촌여성을 위해 다음과 같은 일 또는 시설이 얼마나 필요하십니까?

구 분	매우 필요	필요	보통	전혀 필요없음
부부가 공동으로 어업인후계자가 되는 것	1	2	3	4
부부가 각각 농어민 연금에 가입하는 것	1	2	3	4
여성이 수산물가공, 유통, 어촌관광 등으로 진출할 수 있도록 기술과 자금 지원	1	2	3	4
여성이 수협이사, 대의원, 어촌계 임원으로 진출하도록 지원	1	2	3	4
여성의 건강관리 및 무료검진 등의 확대	1	2	3	4
6세미만 유아동을 위한 육아도우미 및 관련시설 확충	1	2	3	4
6세이상 청소년을 위한 자녀교육도우미 및 프로그램개발, 관련 시설확충	1	2	3	4
노인후생복지를 위한 시설확충	1	2	3	4
어업기술, 컴퓨터기능습득 등의 교육참여 확대	1	2	3	4

문46. 어촌여성이 어업분야에서 전문인력이 되기 위해서는 어떤 점을 갖추어야 하는 지 세 가지만 선택하십시오.

- ① 여성어업인에 대한 지위향상
- ② 생활환경개선으로 가사노동부담 감소
- ③ 영어교육에 적극적으로 참석할 수 있는 기회와 여건조성
- ④ 수협, 영어조합법인 등 생산자조직에 대한 참여보장
- ⑤ 유망업종, 품종개발여건 구축(정보제공망 구축등)

- ⑥ 여성용 복지시설확충으로 어업종사여건 개선
- ⑦ 후계자·선도어가에 여성선정 확대
- ⑧ 어촌여성의 적극적인 노력과 의식개발
- ⑨ 기타 : \_\_\_\_\_

문47. 현재 귀하가 종사하고 있는 어업활동에서 여성노동에 적합하도록 시설개선이 이루어져야 한다면 어떠한 것이 있습니까?(자유서술, 예를 들면 어장진입로 등)

문48. 어촌여성의 발전 및 여성어업인의 역할 수행을 위한 정책아이디어, 정부의 지원 방안 등에 대해 의견이 있으면 적어 주십시오

〈대단히 감사합니다〉

---

어촌여성의 노동실태와 정책과제

---

2005年 12月 28日 印刷

2005年 12月 30日 發行

編輯兼  
發行人

李 正 煥

發行處

韓國 海洋水産開發院  
서울특별시 서초구 방배3동 1027~4  
수암빌딩

전 화

2105~2700 FAX : 2105~2800

등 록

1984년 8월 6일 제16~80호

---

組版・印刷 / 해항사 393~0836

정가 15,000원

판매 및 보급 : 정부간행물관매센터

Tel : 394~0337, 734~6818